

2007 통일의식조사

김병로 · 김병조 · 박명규 · 서호철 · 은기수 · 정은미

서울대통일연구소 통일학연구 1

2007 통일의식조사

김병로·김병조·박명규·서호철·은기수·정은미

서울대통일연구소 통일학연구 11

2007 통일 의식 조사

인 쇄 2007. 10

발 행 2007. 10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발행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장

편집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통일연구실

등 록 119-82-67975 (2006.7.7)

주 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599

전 화 02) 880-4052-4, 874-730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 인쇄 도서출판 늘품 (2275-5326)

가 격 10,000원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7

*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2007) 통일 의식 조사 / 김병로, 김병조, 박명규, 서호철, 은기수, 정은미.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7
p. ; cm. — (서울대통일연구소 통일학연구 ; 1)

권말부록으로 “응답자 특성”, “질문항별 조사결과 집계표”, “설문지” 수록

ISBN 978-89-959656-0-3 93330 : ₩10000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7003041

서울대통일연구소 통일학연구 1

2007 통일외식조사



목차

서론	1. 조사목적	3
	2. 조사내용	4
	3. 조사방법	6
제1부 기초분석	I. 통일에 대한 인식	11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11
	2. 통일 가능 시기와 추진속도	14
	3.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16
	4. 통일후 사회문제개선 기대수준	18
	5.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	20
	6. 소결	21
	II. 북한에 대한 인식	23
	1. 북한의 존재 인식	24
	2.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	27
	3. 북한의 변화와 대남 영향력	29
	4.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	30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33
	6. 소결	38
	III.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41
	1. 남북교류의 통일기여도	42
	2. 통일달성에 시급한 문제	47
	3. 대북지원의 효과성과 적절성	53
	4.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58
	5. 소결	61
	IV. 새터민에 대한 인식	64
1.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65	
2. 새터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67	
3. 새터민 수용에 대한 견해	70	

	4.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72
	5. 소결	75
	V.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77
	1. 한국인이 가깝게 느끼는 국가와 위협을 느끼는 국가	77
	2.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	86
	3. 한반도 주변국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92
	4.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태도	97
	5. 통일의 조건: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	101
	6. 소결	104
제2부 심층분석	I. 통일의 기대: 현실적 이익에 반한 당위적 요청	109
	1. 통일이 민족적 당위라는 인식의 심화	110
	2. 현실적 이익에 반한 통일의 요청	112
	3. 소결	115
	II. 대북인식 변화의 시계열적 비교분석	117
	1. 북한에 대한 ‘공정’인식의 지속적 확대	118
	2.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위기의식의 반복	121
	3. 대북인식 변화의 특징 및 배경	123
	4. 소결	128
	III.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격차: 그 실상과 극복 방안의 모색	130
	1.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격차와 남남갈등	131
	2. 남남갈등 없는 대북정책 추진 가능성 모색	135

3. 소결	142
IV. 북한 인식과 새터민 인식의 상호작용	144
1. 대북 인식과 새터민 인식	146
2. 북한사회 인지도와 새터민 인식	148
3. 북한관련 경험 유무와 새터민 인식	151
4. 소결	155
V. 주변국과의 인식	157
1. 강한 민족주의와 북한·미국에 대한 태도	157
2. 가깝게 느끼는 나라와 위협적으로 느끼는 나라의 일치와 불일치	162
3. 이념적 성향과 가깝게 느끼는 나라 및 위협적으로 느끼는 나라의 관계	164
4. 소결	167
결론	171
부록	
1. 응답자 특성	183
2. 질문항별 조사결과 집계표	184
3. 설문지	268

표목차

[표 1-I-1]	통일가능시기와 추진속도	16
[표 1-V-1]	연령별 한반도 주요 주변국에 대한 인식	88
[표 1-V-2]	교육수준별 한반도 주요 주변국에 대한 인식	90
[표 1-V-3]	이념적 성향별 한반도 주요 주변국에 대한 인식	91
[표 1-V-4]	연령별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한반도 전쟁시 예상되는 대처 방식	95
[표 1-V-5]	이념적 성향별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한반도 전쟁시 예상되는 대처 방식	96
[표 1-V-6]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통일을 원하는 정도의 평균값 및 표준오차	99
[표 1-V-7]	연령별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태도	101
[표 2-I-1]	통일의 이유에 대한 연령별 응답비율	111
[표 2-I-2]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의 기대	114
[표 2-I-3]	통일에 대한 이익 기대와 통일의 필요성 인식	114
[표 2-I-4]	남북한관계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	115
[표 2-II-1]	대북인식의 이중성과 세대별 의식변화	124
[표 2-II-2]	대북인식과 대미인식의 관계	126
[표 2-II-3]	대북인식과 대러인식의 관계	127
[표 2-III-1]	남북교류별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 MCA 분석	132
[표 2-III-2]	성 및 교육수준별 북한에 대한 인지도 및 정치에 대한 관심도	133
[표 2-III-3]	정치성향별 대북정책에 대해 의견의 크게 다른 부분	136
[표 2-III-4]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이념체제	137
[표 2-III-5]	통일에 이루기 위해 시급한 상황 : MCA 분석	139

2007 통일인식조사

[표 2-Ⅲ-6]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	141
[표 2-Ⅲ-7] 대북정책 결정에 국민의견 반영정도	142
[표 2-Ⅳ-1] 새터민 입국 현황 (2007년 7월 현재)	145
[표 2-Ⅳ-2] 대북 인식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146
[표 2-Ⅳ-3] 대북 인식과 새터민의 사회적 기능	147
[표 2-Ⅳ-4] 대북 인식과 새터민 정책	148
[표 2-Ⅳ-5] 북한사회 인지도와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149
[표 2-Ⅳ-6] 북한사회 인지도와 새터민과의 관계 태도	151
[표 2-Ⅳ-7] 북한관련 경험 유무와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153
[표 2-Ⅳ-8] 북한관련 경험 유무와 새터민과의 관계 태도	155
[표 2-V-1] 지역별 북·미 축구시합시 응원 국가	159
[표 2-V-2] 지역별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에 대한 태도	161
[표 2-V-3]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	162
[표 2-V-4] 이념적인 성향과 좋아하는 나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	166

그림목차

[그림 1-I-1] 통일의 필요성	12
[그림 1-I-2] 통일의 이유	13
[그림 1-I-3] 통일의 추진속도	14
[그림 1-I-4]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17
[그림 1-I-5] 통일후 사회문제개선 기대수준	19
[그림 1-I-6]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21
[그림 1-II-1] 북한의 존재 인식	25
[그림 1-II-2]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	28
[그림 1-II-3] 북한의 변화 정도	29
[그림 1-II-4]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31
[그림 1-II-5] 북한사회 인지도	34
[그림 1-III-1] 대북정책이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	42
[그림 1-III-2] 통일이 되려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사항	48
[그림 1-III-3] 대북 지원의 효과성	54
[그림 1-III-4] 대북 지원규모의 적절성	55
[그림 1-III-5] 대북 지원 축소 이유	57
[그림 1-III-6] 대북지원의 효과성과 대북 지원규모의 적절성 간의 관계	58
[그림 1-III-7]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59
[그림 1-III-8] 대북정책에 국민의견이 반영되는 정도	60
[그림 1-IV-1]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Ⅰ) (2007 서울대 통일연구소 조사)	65
[그림 1-IV-2]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Ⅱ) (2005 통일연구원 조사)	66
[그림 1-IV-3] 새터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68

2007 통일인식조사

[그림 1-Ⅳ-4] 새터민 수용에 대한 견해	70
[그림 1-Ⅳ-5]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73
[그림 1-Ⅴ-1] 한국인이 가깝게 느끼는 나라	78
[그림 1-Ⅴ-2]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	82
[그림 1-Ⅴ-3] 한반도 주요 주변국에 대한 인식	86
[그림 1-Ⅴ-4]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한반도 전쟁시 예상되는 대처 방식	92
[그림 1-Ⅴ-5]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태도	98
[그림 1-Ⅴ-6]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통일을 원하는 정도의 평균값의 95% 신뢰구간	99
[그림 1-Ⅴ-7] 남북한의 통일에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의 필요성	102
[그림 2-Ⅰ-1] 통일의 이유에 대한 응답비율의 변화	112
[그림 2-Ⅰ-2] 통일 이후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	113
[그림 2-Ⅱ-1] 대북인식의 변화	119
[그림 2-Ⅱ-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122

2007
통일의식조사

서론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IUS



1. 조사목적

최근 몇 년 동안 한반도의 주변정세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바야흐로 남북교역의 규모는 2006년 한해 13억 달러가 넘었으며 방북인원도 연 10만명에 이른다. 또 개성공단에서는 2007년 9월 현재 1만7천여명의 북녘 노동자들이 남측의 기업들에서 일을 하고 있다. 심지어 남한 사회에는 2007년 7월 현재 1만명의 새터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규모의 증대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심각하게 경색되었을 때조차도 계속되었다.

또한 북핵 6자회담의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불능화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북미관계의 정상화라는 의제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심지어 지난 9월 7일 호주에서 개최된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핵폐기→한국전 종전선언→평화조약(peace treaty)체결→북미수교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언급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 2~4일에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 통일의 새 국면 조성 등의 의제가 진지하게 논의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인 주변정세와 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모처럼 활기를 찾은 통일의 열기는 여전히 불안한 씨앗들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적극적인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의 핵 확산 문제는 여전히 6자회담의 진행에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이루어낸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야심찬 로드맵은 사안에 따라 우리 사회에 남남갈등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상의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대북 인식, 대북정책 평가, 새터민에 대한 인식, 주변국에 대한 관점 등은 우리 국민의 통일외식에 반영되어 통일외식을 변화시킨다.

아직 우리 사회는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이상적인 통일 사회의 상(像)에 대해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조차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은 오랫동안 당위적 구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언제까지 남과 북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북연합제의 공통점을 ‘발견한’ 수준에만 멈추어 있을 수 없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통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 달성에 필요한 올바르고 적절한 접근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가 실시한 통일외식조사는 통일, 대북인식, 대북정책, 새터민, 국제환경, 남한의 사회외식 등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여론 및 의식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 논의를 창출하고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내용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7년 통일외식조사는 크게 통일에 대한 견해, 대북 인식,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새터민에 대한 인식,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통일에 대한 견해는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가능 시기, 대북 교류협력 사업의 통일 기여도, 통일달성에 시급한 사안들, 통일 전후의 사회변화,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등을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대북 인식은 대북관계 인식, 북한의 민주주의, 북한정권의 신뢰도, 북한의 변화 정도, 북한에 대한 인지도, 북한관련 경험 유무, 남북한 간의 이질성,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핵의 위협의식, 한반도 전쟁가능성 등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는 대북지원에 의한 북한주민 생활 개선도, 대북지원규모의 적절성,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등을 묻는 질문들이 해당된다.

네 번째, 새터민에 대한 인식은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새터민과의 관계 태도, 새터민 수용에 대한 견해,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와 새터민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인식은 주변국의 우호 또는 위협 의식, 주변국과의 관계 규정, 한반도 전쟁 발발시 주변국의 태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기대, 주변국과의 공조 필요성,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간의 우위 등의 질문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통일의식조사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현재의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구성하여 설문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변동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통일 및 대북정책, 대북 인식,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등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는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인 4.19, 5.16, 10월유신,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평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평가, 1970년대 이룩

한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 사회문제의 심각성, 반미정서 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현재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현실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관심, 정치적 성향,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집합행위에 대한 견해, 가족관, 북한의 대남정책이 12월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력 등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1부에서 다섯 가지 부문의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고, 제2부에서는 각 부문별로 쟁점이 될 만한 특정 주제에 대해 각종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심층 분석을 하여 여러 가지의 흥미로운 함의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응답자 특성, 다섯 가지의 배경변수에 따른 조사결과 집계표, 그리고 설문지를 실었다.

3. 조사방법

이 통일외식조사는 2007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13일 동안 통계청의 2005년 인구총조사에 의한 전국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 6개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남북도·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제주도 9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응답자 분포의 구체적인 특성은 부록을 참조할 것).

조사표본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배분하고 난 후, 각 지역별로 모집단 비율에 따라 층화하여 최종조사 지점(통/반)을 추출하는 다단계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여 표집하였다. 그리고 조사는 한국갤럽을 통해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설문작성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통일문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온 타 기관들의 설문들을 사전에 철저히 비교 검토함으로써 본 통일 의식조사의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일부 조사항목들을 구성했으며, 기존에 실시된 타기관의 조사들이 간과하거나 소홀히 다룬 중요한 조사항목들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또한 처음부터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인식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항목들 외에도 남한의 사회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 구성하여 설문을 작성하였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면밀하게 실사 설계(fieldwork design)를 하였다. 조사 전에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고 면접원 교육에 앞서 실사지도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면접원 교육은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하여 2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부의 연습면접을 실시하였고 조사방법과 질문지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오차(non-sampling)를 최소화하여 실사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20%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한국갤럽의 검증원이 전화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전산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질문항목별로 기본 빈도(frequency)를 구하고, 성별·연령·교육수준·직업·가구소득·지역·지역크기·결혼여부·사회계층·정치적 성향 등의 배경변수에 따른 조사결과를 집계하였다. 본 보고서 부록에는 지면의 한계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정치적 성향 등의

변수에 따른 조사결과만을 실었다.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pm 2.8\%$ 를 넘지 않으며, 보고서에 사용된 교차분석은 $P < 0.05 \sim P < 0.001$ 의 유의도가 있는 것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2부 심층 분석에서는 질문항목에 따라 다양한 분석 기법(교차분석, 요인분석, 중분류분석(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MCA), ANOVA, 회귀분석 등)들을 사용하여 심도 깊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7
통일의식조사

제1부

기초분석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I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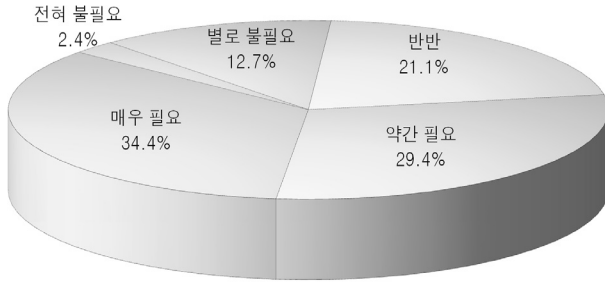
I. 통일에 대한 인식

남북분단과 전쟁 이후 벌써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체제는 물론 사회상과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남북간의 이질화가 갈수록 심해져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이전 어느 시기보다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먼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과 통일 전후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예상 등을 가늠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의 가능시기와 추진 속도,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후 각종 사회문제들의 개선의 전망,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3.8%를 차지해서, 반반이라거나(21.1%) 별

로 또는 전혀 필요없다는(15.1%)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I-1]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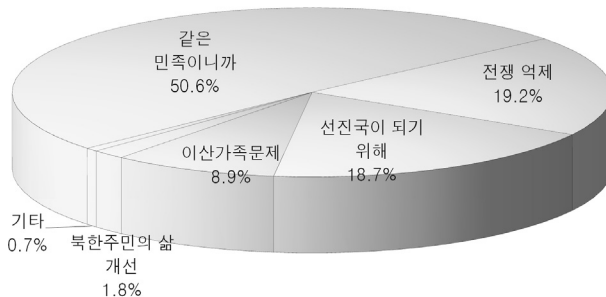
그러나 집단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경우가 있었는데, 우선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의 70.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응답자의 57.6%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저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여성 쪽이 더 높았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통일 및 남북 문제와 관련한 남성과 여성의 태도 차이는 다른 질문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고, 20대 이하(53.3%)와 30대 이상(평균 67.3%)의 차이가 컸다.

지역별로는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호남권에서 78.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수도권에서는 62.1%, 영남권에서는 59.8%로 그보다 많이 낮았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70.0%,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60.6%,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63.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중도적 성향의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더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은 눈여겨볼 점이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제일 많이 꼽은 것은 역시 ‘같은 민족이니까’(50.6%)라는 대답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19.2%),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8.7%),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8.9%),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1.8%)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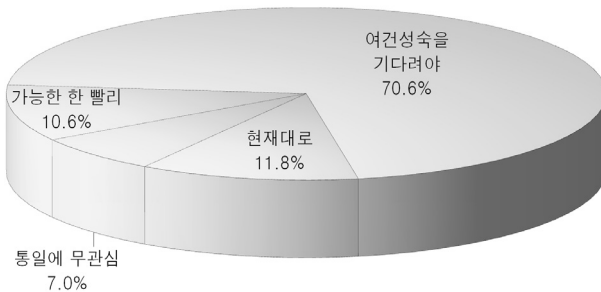
통일의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연령별, 교육수준별, 정치적 성향별로 상당히 다른 응답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같은 민족’이라는 통일의 당위적 측면을 강조한 응답과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실용적 태도를 보인 응답의 비율 차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높을수록, 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같은 민족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의 발전, 선진국화를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꼽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교육수준별로 중졸 이하의 5.9%, 고등학교 15.6%, 대학 재학 이상의 25.3%라는 차이를 보인 것은 인상적이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스스로 진보적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도적,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민족적 당위성을 강조한 경우가 적은 반면(각각 42.6%, 53.2%, 53.5%), ‘선진국’을 강조한 경우가 많았다(각각 22.4%, 16.9%, 18.3%).



[그림 1-I-2] 통일의 이유

2. 통일 가능 시기와 추진속도

남북한의 통일을 추진해가는 속도와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이 70.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밖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0.6%, ‘현재대로가 좋다’는 11.8%,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7.0% 등이었다.



[그림 1-I-3] 통일의 추진속도

여기서도 역시 남성과 여성의 태도 차이가 뚜렷했는데, 남성은 ‘가능한 한 빨리’와 ‘여건 성숙을 기다려야’라는 응답의 비율이, 여성은 ‘현재대로가 좋다’와 ‘관심이 없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능한 한 빨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현재대로’나 ‘관심이 없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특히 ‘가능한 한 빨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호남권에서는 21.0%, 중부권에서는 15.3%인 반면 수도권은 8.7%, 영남권은 8.7%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여건성숙을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스스로를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가능한 한 빨리’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고 ‘현재대로’나 ‘관심없다’의 비율은 가장 높아서, 보수적인 집단보다도 통일 문제에 대해 더 미온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굳이 통일문제와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스스로를 ‘중도적’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 성향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경우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년 이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7%, ‘10년 이내’가 23.5%, ‘20년 이내’ 30.8%, ‘30년 이내’ 14.7%, ‘30년 이상’ 13.8%, ‘불가능하다’가 13.3%였다. 대개 20년쯤 뒤의 미래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그때까지는 통일이 가능하리라는 응답이 67.8%의 다수를 차지하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나 통일이 가능하거나 아예 불가능하리라는 응답이 32.2%에 이르렀다. 앞서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8%였던 것을 생각하면, 20년 이내 쪽의 응답은 어느 정도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고, 30년 이상의 응답은 사실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두 질문을 교차시켜 보면, ‘가능한 한 빨리’라든가 ‘여건 성숙을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통일 가능시기에 대해서 10년이나 20년 이내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고, ‘현재대로가 좋다’든지 특히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통일 가능시기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든지 30년 이상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다.

표 1-1-1 통일가능시기와 추진속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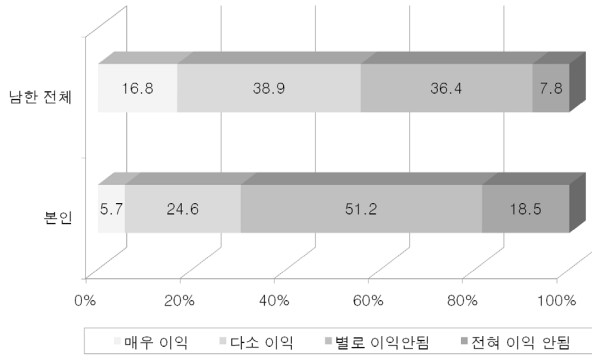
	남북한 통일 가능시기						N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가능한 한 빨리	14.2	44.9	26.8	3.9	4.7	5.5	127
여건성숙을 기다려	2.6	24.0	36.4	17.3	12.5	7.1	845
현재대로가 좋다	2.8	12.7	12.0	12.0	26.1	34.5	142
관심 없다	0	.3	13.1	9.5	20.2	52.4	84

N=1198 (모름/무응답 2 제외), $\chi^2=339.170$, $p < 0.001$

3.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를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 통일이 가져올 이익과 불이익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포괄적으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결과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해석되었을 것이다.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쨌든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5.8%, 이익이 되지 않으리라는 응답이 44.2%를 차지했다. 이익에 대한 기대가 두드러지지 않고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2005년 통일연구원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에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3.7%,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6.3%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I-4]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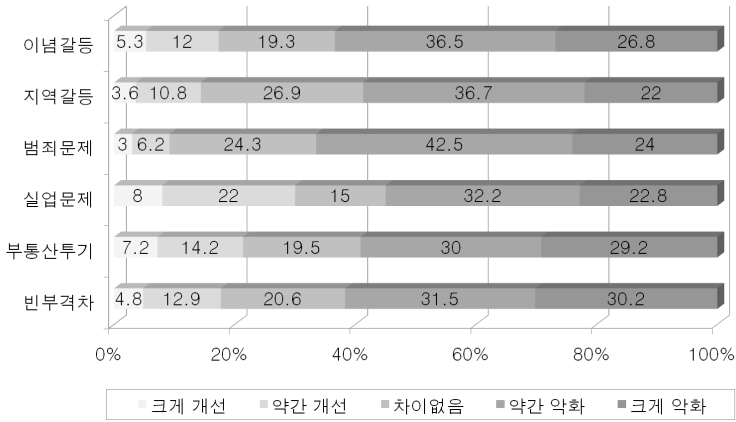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62.5%)이 여성(48.9%)보다 통일의 이익을 훨씬 더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스스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66.2%)와 40대(55.7%), 20대 이하(54.6%), 50대 이상(32.6%)의 순이었는데, 2005년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는 30대, 20대, 60대 이상, 50대, 40대의 순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조사 결과에서 20대와 40대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꼭 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20대 이하 집단은 통일과 남북관계 등의 문제 전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0.3%,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9.7%로, 응답자의 다수가 이익을 기대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태도의 차이는 앞서의 질문과 비슷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통일에 대한 이익의 기대가 높았다. 연령별로도 역시 30대, 40대, 20대 이하, 50대 이상의 순서로 이익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통일후 사회문제개선 기대수준

통일 후 한국의 사회상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기대를 살펴보고자, 현재 남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이 통일이 되면 얼마나 개선되거나 반대로 악화되리라고 예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질문에 포함한 사회문제는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의 6가지였다. 통일 이전의 사회문제란 일차적으로 남한사회에 한정된 것인 반면,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란 여전히 남한사회를 일차적 기준으로 하면서도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늠하는 것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그것대로 통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조사결과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대체로 전망이 부정적이다. 많게든 적게든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17.7%에 머물렀던 반면, 오히려 그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61.7%에 이르렀다. 부동산투기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19.4%인 데 반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59.2%였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실업문제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30.0%, 악화되리라는 전망은 55.1%였다. 반대로,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된 것은 범죄문제였는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9.2%에 불과했고,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무려 66.5%에 이르렀다. 지역갈등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14.4%,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8.7%였고, 이념갈등에 대해서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17.3%, 악화되리라는 예상은 63.3%였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망이 조금 나은 것은 실업문제, 부동산투기 정도이고,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된 것은 범죄문제였다.



[그림 1-I-5] 통일후 사회문제개선 기대수준

배경변수와 관련해서 보자면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관되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은 지역과 정치적 성향이였다. 지역별로는, 중부권의 응답자들이 실업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다른 지역의 응답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반면,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 높았다. 호남권의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높았는데, 특히 지역갈등이 통일 이후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한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보면,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그래도 전 부문에 걸쳐 개선을 기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반대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율이 크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5.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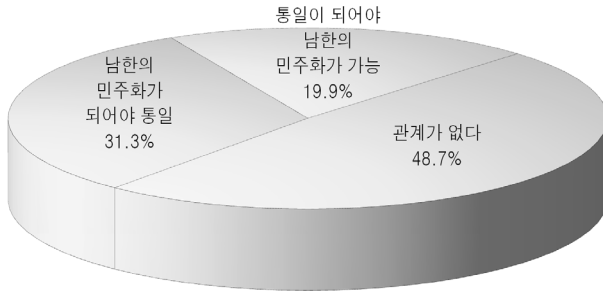
분단은 여러 가지로 남북한 모두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지만,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보자면 오랜 시간 남북한 양측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해왔다. 분단과 남북의 대치, 군사적 대립은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존재를 정당화해주는 유력한 핑계였고, 반대로 민주화를 열망하는 쪽에서는 통일이 단순히 분단된 민족의 통합을 뜻할 뿐 아니라, 참된 민주주의의 성취와도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분단상황과 무관하게 남한사회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는 평가가 일반화되면서,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도 크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남한과 북한이 어느 정도 민주화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를, 1(매우 비민주적)에서 10(매우 민주적)까지의 점수를 부여한 10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결과는 남한은 평균 6.91, 북한은 평균 2.40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남한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보, 중도, 보수로 나눈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별로도 결과는 거의 대등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과 남한의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고, 남한의 완전한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31.3%, 통일이 되어야 남한의 완전한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19.9% 등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집단이 남한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비교적 강했지만(진보 35.3%, 중도 30.5%, 보수 29.4%), 전체적으로 통일과 민주주의는 무관하다는 응답이 반에 육박하고 통일이 되어야 남한의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분단상황에서도 이미 남한의 민주화가 상당한 정도로



달성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I-6]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한편, 통일 한국은 어떤 이념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체제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72.3%).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이라는 응답이 22.6%,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는 응답이 3.3%였고, 사회주의라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규정한 집단의 경우에도 이런 응답 추세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선택지가 ‘민주주의’ 대신 ‘자본주의’로 되어 있기는 했지만 2003년 통일연구원 조사에서 자본주의 66.1%, 혼합체제 26.9%, 사회주의 7.0% 등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6. 소결

이번 조사의 결과를 두고 보면, 국민 대다수가 민족의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개 20년 이내에는 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가 지배적이었다. 배경변수와 관련해서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

보아도, 성별, 연령별이나 교육수준별 또 지역별로 다소간의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지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점은 진보, 중도, 보수의 정치적 성향별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20대 이하의 연령집단에서 분단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얽어져 있는 것은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통일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은 압도적으로 민족의 재통합이라는 당위성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산가족문제나 북한주민의 생활개선 같은 인도적 차원의 응답비율이 낮았을 뿐 아니라, 전쟁 억제나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등의 현실적 이익의 기대도 높지 않았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통일은 남한사회에나 특히 자기 자신에게 이익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고 의식되고 있었다. 또 통일 이후에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 주요한 사회문제들이 나아지는커녕 훨씬 악화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분단상황에서도 남한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가 이룩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특별히 민주주의와 통일이 관련을 갖는다고도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필요할뿐더러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Ⅱ. 북한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 안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즉 북한을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이나 통일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김정일 정권을 적대적이거나 위협적 존재로 인식한다면 그만큼 통일문제나 대북지원정책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북한과 김정일 정권을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한다면 통일을 위한 협상이나 대북지원정책에 적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인적, 물적 접촉과 교류가 급속도로 증대한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의식과 태도가 존재할 것이며, 어떤 측면의 의식은 비교적 빨리 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집단별 의식도 상당한 정도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1. 북한의 존재 인식

한국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6.6%로 가장 많았고, 지원대상 21.8%, 경계대상 11.8%, 적대대상 6.6%, 경쟁대상 3.3%로 각각 응답했다. 협력대상과 지원대상을 긍정적 인식으로 묶고,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을 부정적 인식으로 묶는다면 응답자의 78.4%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18.4%가 북한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경쟁대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은 3.3%에 불과하여 한국인은 더 이상 북한을 우리의 경쟁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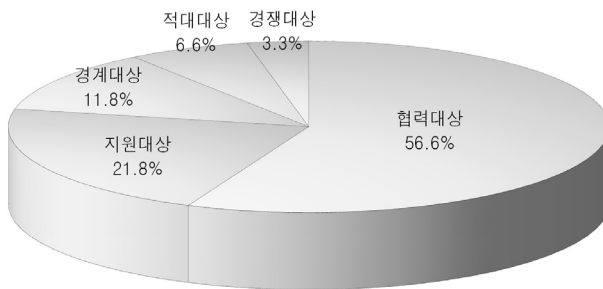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연령별로 보면 20대(61.6%)>30대(60.8%)>40대(57.7%)>50대이상(45.2%)의 순으로 세대가 젊을수록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북한을 ‘경계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13.4%, 15.1%로 높았고 20대와 30대는 각각 9.3%, 9.6%로 낮았다.

그런가 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을 단순한 ‘지원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북한을 ‘지원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대 이상에서는 28.3%로 높은 반면, 20대, 30대, 40대가 각각 16.9%, 22.0%, 20.7%로 낮게 나타났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단



순한 지원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대는 북한을 단순한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낮았는데, 이는 아마도 국내 경기침체나 청년실업 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젊은 세대의 이러한 경향은 북한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북한을 ‘경쟁대상’이라고 응답한 30대와 40대, 50대 이상은 각각 2.9%, 2.0%, 3.2%로 낮는데 비해 20대는 5.0%로 높았다. 즉 2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을 우리의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20대는 북한을 ‘적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30대와 40대의 4.8%, 6.2%에 비해 높았으며, 50대 이상(8.2%)의 연령층과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연령층에서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음과 동시에 경쟁대상,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이원적 인식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1-Ⅱ-1] 북한의 존재 인식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지원대상이나 경계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은 낮았다. 즉 중졸이하(42.8%)<고졸 (52.9%)<대졸이상(64.1%) 순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반면,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자는 중졸이하(27.6%)>고졸(24.4%)>대졸이상(17.7%)의 순이었고,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자도 중졸이하(19.7%)>고졸 (13.3%)>대졸이상(8.2%) 순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컸다.

지역별로는 중부권과 호남권이 각각 66.1%, 64.7%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50%대)에 비해 높았으며, 중부권은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14.4%로 수도권(23.2%)이나 호남권(25.2%), 영남권(21.7%)에 비해 매우 낮았다. 또한 호남권은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4.2%로 수도권(12.5%), 중부권(11.9%), 영남권(13.0%) 등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진보(64.7%)>중도(56.5%)>보수(48.9%)의 순으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자 중에는 진보(15.8%)<중도(20.6%)<보수(29.7%)로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거나 '경계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는 중도(7.4%, 12.9%)와 보수(7.3%, 11.6%)가 진보(4.3%, 9.9%)보다 높게 나타나 중도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보다 북한을 적대대상이나 경계대상으로 우려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

한편, 남북한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82.5%가 북한을 '비민주적', 16.7%는 '보통', 0.9%만이 '민주적'이라고



응답한데 비해, 남한에 대해서는 38.5%가 ‘민주적’, 59.2%가 ‘보통’, 2.4%는 ‘비민주적’ 사회라고 응답했다. 선택지의 스케일을 1(매우 비민주적)부터 10(매우 민주적)으로 제시했고, 응답의 1~3을 ‘비민주적’, 4~7을 ‘보통’, 8~10을 ‘민주적’으로 재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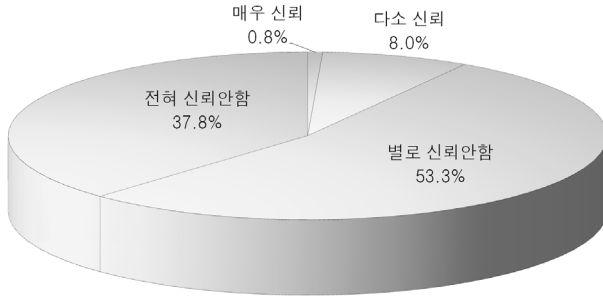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20대(76.6%)<30대(83.1%)<40대(84.6%)<50대이상(86.1%)의 순으로 북한을 ‘비민주적’으로 응답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을 비민주적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남한을 비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0대(4.1%)가 40대(2.4%)나 20대(2.0%), 50대이상(1.1%)보다 많았다.

2.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김정일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북인식에서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김정일 정권에 대해 응답자들은 8.8%만이 신뢰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91.1%로 압도적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정일 정권을 “매우 신뢰한다”가 0.8%, “다소 신뢰한다”는 8.0%였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53.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7.8%나 되었다. 이는 북한이라는 일반적 이미지와 정치적 실체로서의 김정일 정권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김정일 정권의 신뢰도 인식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신뢰한다는 응답비율이 21.0%로 수도권(7.6%), 중부권(8.5%), 영남권(7.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이념성향별로 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진보(16.2%)>중도(7.2%)>보수(4.6%) 순이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진보(83.8%)<중도(92.4%)<보수(95.4%)

순으로 정치적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통일논의 상대로서 김정일 정권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Ⅱ-2]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지 혹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매우 원한다” 1.4%, “다소 원한다” 11.6%, “별로 원하지 않는다” 54.8%, “전혀 원하지 않는다” 32.2% 등으로 “원한다”와 “원하지 않는다”가 13.0% 대 87.0%로 갈리었다. 즉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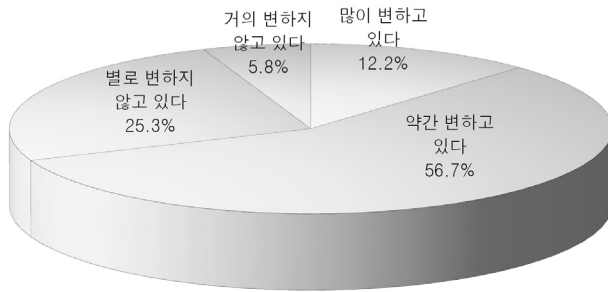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별로는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보았고, 보수적일수록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보는 ‘진보’는 ‘중도’(10.9%)나 ‘보수’(9.5%)에 비해 2배가량 많은 20.8%나 된다. 반면,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보수’는 90.5%인데 비해, ‘진보’는 79.2%에 불과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식이 정치성향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3. 북한의 변화와 대남 영향력

북한이 변하고 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인식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핵심변수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8.8%로,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31.2%에 비해 2배나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12.2%, “약간 변하고 있다”가 56.7%,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5.3%,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5.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는 북한의 변화 정도를 크게 느끼는 반면에, 20대와 50대 이상은 북한의 변화 정도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72.0%, 71.1%인데 비해 2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65.9%로 북한의 변화를 낮게 인식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81.5%)이 수도권(64.8%)이나 중부권(67.8%), 영남권(70.6%)에 비해 북한의 변화 정도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75.2%)가 중도(66.9%)나 보수(66.1%)보다 북한의 변화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였다.



[그림 1-Ⅱ-3] 북한의 변화 정도

한편, 북한의 대남 영향력 행사와 관련하여 금년 12월에 치러질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북한이 대남활동을 전개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이 10.4%, “약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42.6%,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는 40.2%,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는 응답은 6.7%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 남한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3.0%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46.8%에 비해 6.2% 정도 높게 나왔다. 북한의 남한 대선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소 많게 나왔지만 반대로 북한의 개입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한이 금년 12월의 남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여지는 적어 보인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남한의 대선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그 차이가 미미하긴 하지만, 중도적 성향(51.1%)의 사람들보다 진보(56.8%)나 보수(53.2%)적 성향의 사람들이 북한의 남한대선 개입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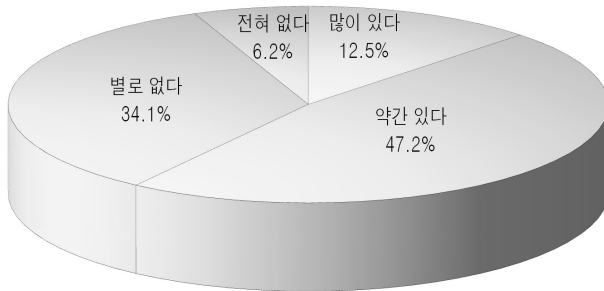
1)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과 불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59.7%)는 응답이 “없다”(40.3%)는 응답보다 2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응답은 12.5%, “약간 있다”가 47.2%, “별로 없다” 34.1%, “전혀 없다” 6.2% 등이다. 6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상당히 심각함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남자(55.4%)에 비해 여자(64.0%)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해 여자가 남자보다 군사적 긴장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40대와 50대 이상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즉 20대는 66.6%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30대는 59.9%, 40대는 54.4%, 50대 이상은 57.7%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2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쟁경험이 있는 60대 이상(61.2%)보다도 20대의 젊은 세대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그림 1-II-4]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이하 55.9%, 고졸 57.2%, 대졸이상 63.1%로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했다. 지역별로

는 북한과 근접해 있는 강원 지역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남쪽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낮게 인식했다. 강원과 제주 지역의 사례수가 작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강원 69.4%, 수도권 62.9%, 중부권 60.2%, 호남권 56.3%, 영남권 55.1%, 제주 23.1%로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반면, 휴전선과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2)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68.2%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31.8%) 보다 두 배나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위협을 느낀다” 22.3%, “다소 위협을 느낀다” 45.8%,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27.5%,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3% 등으로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자(73.4%)가 남자(63.0%)에 비해 북핵에 대한 위협의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최저점으로 U자 곡선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30대가 64.6%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을 가장 낮게 느끼며, 20대 69.9%, 40대 67.9%, 50대이상 70.6%로 30대를 최저점으로 하여 20대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40대로 올라갈수록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지역별 특성을 보면, 강원과 수도권, 영남권이 각각 77.8%, 68.9%, 68.7%로 높은 반면, 중부권과 호남권은 각각 65.3%, 63.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63.0%)<중도(69.9%)<보수(70.3%) 순으로 보수적일수록 북핵위협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반도 전쟁 가능성

조사대상자의 53.4%가 한반도에서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6.6%는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쟁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응답이 7.5%, “약간 있다” 45.9%, “별로 없다” 39.7%, “전혀 없다” 6.9%로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자(57.0%)가 남자(49.9%)보다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61.1%)>30대(53.8%)>40대(49.2%)>50대이상(48.7%) 순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보면,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과 근접해 있는 휴전선 지역에 가까울수록 전쟁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남쪽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낮게 인식했다. 강원 지역 경우 63.9%로 전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으며, 수도권 57.7%, 중부권 57.6%, 호남권 48.7%, 영남권 45.5%, 제주 30.8% 등 휴전선에서 멀어질수록 전쟁가능성을 낮게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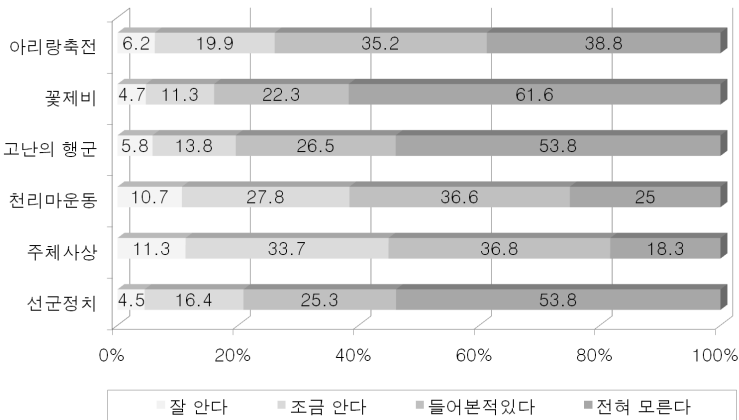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1) 북한 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대체로 선군정치,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리랑축전은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주체사상과 천리마운동은 들어본 적이 있거나 조금 알고 있는 정도였다.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건·개념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주체사상(81.7%)>천리마운동(75.0%)>아리랑축전(61.2%)>선군정치(46.2%)는

고난의 행군(46.2%)>꽃제비(38.4%) 등으로 열거된다.

제시된 북한의 용어들 가운데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전체응답자의 45.0%가 주체사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36.8%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하여 81.8%가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꽃제비’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61.6%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고 “잘 안다”(4.7%)거나 “조금 안다”(11.3)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꽃제비’라는 용어가 방송을 통해 상당히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다른 용어보다도 오히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선군정치나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도 53.8%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안다”는 응답은 각각 20.9%, 19.6%에 지나지 않았다.



[그림 1-II-5] 북한사회 인지도

북한관련 지식에 있어서 성별간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위에 제시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2배



가량 높았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남자는 31.8%인데 비해 여자는 9.8%에 불과했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자가 58.4%인데 비해 여자는 31.5%에 불과했다. 천리마 운동과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리랑축전에 대해서도 여자는 각각 33.0%, 65.2%, 70.0%, 45.9%가 “전혀 모른다”고 답한데 비해 남자는 각각 17.1%, 42.6%, 53.2%, 31.7% 정도만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40대를 정점으로 30대, 20대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50대, 60대로 올라갈수록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연령층은 북한에 대한 지식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군정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0대이상(60.6%)>30대(53.8%)≒20대(53.6%)>40대(47.9%) 순이었고, 주체사상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20대(24.8%)>50대이상(23.7%)>40대(12.8%)≒30대(12.4%) 순이었으며, 천리마운동에 대해서는 20대(37.7%)>50대이상(28.0%)>30대(19.1%)>40대(15.7%)의 순이었다.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는 20대(65.6%)>50대이상(53.8%)>30대(52.9%)>40대(43.3%)였고, 꽃제비에 대해서도 20대(67.2%)>30대(63.4%)>50대이상(62.4%)>40대(53.4%)로 나타났으며, 아리랑축전에 대해서도 20대(51.3%)>50대이상(40.5%)>30대(33.1%)>40대(30.5%)가 각각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대가 북한을 가장 모르고 40대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이른바 386세대로 불리는 연령층으로 북한과 관련한 이념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40대가 북한관련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관련 지식도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선군정치를 “전혀 모른다”는 사람들은 중졸이하(73.7%)>고졸(58.8%)>대졸이상(43.2%)이었고, 주체사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중졸이하(32.2%)>고졸(20.6%)>대졸이상(12.1%)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천리마운동과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리랑축전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북한관련 지식수준도 높았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적 정치성향의 응답자들이 중도나 보수성향의 응답자보다 북한관련 개념과 용어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선군정치에 대해서 ‘진보’는 41.6%만 “전혀 모른다”고 답한데 비해 ‘중도’는 57.7%, ‘보수’는 58.4%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보수’(21.4%)>‘중도’(19.2%)>‘진보’(13.2%)였고, 천리마운동에 대해서는 ‘보수’(26.6%)≒‘중도’(26.2%)>‘진보’(20.8%) 순이었다. 고난의 행군과 꽃제비, 아리랑축전에 대해서도 ‘보수’와 ‘중도’가 비슷한 비율로 모른다고 답했고 ‘진보’는 이 두 그룹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보수적 성향이나 중도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북한관련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간 차이

한편, 남북교류와 인적 왕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방북경험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관련 경험이 공중파를 통해 전달되는 북한방송을 듣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최근 10년 동안 금강산관광을 다녀오거나 평양, 개성을 방문하고, 탈북자(새터민) 정착을 돕는 등 북한관련 경험이 늘어났고 방법도 다양화되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사람들은 40.8%로 많았지만, 북한지역을 방문했거나 탈북



자(새터민)를 만나본 경험, 혹은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5~8% 정도에 불과했다. TV의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방송이 소개되고 인터넷을 통해 영화, 예술 등 북한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실제로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탈북자를 접해본 경험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8%로 가장 적었고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5%, 탈북자(새터민)를 만나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9%였다. 평양, 금강산, 개성 등 북한지역 방문과 관련하여서는 가구소득 400만원이상(7.3%)에서 가장 많고 300만원대(6.4%)>200만원미만(3.6%)>200만원대(1.9%) 순으로 중산층 이상에서 방북 유경험자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50대이상(7.5%)이, 정치적 성향으로는 진보(5.0%)와 중도(4.9%)가 보수(3.4%)보다 북한지역 방문경험이 많았다.

탈북자(새터민)를 만나본 사람들은 남자(11.4%)가 여자(6.4%)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10.2%)와 50대이상(10.4%)이 20대(8.3%)와 30대(7.0%)보다 많았다. 또한 중산층보다는 하층민과 상류층에서 새터민을 접촉한 경험이 많았다. 가구소득 200만원미만(10.0%)과 400만원이상(10.2%)이 200만원대(7.3%)와 300만원대(8.4%)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계층에서 새터민접촉 경험이 14.7%로 가장 높았으며, 500~699만원 소득계층에서도 12.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탈북자 접촉 경험이 많은 이유는 탈북자들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탈북자 지원과 관련하여 접촉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권(13.4%)과 수도권(10.3%)이 중부권(5.1%)이나 영남권(6.8%)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진보적 성향의 응답

자(11.2%)가 중도(7.4%)나 보수(9.5%)보다 새터민을 접촉한 경험이 많았다.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한 경험은 20대(48.3%)와 30대(43.3%) 연령층이 40대(35.7%)나 50대이상(35.5%)보다 많았고, 중산층(38.4%와 39.1%)보다는 하류층(44.8%)과 상류층(42.7%)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강원(55.6%)과 호남권(48.7%)이 영남권(41.8%)과 수도권(37.9%), 중부권(37.3%)보다 많았고, 정치적 성향으로는 진보(46.9%)>중도(41.4%)>보수(34.3%)의 순으로 많았다.

응답자들은 생활수준, 선거방식, 법률제도에서 남북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언어사용과 생활풍습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97.2%가 남북간에 선거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생활수준과 법률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98.3%, 96.7%가 다르다고 대답했다. 남북간에 언어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92.6%였으며, 관혼상제 등 생활풍습이 다르다는 응답은 88.8%였다. 남북한간의 격차를 인식하는 데서는 연령, 계층, 정치성향 등의 변수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6. 소결

지금까지 서술한 응답자들의 대북인식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응답자들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사회 영역과 정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78.4%가 북한을 협력대상이나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고, 68.8%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82.5%가 북한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한다든가, 87%는 “김정일정권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91.1%는 “김정일 정권을 신뢰하지 않다”는 등의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북한’



은 변하고 있지만 ‘정치’ 영역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보거나 ‘북한정치’를 불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정치’ 영역의 불신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이질성과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97~98%라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남북간에 정치적 측면(법률과 선거)과 경제(생활수준) 면에서의 차이를 우려하고 있고, 언어와 풍습 면에서는 남북간에 상당한 동질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2.6%, 88.8%라는 많은 사람들이 남북간의 이질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남한 국민들이 ‘정치’와 ‘체제’에 의한 남북 이질화를 실제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이 양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없다”는 입장이 60:40으로 맞서 있고,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에 대해서도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53:47로 양분되어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위협의식도 “느낀다”는 사람과 “느끼지 않는다”는 사람이 68:32로 나뉘어 있다. 북한이 남한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53.0%)이라는 입장과 “미치지 못할 것”(46.8%)이라는 입장도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과 전쟁, 북핵, 대남영향력과 같은 이슈들에서 한국사회 내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남갈등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20대의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과 부정적 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 20대는 북한을 ‘비민주적’ 사회로 평가하는 비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았지만, 북한을 적대대상이나 경쟁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가장 강했고,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거나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으며, 북핵보유의 위

협에 대해서도 50대이상과 비슷한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그런가 하면 20대는 북한관련 지식이 가장 약했다. 386세대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이른바 ‘20대의 보수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전쟁이나 북한의 도발, 북핵에 대한 위기의식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반면, 북한관련 지식과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지역적으로는 휴전선에서 멀어질수록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을 덜 느끼고 있고, 호남권에서 김정일 정권을 신뢰한다는 응답(21.0%)이 다른 지역(약 7~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도 특징적이다.

여섯째,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성향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었다. 즉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김정일 정권을 더 신뢰하며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진보적일수록 북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북지원활동 참여나 새터민 접촉, 북한방송접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1부 V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북인식은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친미-반북, 친북-반미 등 특히 미국과의 대쌍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식은 반미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중시해야 하느냐, 민족공조를 중시해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일고 있음을 보더라도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대북인식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추이를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이 장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한다. 구체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일반국민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대북정책이 통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통일과정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대북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북정책, 특히 대북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대북지원규모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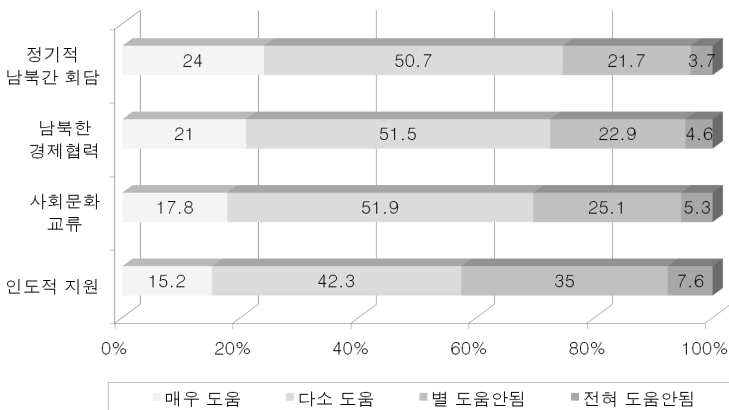
그리고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남북교류의 통일기여도

1) 남북교류 각 측면별 비교

현재 남북 간에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남북교류를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 등 4개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들 남북교류 각각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그림 1-Ⅲ-1]은 4개 측면에 대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통일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다소 도움)’는 의견이 많은 순서로 재배열 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4개 측면에 대해 국민들은 최소 57.5%에서 최대 74.7%까지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모든 측면에서 과반수 국민들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그것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1-Ⅲ-1] 대북정책이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



하지만 각 측면별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 비율에 차이가 존재한다. 모든 부분의 남북교류 활성화가 통일에 기여하지만, 통일에 기여하는 상대적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다고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들은 여러 대북정책 중에서도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이 통일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어서 남북한 경제교류, 사회문화 교류 순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반면에 인도적 대북 지원은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적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반국민들이 ‘정치교류 > 경제교류 > 사회·문화교류 > 인도적 지원’순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각 분야 별로 해당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다소 도움)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전혀)’로 구분해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인도적 지원

북한에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을 지원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통일에 도움이 된다’ 57.4%,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42.6%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소 많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40%가 넘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통일과의 관계에 대해 일반 국민 중 상당수는 직접적인 연계가 적거나 통일과는 무관한 순수한 ‘인도적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성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정치성향별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지

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73.0%)들 중에서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여자(50.9%)보다 많았다. 교육수준 별로는 중학이하(49.3%), 고등학교(55.2%), 대학이상(61.3%)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지역별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권(71.4%)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¹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진보(68.6%)가 중도(54.9%)나 보수(51.1%)보다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3) 사회문화 교류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통일에 도움이 된다’ 69.7%,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0.3%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간에 인적 교류가 남북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줄이고, 이 점이 장차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30%정도의 국민이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잘 모르거나 또는 실질적인 교류를 하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교류를 하다 보니 효과가 적다는 비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성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정치성향별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통계적 유의미한 의견 차이는 없지만 20대와 50대 이상보다 30대와 40대 중에서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회문화 교류가 30대와

¹ 표본 수가 작은 강원 및 제주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4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연령층에서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남자(73.0%)가 여자(66.3%)보다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수준 별로는 중학이하(63.7%), 고등학교(67.9%), 대학이상(73.0)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지역별로는 호남권(81.5%)에서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이어서 충청권(73.7%)에서 수도권(67.0%)이나 영남권(68.4%)보다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진보(77.2%)가 중도(66.9%)나 보수(67.9%)보다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4) 남북한 경제협력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통일에 도움이 된다’ 72.5%,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7.5%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3배 정도 되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 되면 남북한에 경제적 의존성이 생기고 이 점이 통일을 촉진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체제가 처하고 있는 경제난이 완화되어 남북한 경제격차가 줄어들면 그 자체가 남북통일 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 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성별, 교육수준 별, 지역별, 정치성향별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75.3%)가 여자(69.7%)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

았다. 교육수준 별로는 중학이하(61.3%), 고등학교(71.1%), 대학이상(76.7%)이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보다 많이 지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호남권(81.5%)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충청권(67.8%)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조금 적었다. 정치성향 별로는 진보(79.9%)가 중도(69.0%)나 보수(71.6%)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5) 남북한 정기 회담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에 대해서는 ‘통일에 도움이 된다’ 74.7%,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5.3%로 경제협력과 마찬가지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3배 정도 되었다.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이 이루어져야 남북한 간에 법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비로소 남북한 간에 통일이 가능하리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남북한 정기 회담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남북통일은 소위 점진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지거나 무력충돌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정치성향별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79.1%)가 여자(70.2%)보다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68.9%)에서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교육수준 별로는 중학이하(67.8%), 고등학교(73.7%), 대학이상(77.5%)



이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남북한 정기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소 많다. 한편 지역별로는 호남권(84.9%)에서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83.8%)가 중도(69.9%)나 보수(74.3%)보다 남북한 정기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2. 통일달성에 시급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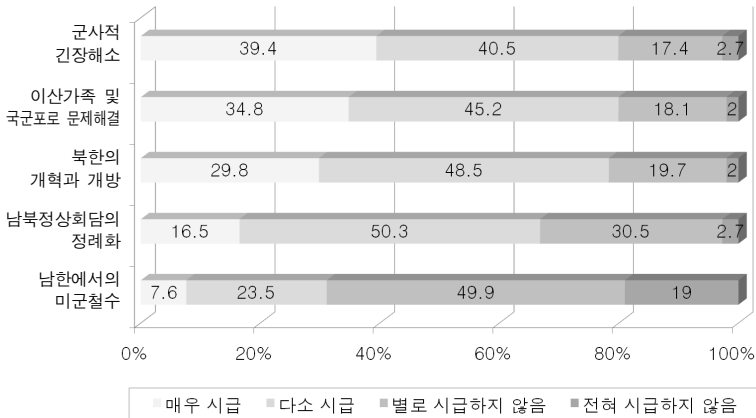
1) 사안별 비교

통상적인 남북 교류와는 별개로 남북한 간에는 통일이 되려면 통일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존재한다. 무엇이 통일이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사안인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번 조사에서는 언론에서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북한의 개혁과 개방’, ‘군사적 긴장 해소’, ‘남한에서의 미군철수’, ‘이산가족 및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되어야할 사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조사하였다.

[그림 1-Ⅲ-2]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통일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은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대체로 국민들의 4/5정도가 ‘군사적 긴장 해소(79.9%)’, ‘이산가족 및 국군 포로 문제 해결(79.9%)’, ‘북한의 개혁과 개방(78.3%)’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² 군사적 긴장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통일이 되려면

²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는 ‘매우 시급(38.8%)’, ‘다소 시급(45.2%)’으로 분리한 후 합치면 80.0%가 되지만 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난 현상이며, 실제로 합쳐 계산하면 79.9%이다.

반드시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에 대한 앞의 조사결과와 관련시키면, 일반국민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교류보다 당국 간 교류가 중요하며, 이때 주요 의제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게 본 것은, 다른 차원인데 이는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는 해당 당사자들이 '고령화'되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한편,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III-2] 통일이 되려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사항

한편,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66.8%)는 국민의 2/3정도가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2/3정도의 국민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남북정례회담의 정례화 역시 통일되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사



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해소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북한의 개혁과 개방 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변화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정상회담 자체보다는 통일과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이 강하게 통일 선결과제로 주장해 왔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31.1%인 반면에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69.1%여서 일반국민들은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통일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이어서 각 사안별로 통일에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시급하다(매우 시급+다소 시급)’와 ‘시급하지 않다(별로+전혀)’로 구분해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 ‘시급하다’는 의견이 66.8%,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33.2%이다. ‘시급하다’는 의견이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의 2배 정도이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대해서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정치성향별로 그 시급성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성별로 남자(70.8%)가 여자(62.8%)보다 남북정상회담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69.1%)와 40대(70.2%)에서 20대(61.3%)나 50대 이상(66.7%) 보다 정상회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교육수준은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이상(70.9%)에서 정상회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별로 호남권(83.2%)에서 다른 주요 지역(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서보다 정상회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정치성향 면에서는 진보(73.4%)가 중도(63.4%)나 보수(66.1%) 보다 정

상회담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3) 북한의 개방과 개혁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가 78.3%, ‘시급하지 않다’가 21.7%이다. 통일과 관련해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은 북한이 폐쇄나 고립정책을 고수하는 한 남북한이 통일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개혁 개방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은 성별, 교육수준, 지역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정치성향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정치성향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인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간에 차이 없이 시급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조사결과이다.

성별로는 남자(82.3%)가 여자(74.2%)보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74.8%)가 상대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적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30대(79.6%)와 40대(81.3%)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소 많다. 교육수준별 조사결과도 특이한 데, 대학이상(83.6%) 중에서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72.9%) 보다 중학이하(77.0%)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의외이다.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는 호남권(90.3%)에서 북한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영남권(72.4%)에서는 상대적으로 북한 개혁, 개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적었다.



4) 군사적 긴장 해소

군사적 긴장 해소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가 79.9%, ‘시급하지 않다’가 20.1%이다. 남북통일이 되기 위해서 군사적 긴장완화가 시급하며, 또한 군사적 긴장 완화가 전제되어야 여타 분야의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 해소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배경 변수 중에서 교육수준과 성별 차이만 존재하였다. 연령이나 지역별, 정치성향별로도 약간의 편차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83.4%)가 여자(76.4%)보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이상(85.8%)에서 중학이하(76.3%)나 고등학교(74.7%)보다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81.4%)에서 다른 지역보다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약간 많은데, 이는 수도권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가장 근접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지역별 차이가 적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84.8%)가 중도(78.2%)나 보수(78.3%) 보다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약간 많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해서는 지역별이나 정치성향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지역이나 이념 간 편차에 의한 남남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예상케 하기 때문이다.

5)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남한에서 미군철수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가 31.1%, ‘시급하지 않다’가

69.8%이다.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시급하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다. 북한이나 또는 국내 일각에서 주한미군이 통일 저해요인이라고 간주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만, 일반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배경변수별로 의견이 달랐다. 성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자(32.2%)가 남자(30.0%)보다 주한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약간 많이 제시하였다. 여타 분야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인데,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화주의’적 성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18.6%)과 40대 이하 간에 주한미군 철수의시급성에 대해 의견차이가 두드러진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중학이하(19.7%)와 고교 이상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는 주한 미군 철수가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호남권(43.7%)에서 타 지역에서 보다 주한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반대로 충청권(25.4%)과 영남권(25.7%)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적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46.2%)가 중도(26.8%)나 보수(24.5%) 보다 남한에서의 미군철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보조차도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해 절반이상(53.8%)이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6)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79.9%,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20.1%이다. 이러한 비율은 군사적 긴장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같은 비율이다. 군사적 긴장완화가 전체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통일에 대한 제도적 진전에 앞서 개인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지역별, 정치성향별, 성별 의견차이가 있으나 연령별, 교육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81.9%)가 여자(79.9%)보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86.8%)가 중도(78.7%)나 보수(75.5%)보다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통일을 이루는데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별로는 호남권(93.3%)에서 타 지역에서 보다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다.

3. 대북지원의 효과성과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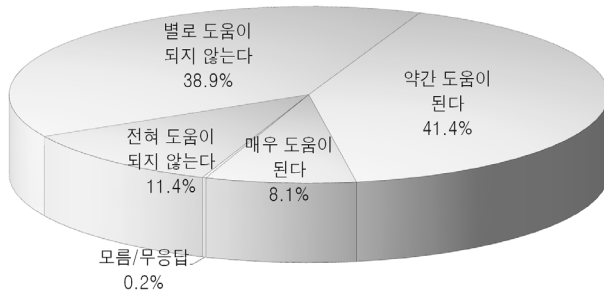
1) 대북지원의 효과성

통일연구원의 2005년 조사에 의하면 대북 지원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70%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찬성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어떤 집단의 경우에도 대북지원을 찬성하는 비율이 60%를 상회한다(통일연구원, 2005: 81).

하지만,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현재의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림 1-Ⅲ-3]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도움이 된다’ 8.1%, ‘약간 도움이 된다’ 41.4%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9.5%이다. 반면에 ‘별도 도움

이 되지 않는다' 38.9%,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4%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0.3%이다.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도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의견이 매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림 1-Ⅲ-3] 대북 지원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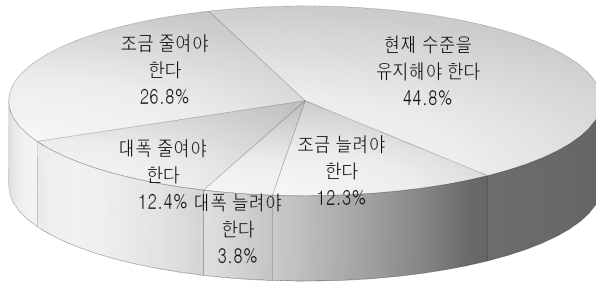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 성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정치성향별로 의견차이가 존재하였다. 반면에 연령별로는 의견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별로는 남자(52.9%)가 여자(46.1%) 보다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다소 많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이상(52.1%)이 중학이하(46.7%)나 고등학교(47.5%) 보다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별로는 호남권(56.3%)에서 다른 지역보다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진보(56.4%)가 중도(47.9%)나 보수(45.6%)보다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변수별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대북지원 규모의 적절성

그렇다면 향후 대북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현재의 대북지원을 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줄여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그림 1-Ⅲ-4).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대폭 늘여야 한다’ 3.8%, ‘조금 늘여야 한다’ 12.3%로 늘여야 한다는 의견은 16.1%였다. 반면에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로 다수를 차지한다. 반대로 대북 지원규모를 ‘조금 줄여야 한다’ 26.8%, ‘대폭 줄여야 한다’ 12.4%로 대북 지원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39.2%이다.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현재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늘여야 한다는 의견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비교하면 늘여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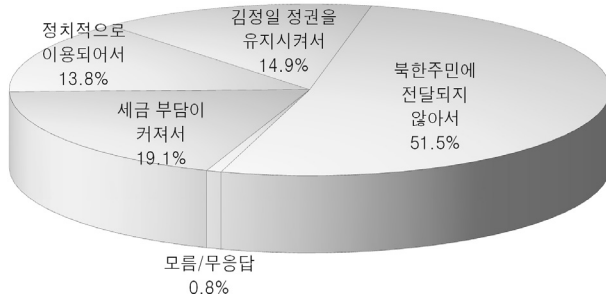
[그림 1-Ⅲ-4] 대북 지원규모의 적절성

배경변수별로는 전체적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대북지원을 늘여야 한다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비교하면 여자(42.7%)가 남자(35.7%)보다 향후 대북 지원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

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45.2%)과 40대(44.3%)가 20대(33.8%)와 30대(34.1%)보다 대북 지원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수준은 중학이하(49.3%), 고등학교(41.8%), 대학이상(34.1%)의 순으로 대북 지원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별로는 충청권(45.8%)에서 대북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호남권(24.4%)에서 대북 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다.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보수(49.5%), 중도(38.0%), 진보(30.4%) 순으로 대북 지원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반적으로는 대북 지원규모를 늘여야한다는 의견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호남권(26.1% : 24.4%)과 진보(28.4% : 30.4%)의 경우 대북지원규모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대등하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3) 대북지원 축소를 주장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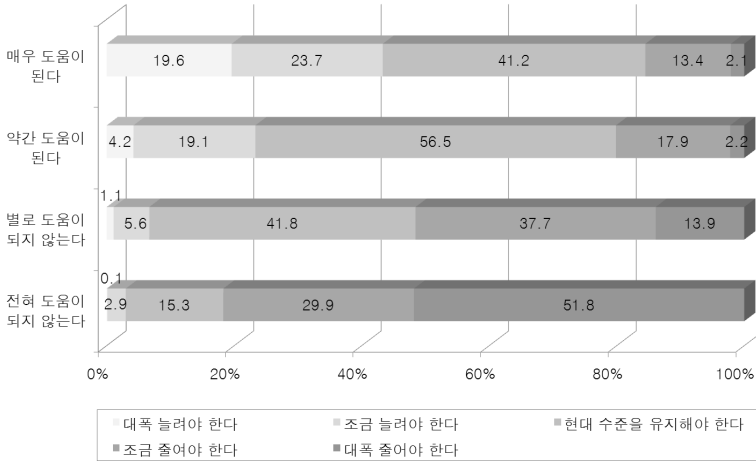
대북지원을 줄여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그렇다면 왜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북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를 알아보면([그림 1-III-5]),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51.5%로 절반정도가 된다. 그리고 그밖에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대북지원이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19.1%)',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14.9%)', '대북지원이 군내 정치에 이용 된다(13.6%)'는 세 가지 이유를 비교적 고르게 지적하고 있다.



[그림 1-Ⅲ-5] 대북 지원 축소 이유

대북지원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 중 절반 정도가 자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의견과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의견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Ⅲ-6]은 대북지원의 효과성과 대북 지원규모의 적절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표이다.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국민 중에서는 대북지원을 증가해야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이다. 대북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대북 지원규모를 증가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반대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에서 대북 지원규모를 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특히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대북지원 규모를 대폭 줄여야한다는 의견을 절반정도가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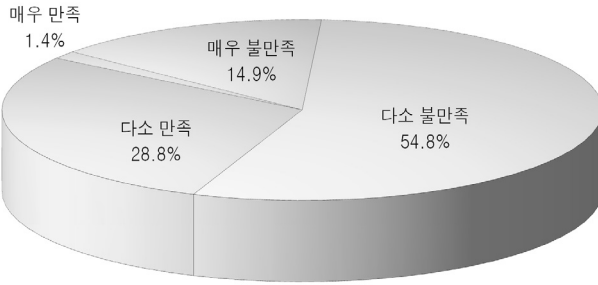


[그림 1-III-6] 대북지원의 효과성과 대북 지원규모의 적절성 간의 관계

4.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1)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일반 국민들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이 1.4%, ‘다소 만족’이 28.8%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30.2%이다. 반면에 ‘다소 불만족’이 54.8%로 과반수이고, ‘매우 불만족’이 14.9%로 합치면 ‘불만족 한다’는 의견이 69.7%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2배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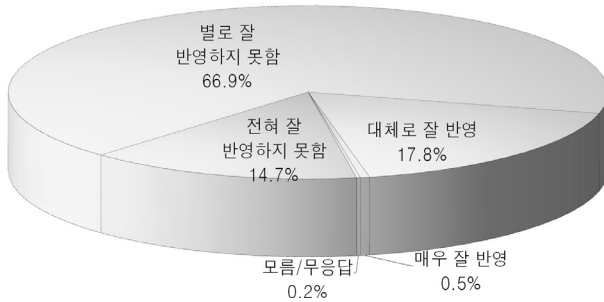
[그림 1-Ⅲ-7]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전체적으로 불만족이 많음이 명확하다. 하지만 배경변수별로 차이가 있다. 성별로는 여자(71.9%)가 남자(67.5%)보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40대(75.1%)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다. 교육수준은 중학이하(71.1%), 고등학교(71.7%)에서 대학이상(67.4%) 보다 대북정책에 불만이 많다. 지역별로는 수도권(72.9%)과 충청권(71.2%)에서 대북정책에 불만이 많은 가운데 호남권(56.3%)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장 적다.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보수(78.0%), 중도(70.8%), 진보(58.74%) 순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이 많았다.

2) 대북정책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북정책 결정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Ⅲ-8]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잘 반영’ 0.5%, ‘대체로 잘

반영' 17.8%로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는 의견이 18.3%에 불과하다. 반대로 국민의 의견을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66.9%로 매우 많으며,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14.7%를 합하면 81.6%나 된다. 대북 정책 결정에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은 국민들 내부에 매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III-8] 대북정책에 국민의견이 반영되는 정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대북정책에 국민의견이 반영되는 정도에 있어 다소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성별로는 여자(83.9%)가 남자(79.3%)보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령별 차이는 없는 듯하다. 교육수준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85.4%)과 충청권(83.1%)에서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호남권(73.1%)이나 영남권(76.8%)보다 다소 많다. 그리고 정치성향별로는 중도(84.2%)와 보수(82.6%)가 진보(75.9%) 보다 정부가 대북정책



을 결정하는 데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 집단별 차이보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보다 핵심적인 조사결과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5. 소결

전체적으로 일반국민들은 다양한 남북교류의 모든 측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순서를 매긴다면 일반국민들은 ‘정치교류 > 경제교류 > 사회·문화교류 > 인도적 지원’ 순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통일을 이루는 데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이산가족 및 국군문제 해결’, ‘북한의 개혁 개방’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시급하기는 하지만 앞에 제시된 측면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사회일각에서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는 통일과 관련해서 그다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들이 현재이상의 남북관계 개선이나 궁극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 교류가 정치·군사교류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확대되고 있으나, 이산가족상봉이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경제협력 강화나 사회문화교류 확대에 이르기까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국 간 회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가 필수적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보다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분야보다 낮게 나온 것도 인도적 지원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연계된다, 그리고 대북 지원이 주민생활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람은 대북지원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배경변수별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차이가 존재했는데, 성별을 제외하면 연령이나 교육수준 같은 개인 배경변수보다는 거주지역과 정치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크게 달랐다. 여러 조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세대 갈등'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세대 간 의식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 20대가 비교적 독특한 의식성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된다. 전체적으로 50대 이상과 30대 및 40대간에는 약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20대는 경우에 따라 50대 이상과 유사한 의견을 보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30대나 40대와 유사한 의견을 보인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세대간에 명확한 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가 보수나 중도보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남북교류의 필요성과 시급성, 대북지원의 효과, 대북지원규모에 이르기까지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국민들은 대북정책이 전반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고, 또한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다. 이는 대북지원정책이 북한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은 것과 함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하위집단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대북정책에 상대



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집단에서도 과반수가 정부대북정책이 불만스럽다는 평가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대북정책이 국민을 통합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보다 국민 내부의 분열상을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정치성향에 따른 의견 차이가 특정한 분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고자한다. 북한 개혁개방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유사한 의견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북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간에 의견대립이 첨예화되어 남남갈등으로 나타났던 경우가 여러 있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한목소리이다. 결국 향후 대북정책이 남북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는데 작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면 남남갈등을 극복한 진정한 통일지향 대북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IV. 새터민에 대한 인식

우리는 어느덧 새터민 1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2007년 7월 현재 통일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은 총 10,705명(남자 4,155명, 여자 6,550명)에 이르며, 2006년 부터 한해 2천명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 2007년 5월 현재 천여명이 이미 입국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새터민의 급격한 증가는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격변과 남한사회의 경제적 우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안팎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터민의 남한사회로의 이동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터민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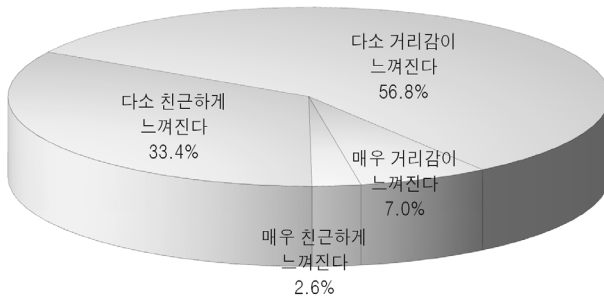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우리사회가 미래에 통일과 함께 남북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였을 때 북한 주민과의 ‘더불어 살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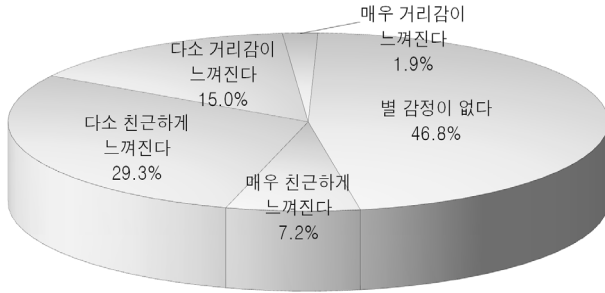
가 먼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예비적 지표의 하나로서 새터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측정해보고, 새터민 정책에 국민의 견해 등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 조사결과는 새터민 정책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정책 개선에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1.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새터민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이 어떻게 느껴지느냐는 질문에 대해 ‘친근하게 느껴진다’ 36.0%,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63.8%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연구원이 2005년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결과이다. 2005년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서는 새터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 36.3%, ‘거리감을 느낀다’ 16.9%, ‘별감정 없다’ 46.8%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1만여 명이 넘는 새터민들이 살고 있고 새터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새터민에게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그림 1-IV-1]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I) (2007 서울대 통일연구소 조사)



[그림 1-IV-2]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II) (2005 통일연구원 조사)

새터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새터민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41.0%가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반면에 여자는 31.0%가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에 무려 10%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비교했을 때 성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9.0%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각각 34.4%, 34.1%만이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나이든 세대보다 새터민을 더 낯선 존재로 느끼고 있다.

반면, 교육 수준에 따른 새터민에 대한 감정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보였다. 호남권은 48.7%가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낀다고 응답하여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에 중부권은 29.7%만이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낀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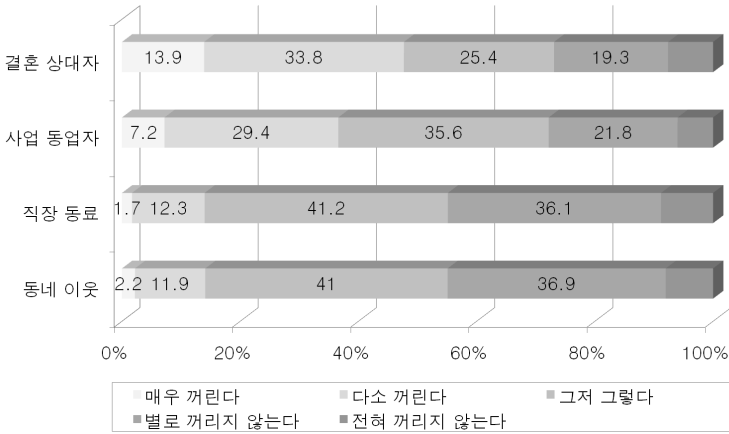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비교적 차이가 나타났는데, 진보 성향의 응답자의 경우는 40.6%가 새터민에 대해 친근감을 보인, 반면 중도와 보수 성향의 응답자의 경우는 모두 34%만이 새터민에 대해 친근감을 보였다.

2. 새터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새터민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은 새터민과의 관계 맺기에서도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졌다. 새터민과의 유형별 관계에서 우리 국민들은 새터민이 결혼 상대자이거나 사업동업자인 경우처럼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새터민이 동네 이웃이거나 직장동료와 같이 공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새터민이 결혼 상대자인 경우 전체 응답자의 태도는 ‘꺼린다’ 47.7% vs. ‘꺼리지 않는다’ 26.8%로 나타났고, 사업동업자인 경우에는 ‘꺼린다’ 36.6% vs. ‘꺼리지 않는다’ 27.8%로 나타났다. 반면에, 새터민이 동네 이웃인 경우 ‘꺼린다’ 14.1% vs. ‘꺼리지 않는다’ 44.9%로 나타났으며, 직장동료인 경우에는 ‘꺼린다’ 14% vs. ‘꺼리지 않는다’ 44.8%로 나타나 대조적인 분포를 보였다.



[그림 1-IV-3] 새터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전체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새터민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이 동네이웃인 경우 ‘꺼린다’고 응답한 남자는 11.4%인 반면에, 여자는 16.9%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새터민이 직장 동료인 경우 역시 ‘꺼린다’고 응답한 남자는 ‘꺼린다’ 11.3%인 반면에, 여자는 16.8%가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 새터민이 사업동업자이거나 결혼 상대자인 경우에는 앞의 두 관계보다 더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훨씬 더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먼저 새터민이 사업동업자인 경우 ‘꺼린다’고 응답한 남자는 32.0%, 여자는 41.2%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9% 더 비중이 많았다. 또한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경우 ‘꺼린다’고 응답한 남자는 36.8%, 여자는 58.6%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18% 가까이 더 비중이 많았다. 따라서 여자 응답자는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경우에 가장 거부감을 보였다. 이러한 성별간의 태도 격차는 남자 새터민이 한국에서



살면서 결혼에 있어서 여자 새터민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유형별 관계에서 연령대 간에는 큰 태도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새터민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모든 유형에서 동일한 분포를 보였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 수준 변수의 경우에는 전체 관계 유형에서 일관되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새터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지역적으로는 전체 관계 유형에서 호남 지역이 공통적으로 새터민에 대해 가장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반면에 중부지역이 가장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호남지역은 새터민이 동네이웃인 경우와 직장동료인 경우에 각각 6.7%, 3.4%만이 ‘꺼린다’고 응답하여 같은 관계유형에서 ‘꺼린다’ 응답률이 가장 높은 중부지역의 22.9%, 16.9%와 비교했을 때 각각 16%, 13%씩 격차가 나타났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새터민이 사업동업자나 결혼상대자와 같이 1대1의 관계유형에서는 전자 그룹의 유형보다 호남지역과 중부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새터민이 사업동업자인 경우와 결혼상대자인 경우 호남 지역에서는 ‘꺼린다’는 응답이 각각 38.7%, 41.2%로 나타났고 중부 지역에서는 ‘꺼린다’는 응답이 각각 44.1%, 50.0%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지역간의 격차는 각각 6%, 9%로 앞의 두 관계유형에서의 지역간 격차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교적 새터민과의 관계 맺기에서 가장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던 호남지역에서도 관계 유형이 공적인 관계인가 사적인 관계인가에 따라 포용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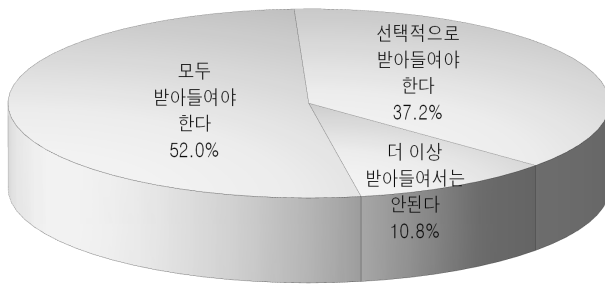
마지막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전체 관계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가 다른 정치적 성향의 응답자에 비해 새터민에 대해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3. 새터민 수용에 대한 견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터민의 입국 소식은 더 이상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한해 1천명이 넘는 새터민이 한국에 들어왔으며, 2006년부터는 한해 2천명이 넘는 새터민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새터민의 입국 행렬은 당분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새터민들의 입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새터민의 수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2.0%가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해 비교적 새터민 수용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37.2%,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10.8%로 나타났다.



[그림 1-IV-4] 새터민 수용에 대한 견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새터민 수용에 대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새터민에 대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한 남자는 57.7%인 반면에 여자는 46.2%로 나타났다. 반대로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여자 13.9%, 남자 7.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앞에서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와 마찬가지로 40대가 새터민 수용에 대해 가장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40대의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4%인 반면에,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각각 47.4%, 50.6%로 나타나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새터민 수용에 대해 덜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40대를 정점으로 50대 이상의 응답자에서는 새터민 수용에 대해 관대한 태도가 51.6%로 다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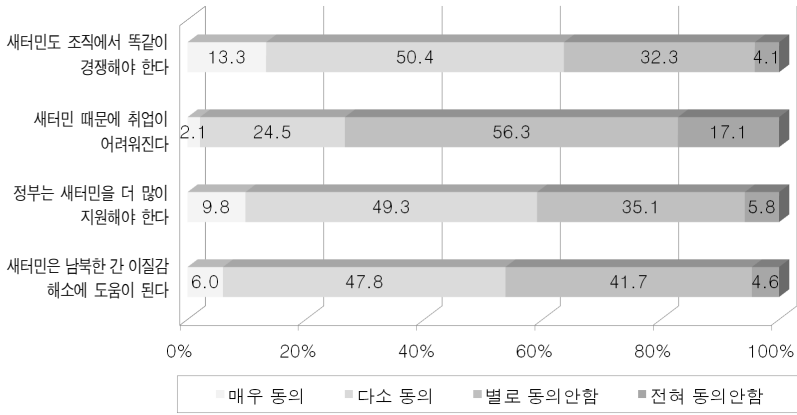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새터민 수용에 대해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새터민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경우는 중졸 이하가 19.1%, 고졸 10.5%, 대졸 이상 8.9% 순서로 나타났다.

역별로는 호남권이 새터민 수용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영남권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새터민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경우에 전자와 후자가 각각 6.7%, 12.4%로 두 지역간에 거의 두 배 가량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인 진보적 성향은 9.2%에 그친 반면에, 보수적 성향은 13.1%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4.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새터민을 약자로서 배려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조직에서는 동등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새터민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53.8%, '동의하지 않는다' 46.3%의 결과를 보여 새터민이 남북한 간 이질성을 해소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59.2%, '동의하지 않는다' 40.8%의 결과를 보여 새터민 지원정책의 확대에 대해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26.6%, '동의하지 않는다' 73.4%의 결과가 나타나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새터민을 취업시장에서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동의한다' 63.7%, '동의하지 않는다' 36.3%로 앞의 의견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취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새터민의 실력을 낮게 평가하여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는 반면에, 일단 같은 조직 안에 함께 있을 때에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 1-IV-5]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구체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새터민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자 56.9%, 여자 50.6%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새터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자 63.3%, 여자 54.9%로 남녀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러나 새터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응답한 남자는 22.9%인 반면에 여자는 30.3%로 나타나 오히려 여자가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 보다 취업시장에서 새터민에 대해 더 경쟁심을 느끼거나 위협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새터민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남자 64.3%, 여자 63.0%로 나타나 남녀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모든 의견에 대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

령별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수준은 높은 학력일수록 새터민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졸 이상은 57.4%인 반면에 중졸 이하는 43.4%에 그쳐 두 학력 간에는 무려 13%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터민에게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졸 이상이 62.8%인 반면에 중졸 이하는 50.0%로 두 학력 간에 약 13%의 격차가 나타났다.

그러나 새터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의 집단 간의 응답 결과가 앞의 두 의견들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의견에 대졸 이상은 20.3%만이 동의한 반면에, 중졸 이하는 31.6%가 동의하여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시장에서 새터민과의 경쟁력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터민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학력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중졸 이하의 경우는 67.8%가 동의하였고, 고졸은 64.4%, 대졸 이상은 62.0%가 동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 변수에서는 대체로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가 새터민에 대해 가장 우호적이며, 보수적 성향이 중도적 성향보다 새터민에 대해 더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 변수도 다른 배경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나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에서는 정치적 성향 간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으나, ‘새터민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 간에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진보적 성향이 66.3%로 가장 높았고, 오히려 보수적 성향이 60.2%로 가장 낮았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새터민을 사회적 소수자이자 약자로서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이며 노동시장에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존재라고 인식하면서도, 일단 같은 조직 안에 있을 때에는 똑같이 경쟁해야 하는 경쟁자로서 인식하는 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5. 소결

전반적으로 우리 일반국민들의 새터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상당히 덜 포용적이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고 거리감을 갖고 있다. 이 결과는 우리 정부의 새터민 정책이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는 여전히 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정부의 새터민 정책이 보호와 정착지원에 대해 치중해 있고 근본적으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데는 관심이 부족하며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봐야 하는 사실은 우리 국민 100명 중 9명만이 새터민을 만나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이다(동 조사 질문 20-2항의 결과). 이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새터민과 일반 국민이 더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새터민에 대한 거리감은 새터민과의 관계 맺기에서 나타나는 거부감 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사 결과,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와 같이 공적인 관계에서는 새터민에 대해 비교적 거부감이 낮은 반면에 사업동업자나 결혼상대자와 같이 사적인 관계나 개인의 삶에 영향력이 큰 관계 유형에서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10명중 약

6명은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경우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편,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이 낮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새터민 수용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10명중 5명은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새터민이라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약 4명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더 이상 새터민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강한 배타성을 보인 경우는 10명 중에 1명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나 새터민 관련 정책 등의 평가에서는 다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가 새터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동의하여 새터민을 보호하고 배려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취업이나 조직생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새터민을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10명중 5명 이상이 새터민을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결과는 정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남과 북은 50여년 넘게 이질화된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새터민은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이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행동양식, 생활양식, 가치체계 등에서 전혀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 새터민은 남북 주민들의 이질화 정도를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자, 사회통합이 통일의 최종목표라고 했을 때 새터민에 대한 인식은 남북통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새터민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과 의식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데 ‘근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새터민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친근하게 느끼고 어떠한 관계에서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을 때 사회통합의 미래는 가까워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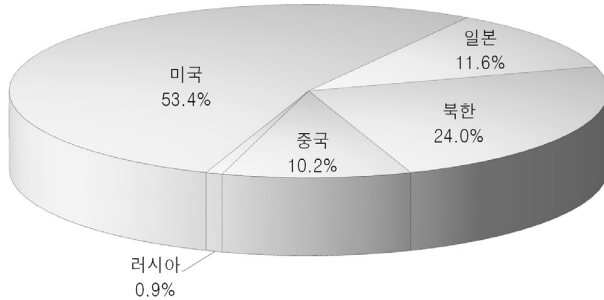
V.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한반도의 통일은 일차적으로는 남북한의 문제이지만,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반도는 세계 주요국의 세력의 각축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만의 힘과 의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해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본다.

1. 한국인이 가깝게 느끼는 국가와 위협을 느끼는 국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꼽을 수 있다. 이 4개국에 북한을 포함하여 한국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는지 물어본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림 1-V-1] 한국인이 가깝게 느끼는 나라

[그림 1-V-1]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1,192명의 응답자 가운데 53.4%가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라고 응답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24%의 응답자가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으로 약 10명 중 1명씩 정도로 일본과 중국이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고 응답했다. 러시아를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일단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북한이 선택지에 들어있어도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해 한국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 가운데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깝게 느낀다는 것은 정서적인 반응으로 개인의 직접적, 간접적 경험이 모두 어우러져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높은 반미정서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번 조사의 응답 결과로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북한이 포함되어 있는 선택지 가운데,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라고 응답해 반미정서가 있다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까운 나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여자보다 남자가 약간 더 미국과 북한을 가장 가깝게 선호하는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일본을



좀더 가까운 나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 모두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고르고 있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고른 비율에 차이가 난다. 20대와 30대는 약 47%의 응답자들이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40대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52%로 높아지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비율이 68%로 뛰어오른다.

미국에 대한 선호 못지않게 북한에 대한 선호도 우리의 관심사다. 모든 연령층 가운데 북한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낀다는 응답률이 높은 연령층은 40대이다. 40대 연령층 가운데 30%가 북한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대 연령층에서는 21.6%만이, 30대 연령층에서는 25%만이 북한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낀다고 대답하고 있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에 그치고 있다.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끼는 비율은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에서 나이 든 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높아졌다. 그러나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비율은 40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30대, 그 다음이 2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북한을 제일 가까운 나라로 느끼는 경향이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에 대한 인식은 20대가 가장 긍정적이다. 20대 가운데 20%가 미국이나 북한보다 일본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본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낀다는 응답률은 줄어들고 있다.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를 선택하는데 연령별 차이에 흥미로운 현상이 보인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좋아하는 나라가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나라가 미국인지 아니면 북한인지에 관심이 많다. 미국 아니면 북한을 고르는 태도는 40대 이상에 뚜렷하다. 즉 50대 이상은 미국(68%), 북한(19%) 등으로 미국이 압도적이면서 일부는 북한을 가깝게 느낀다. 40대는 미국(52%), 북한(30%)의 식으로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령층 역시 미국과 북한 등 두 나라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30대에 오면 이런 이분법적인 경향이 약화된다. 30대는 미국(47%)과 북한(25%)을 선택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2%에 해당하지만, 일본(13%), 중국(12%) 등 일본과 중국을 선택한 비율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대에 이르면 더 뚜렷해진다. 20대의 경우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47%로 절반이하의 선택을 보여준 반면 북한을 선택한 비율도 21%로 30대나 40대보다 북한을 선택한 비율이 더 낮다. 반면 일본을 선택한 비율은 20%이고, 중국을 선택한 비율은 11%로 일본에 대한 선호가 북한을 고른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 즉 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가깝게 느끼는 국가가 미국과 북한 등 2개가 아니라 미국, 일본, 북한 등 3개국인 것이다. 이처럼 젊은 층에 이르면 가깝게 느끼는 국가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은 연령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만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를 교육수준별로 보면 낮은 교육수준의 응답자들이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끼는 비율이 높다. 중학 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응답자들 가운데 70%가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끼고 있다. 이 비율이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지닌 응답자들에게서는 53%로 감소하고,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경우에는 49%로 더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비율은 낮은 교육수준을 지닌



응답자에게서 가장 낮아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응답자의 18%는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들은 25.5%의 응답자들이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일본을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은 연령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의 효과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일본을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의 13.6%가 일본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하는 반면, 중학 이하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의 경우에는 4.6%만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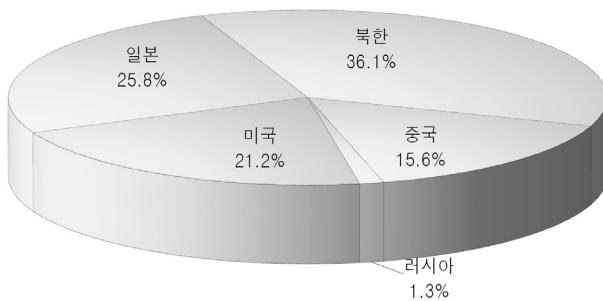
가깝게 느끼는 나라를 선택한 응답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호남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모두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선택한 비율이 50%를 넘는다. 서울, 경기지역의 수도권에서 서울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55.5%이고, 충청권의 응답은 61.5%에 이른다.

그러나 광주, 전남,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에서는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이 38.7%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이 지역에서는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선택한 비율이 32%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영남지역에서 북한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선택한 비율은 25.6%로 수도권(21.8%)이나 충청권(18.8%)보다 높지만, 호남지역에서 북한을 선택한 비율에 비해 약 7% 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난다.

북한을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가장 적게 선택한 지역은 충청권이다. 충청권은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 나라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61.5%),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8.8%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깝게 느끼는 나라를 선택하는데 개인적인 이념 성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미국을 선택한 경우가 적고 대신 북한을 고른 경우가 많다. 진보적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한 응답자들은 미국(42.9%), 북한(32%)의 순으로 선택했다. 반면에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미국(60%)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북한(23.4%)의 선택은 상대적으로 적다. 자신을 중도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북한을 선택한 비율이 20%로 가장 낮고, 반면에 일본을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로 진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가깝게 느끼는 나라와 반대의 개념은 멀리 느끼는 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2007통일외식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어느 나라를 가장 멀리 느끼는지를 물어보지는 않았다. 대신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다음 [그림 1-V-2]는 『2007통일외식조사』의 응답자들이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림 1-V-2]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



북한을 포함한 5개국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나라로 북한을 꼽은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일본으로 전체 응답자의 25.8%는 일본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꼽았다. 그 다음은 미국으로 응답자의 21%가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선택하는데 남녀간 차이는 거의 없다. 남자들의 경우 34%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했는데, 여자의 경우 38%가 북한을 지목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북한을 더 위협적인 나라로 보고 있다. 반면에 남자들의 경우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8%에 이르고 있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남자들보다는 약간 낮은 24%가 북한 다음으로 일본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남자 응답자의 20.5%, 여자 응답자의 21.9%가 미국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경우로 꼽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미국을 선택한 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다.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선택하는데는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20대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33.9%가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보아,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32.9%보다 약간 더 높다. 반면에 일본이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은 20.3%로 모든 연령층에서 일본이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로는 20대가 가장 낮다.

그러나 30대에 이르면 응답자의 34.6%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여 북한을 꼽은 경우가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30대의 28.2%가 일본을 꼽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대 응답자의 23.1%에 이르고 있다.

40대의 경우에는 북한과 일본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두 나라라고 비슷한 정도로 응답하고 있다. 40대 응답자에서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북한을 지목한 경우는 응답자의 32.8%이고, 일본을 꼽은 경우는 31.5%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40대는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북한 다음으로 일본을 꼽아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무척 높음을 알 수 있다. 40대에서 미국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비율은 15.4%로 20대나 30대와 비교하면 무척 낮다. 40대에서는 중국을 미국보다 한반도의 평화에 더 위협적인 존재로 꼽은 비율이 높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압도적인 비율로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북한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응답자의 45%가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꼽고 있다. 그 다음은 일본으로 23%가 일본을 위협적인 존재로 들고 있고, 그 다음은 중국으로 19%의 응답자가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교육수준별로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살펴보면 연령별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발견한다. 중학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에서는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응답한 비율이 46.1%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일본으로 23.7%가 응답했고, 그 다음은 중국으로 17.8%가 응답했다.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은 이 교육수준에서는 11.2%에 불과했다.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에서는 북한을 선택한 비율이 35%로 낮아진 반면 일본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꼽은 비율이 28%로 높아진다. 또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선택한 비율도 19.3%로 중국을 선택한 15.9%보다 더 높다.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에서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선택한 비율이 34.4%로 고등학교의 교육수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교육수준의 응답층에서는 미국이 그 다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25.4%의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들은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일본을 선택한 24.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중국을 선택한 14.8%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충청(39%), 수도권(37.8%), 영남(34.4%)에서는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4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에서는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6%로 30% 미만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꼽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29.4%의 응답자가 일본이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하고 있고, 그 다음 북한(28.6%), 미국(27.7%)의 순으로 위협적인 나라를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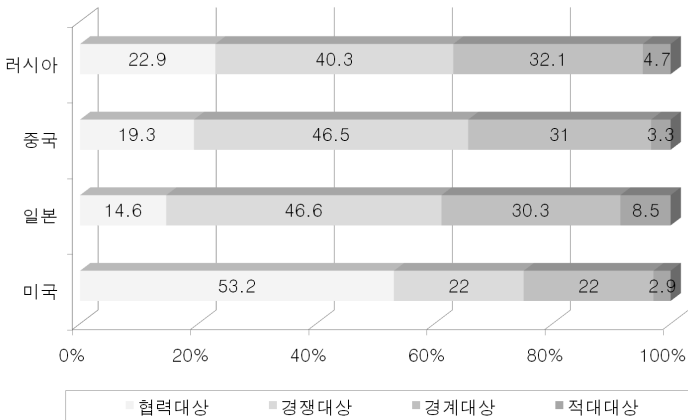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선택하는데 개인의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자들은 일본(28.7%), 미국(27.7%), 북한(26.7%)의 순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적이라거나 보수적이라고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하고 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북한(40.5%)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하고 있고, 중도적인 사람들 역시 북한(38.6%)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응답하고 있다.

[그림 1-V-1]과 [그림 1-V-2]를 통해 한국인들은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끼고 있고, 반면에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이념성향별로 나누어보면 응답의 경향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비단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 대한 인식도 연령과 교육수준, 지역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이를 알 수 있다.

2.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

북한을 제외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중요 주변국이다. 국민들은 이들 4개 국가를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이번 『2007통일외식조사』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림 1-V-3] 한반도 주요 주변국에 대한 인식



이번 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53%는 미국을 우리의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쟁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22%, 경계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22%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3%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미국을 우리의 최우방으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우리의 최우방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관심이 높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중국을 우리의 경쟁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응답자의 47%가 중국을 경쟁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4.6%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8.5%로 미국, 일본, 러시아와 비교하면 적대대상으로 간주되는 비율이 제일 높다.

응답자들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중국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일본을 우리와 경쟁대상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의 46.5%가 일본은 우리의 경쟁대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31%의 응답자가 경계대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우리에게 협력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14.6%였지만, 일본을 우리의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3%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에게 일본은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매우 낮아 응답자의 3.3%만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림 1-V-3]에 나타난 결과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아서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을 경쟁대상이거나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인에게 중국은 협력대상이라기 보다는 경쟁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다음은 아직도 경계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는 중국을 최우방으로 설정하기에는 국민들의 정서와

태도가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반도 주변 4개국에 대해 연령별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아래 [표 1-V-1]는 연령별로 각 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 1-V-1 연령별 한반도 주요 주변국에 대한 인식 (단위: %)

국가	연령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N
미국	20대	51.7	21.5	22.9	4.0	302
	30대	45.7	22.7	28.4	3.2	313
	40대	55.7	23.3	18.4	2.6	305
	50대 이상	60.4	20.1	17.6	1.8	278
일본	20대	16.2	47.7	27.5	8.6	302
	30대	14.4	45.8	31.7	8.0	312
	40대	15.7	46.2	29.8	8.2	305
	50대 이상	11.9	46.6	32.1	9.4	277
중국	20대	23.8	42.4	29.5	4.3	302
	30대	20.8	43.8	32.3	3.2	313
	40대	19.3	48.5	29.5	2.6	305
	50대 이상	12.6	51.6	32.9	2.9	277
러시아	20대	28.8	33.4	31.8	6.0	302
	30대	22.5	42.1	31.8	3.5	311
	40대	24.3	44.3	27.5	3.9	305
	50대 이상	15.2	41.5	37.9	5.4	277

한반도 주변 4개국에 대한 인식에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미국에 대한 인식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유독 30대의 경우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낮고, 대신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나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을 선택한 비율의 측면에서 30대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특별히 미국을 경계하거나 협력대상으로 택하지 않을 가



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가 라는 질문에서 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적고, 반면에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다. 3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진다.

일본에 대해서는 경쟁대상으로 바라보는데 연령에 따른 차별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연령에 따라 일관성있는 인식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20대 연령층에서 러시아를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6%로 비교적 높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30대 8%부터 50대 이상 9.4%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어느 국가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은 주로 경쟁대상으로 인식되고, 그 다음은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제일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국을 경쟁대상으로 더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연령이 낮아질수록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진다. 즉 한국인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국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중국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다음 [표 1-V-2]는 교육수준별로 한반도 주요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어느 교육수준에서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학이하의 학력에서는 65%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는 반면 대학이상의 학력에서는 49%만이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중학이하의 미국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15.8%에 불과하지만 대학이상의 학력에서는 이 비율이 25%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경쟁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대학이상(44.5%)부터 고

등(47.6%), 중학이하(49.7%)로, 학력수준이 낮아질수록 경쟁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일본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중학이하(10.6%), 고등(14.1%), 대학이상(16.4%) 등 학력이 높아질수록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의 경향은 일본에 대한 인식의 경향과 비슷하다. 중학이하에서는 중국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2%에 달하고 있지만, 대학이상에서는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2.5%로 낮아진다. 반면에 중학이하에서는 15.2%만이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대학이상에서는 23.5%가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1-V-2 교육수준별 한반도 주요 주변국에 대한 인식

(단위: %)

국가	교육수준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N
미국	중학이하	64.5	19.1	15.8	0.7	152
	고등	54.5	21.7	20.3	3.6	503
	대학이상	49.2	22.9	25.1	2.8	537
일본	중학이하	10.6	49.7	33.1	6.6	151
	고등	14.1	47.6	28.5	9.8	502
	대학이상	16.4	44.5	31.1	8.0	537
중국	중학이하	15.2	51.7	30.5	2.7	151
	고등	16.1	49.3	31.6	3.0	503
	대학이상	23.5	42.5	30.4	3.7	537
러시아	중학이하	14.0	42.0	38.7	5.3	150
	고등	20.3	42.4	32.9	4.4	502
	대학이상	27.9	37.8	29.6	4.7	537

마지막으로 한반도 주요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이념적 성향에 따라 살펴보자. 다음 [표 1-V-3]은 이념적 성향별로 주요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 1-V-3 이념적 성향별 한반도 주요 주변국에 대한 인식

(단위: %)

국가	이념적 성향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상	N
미국	진보	42.9	20.5	30.7	5.9	303
	중도	56.4	22.4	19.8	1.4	566
	보수	57.5	22.3	17.7	2.5	327
일본	진보	12.5	42.9	32.3	12.2	303
	중도	16.3	48.9	28.7	6.2	565
	보수	13.8	46.3	30.7	9.2	326
중국	진보	22.8	41.3	31.3	4.6	303
	중도	18.4	49.5	29.9	2.3	566
	보수	17.5	46.3	32.5	3.7	326
러시아	진보	28.4	35.6	30.0	5.9	303
	중도	21.2	43.9	32.0	2.8	565
	보수	20.3	38.8	34.1	6.8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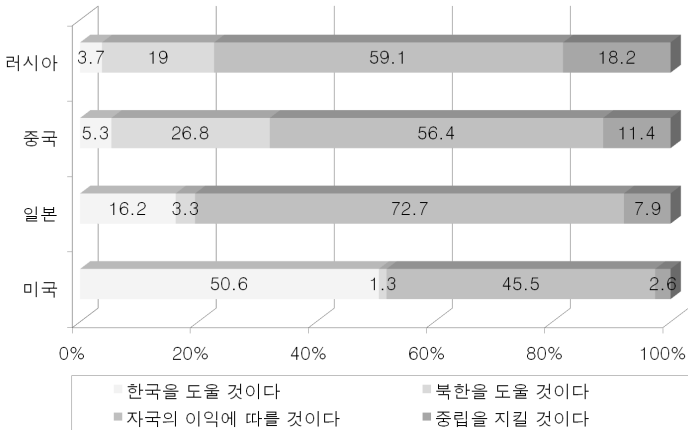
이념에 관계없이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진보(42.9%)나 보수(57.5%) 모두 가장 높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진보적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 42.9%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 57.5%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미국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0.7%로 경쟁대상으로 보는 비율 20.5%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미국을 경계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약간씩 더 높다. 이처럼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제일 높지만,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들은 미국을 협력대상 못지않게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반면에 보수적인 성향의 응답자들은 미국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적은 편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

나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모든 이념적 성향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경계대상, 협력대상의 순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들도 중국은 경쟁대상, 그 다음은 경계대상, 그 다음이 협력대상으로 나타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라 할지라도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인 응답자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한반도 주변국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한반도의 통일에 앞서 이 조사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주변 4개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 [그림 1-V-4]는 한반도 주변 4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그림 1-V-4]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한반도 전쟁시 예상되는 대처 방식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6%로 응답자의 절반은 전쟁시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에 맞서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45.5%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서 자국의 이익에 따른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한국이나 북한의 편을 들 수도 있고, 겉으로 중립을 지킬 수도 있는 등 철저하게 상황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응답자의 절반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한국의 우방으로서 당연히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반면, 거의 나머지 50%는 미국이 한국을 당연히 돕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미국은 철저히 자신의 계산에 따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자 가운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겨우 16%의 응답자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73%의 응답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때 일본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그만큼 일본에 대한 신뢰가 적으며 일본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우방이었다. 이제 한국과도 국교를 수교한지 10년이 지나고 있고 한국과 중국간의 물적, 경제적 교류는 매우 긴밀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7%에 달한다.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중국은 여전히 북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과거와 같이 북한을 편들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한과의 교류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해졌기 때문에 한국이나 북한 편을 들지 않고 중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1명을 약간 넘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경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응답이 중국보다 약간 더 많다. 반면에 러시아가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19%)은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적다. 북한을 돕거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이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18%를 기록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개국이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는지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V-4]와 같다. 미국의 경우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다. 20대나 30대 응답자의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더 많다. 20대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4.6%인 반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1.4%에 머물렀다. 30대의 경우는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인데,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6.5%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층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0대부터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따르기보다는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기대를 더 가지고 있다. 40대의 경우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54.4%인 반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은 40%에 머물러 있다. 50대 이상은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응답했고, 자국의 이익을 쫓을 것이라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표 1-V-4 연령별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한반도 전쟁시 예상되는 대처 방식

(단위: %)

국가	연령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N
미국	20대	41.4	1.7	54.6	2.3	302
	30대	46.5	0.3	51.0	2.2	314
	40대	54.4	1.6	40.3	3.6	305
	50대 이상	60.9	1.8	35.1	2.2	279
일본	20대	13.9	5.6	70.2	10.3	302
	30대	18.2	1.9	73.9	6.1	314
	40대	16.1	2.6	72.5	8.9	305
	50대 이상	16.5	2.9	74.2	6.5	279
중국	20대	7.0	23.2	59.9	9.9	302
	30대	5.4	21.3	62.4	10.8	314
	40대	5.3	32.8	49.8	12.1	305
	50대 이상	3.6	30.5	53.1	12.9	279
러시아	20대	4.6	12.9	59.3	23.2	302
	30대	4.8	14.7	67.2	13.1	313
	40대	3.3	25.3	52.5	19.0	305
	50대 이상	1.8	23.7	57.0	17.6	279

이처럼 전쟁시 미국에 대한 태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경우에는 연령별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비해 일본이 가장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아도 20대는 70%가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고 응답했고, 50대 이상은 74%가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좇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가장 높은 응답율과 낮은 응답율 사이에 4% 포인트의 차이밖에 없다. 일본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도 10%를 기록하고 있다. 30대는 18%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20대는 14%가 일본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30대 연령층에서 중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이 62.4%로 가장 높고, 40대에서는 50%만이 응답하여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쫓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30대는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21%로 가장 낮고, 40대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국가보다 한국인들은 러시아가 4개국 가운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높다. 20대의 경우 응답자의 23.2%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는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 [표 1-V-5]는 이념적 성향별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표 1-V-5 이념적 성향별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한반도 전쟁시 예상되는 대처 방식

(단위: %)

국가	이념적 성향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N
미국	진보	43.6	1.3	51.2	4.0	303
	중도	53.0	1.4	43.5	2.1	568
	보수	53.2	1.2	43.4	2.1	327
일본	진보	16.8	4.3	71.0	7.9	303
	중도	18.1	2.8	72.0	7.0	565
	보수	12.2	3.1	75.2	9.5	327
중국	진보	6.9	21.8	56.8	14.5	303
	중도	5.5	28.5	56.3	9.7	568
	보수	3.7	28.7	56.3	11.3	327
러시아	진보	4.3	15.2	57.6	22.8	302
	중도	3.4	19.7	61.4	15.5	568
	보수	3.7	21.4	56.6	18.4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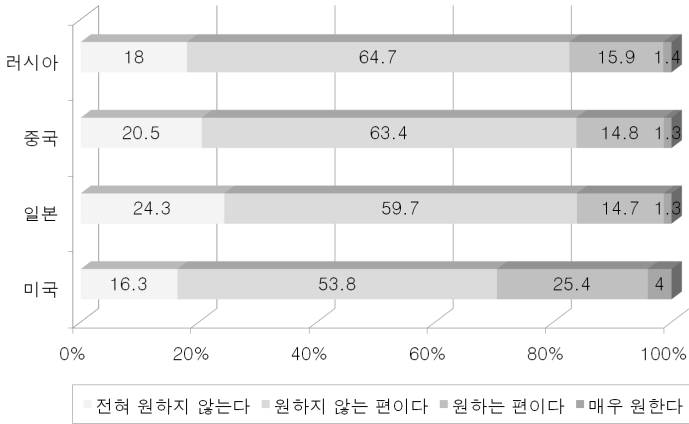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역시 미국에 대해서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한반도 전쟁시 예상되는 대처 방식에 차이가 난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2%이고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6%로 미국이 당연히 한국을 돕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인 응답자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것이 곧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자국의 이익에 따르는 것이어서 둘은 동일한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을 돕는 것과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데 따르는 것을 별개의 선택지로 제시했을 때 진보적인 성향의 한국인은 미국이 당연히 한국을 돕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태도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한반도 주요 주변국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한국인들은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 [그림 1-V-5]는 통일에 대해 한반도 주요 주변국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V-5]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태도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는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매우 원한다”는 선택지에 응답자들은 미국의 경우 4.0%, 러시아 1.4%, 중국 1.3%, 일본 1.3%의 순으로 응답해,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매우 원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원하는 편이다”의 응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네 개 국가 가운데 “원하는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도 미국이 25.4%로 가장 높다. 이 두 응답을 합쳐 “원한다”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응답자의 29.4%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일본 16%, 중국 16.1%에 비하면 높은 것이다.

위의 응답경향을 좀 더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1. 전혀 원하지 않는다, 2. 원하지 않는 편이다, 3. 원하는 편이다, 4. 매우 원한다로 값을 주고 국가별로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정도의 평균값을 구해본 후 국가별로 비교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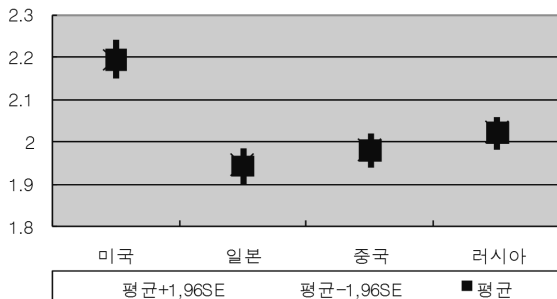


표 1-V-6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통일을 원하는 정도의 평균값 및 표준오차

국가	평균	표준오차
미국	2.19	0.02313
일본	1.94	0.02084
중국	1.98	0.02008
러시아	2.02	0.01993

통일을 원하는 정도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미국이 2.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러시아가 2.02, 중국 1.98, 일본 1.94의 순으로 나타난다. 1점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이고 2점은 “원하지 않는 편이다”이기 때문에, 이 평균값의 의미는 한반도 주변 4개국 모두 한반도의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변 4개국 가운데는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상대적으로 가장 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값이 보여주는 바는 한반도 주변 4개국 모두 통일을 원하지 않는 편임을 알 수 있다.

비록 평균값이 모두 비슷하다고 해도, 우리는 주변부 4개국 사이에 통일을 원하는 정도의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 1-V-6]은 평균값의 95%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V-6]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통일을 원하는 정도의 평균값의 95% 신뢰구간

위의 그림을 보면 미국이 통일을 원하는 정도는 일본, 중국, 러시아가 통일을 원하는 정도와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는 평균값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즉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미국은 그나마 일본, 중국, 러시아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남북한의 통일에 상대적으로 약간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중국, 러시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될 정도로 통일을 원하는 정도의 평균값에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변국들이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미국의 경우 50대 이상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매우 원한다”는 비율이 5.4%이고 40대는 5.6%인데 30대는 4.2%, 20대는 3.3%로 낮아진다. 통일을 “원하는 편이다”라는 범주를 택한 비율도 50대 이상은 30.6%인데 반해 40대는 26.9%, 30대는 23.3%, 20대는 21.2%로 나타나 젊은층일수록 미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20대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1.5%인데 반해 50대 이상은 12.2%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젊은 층일수록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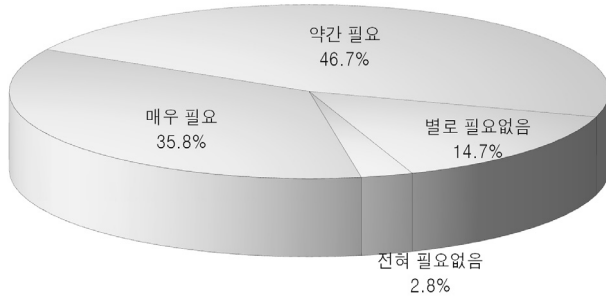


표 1-V-7 연령별 한반도 주요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태도 (단위: %)

국가	연령	전혀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원하는 편이다	매우 원한다	N
미국	20대	21.5	54.0	21.2	3.3	302
	30대	19.8	52.7	23.3	4.2	313
	40대	11.2	56.4	26.9	5.6	305
	50대 이상	12.2	51.8	30.6	5.4	278
일본	20대	27.5	61.3	10.6	0.7	302
	30대	24.6	57.8	16.6	1.0	313
	40대	22.0	61.6	14.4	2.0	305
	50대 이상	23.0	57.9	17.3	1.8	278
중국	20대	23.2	61.3	14.6	1.0	302
	30대	22.0	64.2	12.8	1.0	313
	40대	18.4	64.3	15.7	1.6	305
	50대 이상	18.4	64.0	16.2	1.4	278
러시아	20대	18.5	62.6	17.2	1.7	302
	30대	18.2	65.5	15.0	1.3	313
	40대	16.1	67.2	15.7	1.0	305
	50대 이상	19.1	63.3	15.8	1.8	278

5. 통일의 조건: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한반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태도가 한반도 남북한 통일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 1-V-7] 남북한의 통일에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의 필요성

남북한이 통일되는데 주변국들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도 모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5.8%는 남북한의 통일에 한반도 주변국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46.7%는 주변국들의 협조가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에 14.7%의 응답자들은 남북한의 통일에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별로 필요없다”고 인식하고 있고, 2.8%의 응답자들은 주변국들의 협과 “전혀 필요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남북한의 통일에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과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 둘의 응답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 먼저 성별로 남북한의 통일에 주변국들의 협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자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1%인데 반해 여자들은 30%로 나타나 이 범주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10% 포인트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약간 필요하다”는 범주를 고른 비율은 남자는 42.6%인데 반해, 여자는 50.7%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8% 포인트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남자나 여자 모두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남자들이 여자보다 좀 더 강하게 주변국의 협조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국의 협조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별로는 그다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수준별로는 차이가 나타난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에서는 남북한의 통일에 주변국의 협조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7.6%에 그친 반면, 고등학교의 학력의 응답자는 34.5%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대학이상의 학력의 응답자는 39.5%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처럼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에 대해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에서는 52.6%, 고등학교에서는 46.9%, 대학교 이상의 학력에서는 45.1%가 응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도 영남지역의 응답이 다른 지역보다 다르게 나타난다. 수도권, 충청, 호남지역에서는 남북한의 통일에 주변국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9~43%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영남지역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5%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영남지역에서 58.2%로 수도권의 42.6%, 충청지역의 41.5%, 호남지역의 41.2%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는 남북한의 통일에 주변국의 협조의 필요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진보적인 응답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가 38.9%, “약간 필요하다”가 42.6% 인 반면, 보수적인 응답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가 36.7%, “약간 필요하다”가 46.2%로 나타나 교육수준별 차이와 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6. 소결

이 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에 대해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 발견한 사항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은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의 5개국 가운데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다. 성, 연령, 교육수준, 지역, 이념적 성향을 고려해도 미국을 가깝게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젊은 층으로 올수록 미국을 가깝게 느끼는 비율이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나이든 층에서는 미국이나 북한 중 한 국가를 선택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젊은 층으로 올수록 가깝게 느끼는 국가도 미국, 일본, 북한 등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에서 미국을 가깝게 느끼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념적으로도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보다도 미국을 가깝게 느끼는 정도가 적었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북한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일수록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미국과 일본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의 다양화 현상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선택하는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에서 마치 20대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응답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이념적으로도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북한을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면에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셋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주변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또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다.

넷째,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한반도 주변국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반도 주변 4개국이 모두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지만,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그나마 미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될 수 있는 정도로 좀 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미국이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들의 협조에 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이 낮은 학력층에 비해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영남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주변국들의 필요가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2007
통일의식조사

제2부

심층분석
मुखर्नर्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IUS



I. 통일의 기대: 현실적 이익에 반한 당위적 요청

분단 반 세기가 넘도록 남에서나 북에서나 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고,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은 아직도 확고하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체제를 전혀 달리하는 두 개의 정치체가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으로부터 각종 스포츠행사에서의 단일팀 구성, UN 동시가입 문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서 현안이 된 개성공단 생산품의 생산지 표시 문제에 이르기까지, 남한과 북한을 두 개의 다른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어져왔다. 통일 문제 역시, 이념과 정치체제로부터 경제적·사회적 구조와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차이를 가진 두 정치체의 통합과 거기에 따른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여러 문제라는 측면에서보다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단일민족의 재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인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도 보듯이, 통일과정은 긍정적 측면 못지

않게 많은 부작용과 사회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된 민족국가의 건설, 국제적 위상의 제고, 경제통합에 따른 시장 확대 등이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통일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통일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개인적 이익이나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으로는 통일을 민족의 염원이자 역사적 당위성으로 열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통일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지 않거나 오히려 일부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품고 있다는 이 이중성이야말로, 통일에 대한 현재 한국국민들의 인식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1. 통일이 민족적 당위라는 인식의 심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통일이 필요하고 또 당위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다. 통일의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6%를 차지했으며, 거기 비해서 전쟁 억제라든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현실적 이익 기대와 관련된 응답,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나 북한주민들의 삶의 개선이라는 인도주의적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연령별로는 각 응답의 비중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각 이유의 응답비율 순서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2-1-1 통일의 이유에 대한 연령별 응답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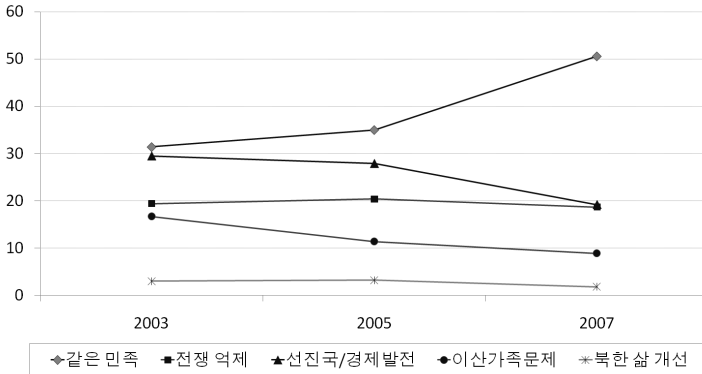
	같은 민족	전쟁 억제	선진국화	이산가족 해소	북한생활 개선	N
20대 이하	39.6	22.8	23.2	12.1	2.3	298
30대	51.4	17.0	22.5	7.4	1.6	311
40대	49.8	21.8	19.8	6.9	1.7	303
50대 이상	64.5	15.6	8.7	9.8	1.4	277

N=1189(모름/무응답 1 제외), $\chi^2=48.883$, $p < 0.001$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2003년과 2005년에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에도 있었기에, 그 조사결과를 연도별로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 그래프에서 보듯이,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은 2003년 이래 큰 폭으로 증가, 30%대에서 50%대에 이르고 있다. 반면, 2003년에는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던 ‘한국(남한)의 발전/선진국화’라는 응답의 비율은 이번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전쟁 억제’라는 응답률은 대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현실적 이익 기대는 한반도를 둘러싼 그때그때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부침(浮沈)이 심하리라는 것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라는 응답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1990년대 이래 매우 제한적인 통로로나마 이산가족의 상봉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단과 이산의 경험 자체가 희미해져 가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줄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통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늘 미미한 응답률을 보였다. 질문 자체가 복수의 이유를 들어 응답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꼽으라는 것이어서이기는 하겠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민족’이라는 응답만이 유독 큰 폭으로 증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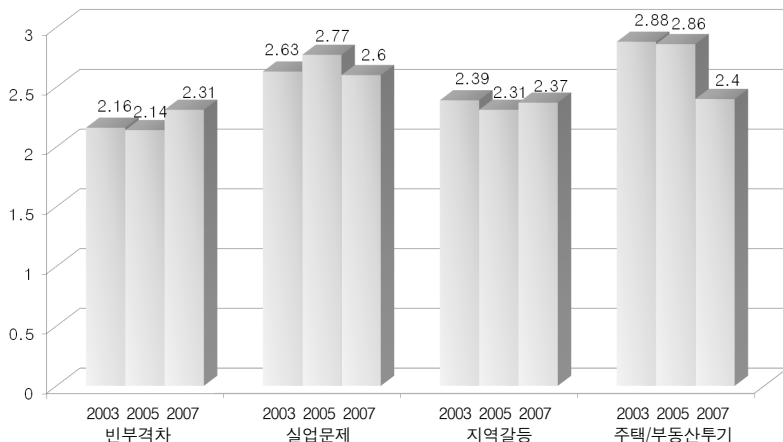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I -1] 통일의 이유에 대한 응답비율의 변화

2. 현실적 이익에 반한 통일의 요청

통일이 민족적 당위라는 강력한 인식과는 반대로, 이번 조사의 다른 질문들을 살펴보면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한 기대는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먼저, 현실적으로 남북한은 정치, 법률, 경제, 사회, 언어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무척 이질적인 체제, 이질적인 사회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 현재 남한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은, 통일 이후에도 개선되기는커녕, 도리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물론 다음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런 기대는 그때그때 남한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난 몇 년간의 조사결과를 두고 볼 때 전체적으로 상황의 개선보다는 상황의 악화를 예상하고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 응답지의 크게 개선=5, 약간 개선=4, 차이 없음=3, 약간 악화=2, 크게 악화=1의 값을 부여해서, 최대 5, 최소 1, 평균 3의 값을 갖도록 한 분포.

[그림 2-I-2] 통일 이후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

통일이 남한에나 또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차분석을 해보면, 남한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4.2%, 남한에는 이익이 되지만 자신에게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28.6%, 남한에도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 27.2%, 남한에는 이익이 되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3.0%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남한에는 조금 이익이 될 것을 기대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익보다는 불이익의 기대가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통일이 남한사회나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익의 기대보다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표 2-I-2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의 기대 (단위: %)

정치적 성향			통일이 남한에는		N
			이익이 된다	되지 않는다	
진보적	통일이 자기에게는	이익이 된다	35.0	3.3	116
		되지 않는다	30.7	31.0	187
	N=303, $\chi^2=55.083$, $p<0.001$				
중도적	통일이 자기에게는	이익이 된다	25.0	2.5	156
		되지 않는다	28.7	43.7	411
	N=567, $\chi^2=120.034$, $p<0.001$				
보수적	통일이 자기에게는	이익이 된다	23.6	3.7	89
		되지 않는다	26.4	46.3	237
	N=326, $\chi^2=65.299$, $p<0.001$				

한편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강한 지향은, 통일이 남한 사회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현재의 북한정권은 통일을 희망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생각과도 무관했다. 통일이 남한사회나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물론이지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따라서 통일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통일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표 2-I-3 통일에 대한 이익 기대와 통일의 필요성 인식 (단위: %)

통일이 남한에는	통일의 필요성			N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없다	
이익이 된다	75.9	15.7	8.4	669
이익이 되지 않는다	48.7	27.7	23.6	530

N=1199, $\chi^2=100.128$, $p<0.001$



(단위: %)

통일이 자기에게	통일의 필요성			N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없다	
이익이 된다	83.5	11.8	4.7	363
이익이 되지 않는다	55.4	25.0	19.6	836

N=1199, $\chi^2=89.486$, $p<0.001$

또, 북한이 우리에게 지원대상이거나 협력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뿐 아니라, 북한이 경계대상 또는 적대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필요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

표 2-1-4 남북한관계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

(단위: %)

북한은 우리에게	통일의 필요성			N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없다	
지원대상	66.8	23.7	9.5	262
협력대상	71.1	19.1	9.7	679
경쟁대상	48.7	23.1	28.2	39
경계대상	41.1	24.1	34.8	141
적대대상	39.2	22.8	38.0	79

N=1200, $\chi^2=115.466$, $p<0.001$

3. 소결

통일이 민족적 과업이며 역사적 당위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번 조사와 또 이전의 몇몇 조사들에서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그것은, 그만큼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이 강해서 상당한 희생과 손

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가 표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우려되는 것은, 현실적인 온갖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적 인식이, 현실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지난 60년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통일이 민족적 당위성에 근거하여 말해질 때, 거기에는 통일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마주하게 될 현실의 엄연한 차이들이나 그것을 극복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가 개입할 여지는 적어진다.

통일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통일비용과 각종 부작용, 사회문제들이 현실의 일이 된다면, 그때에도 통일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루어야 할 당위적 명제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Ⅱ. 대북인식 변화의 시계열적 비교분석

남한에서 대북인식이 변화를 시작한 시기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공산주의 국가에 문호개방을 천명한 ‘7.7선언’이 있었던 1988년이라고 생각된다. 이듬해인 1989년 6월 한국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실시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넘어선 합법적 교류협력시대를 열었으며, 그 후 10여년이 지난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함으로써 지난 7년 동안 남북간에 매우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추진하였다. 정부차원에서 정치회담과 경제협력, 철도·도로연결,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간에 폭넓은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도 연간 10만 명이 평양과 개성 등 북한을 방문하며 금강산 관광객도 연간 40~50만 명에 이른다.

남북간 교류·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생각과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접적인 방북경험자는 4.5%에 불과하지만 북한방송과 영화·소설 등을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40.8%나 되고 탈북자(새터민)를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8.9%에 이

를 만큼 교류와 접촉이 늘어났다. 그 결과 “머리에 뿔달린 괴물” 혹은 “빨갱이”로 여겨졌던 획일적 이미지의 북한이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라는 인식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주민의 정치와 경제, 삶과 문화 등 사회전반에 대한 인상을 새롭게 학습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북인식의 변화는 남한 사회 내부적으로 상당한 파열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변화의 공간에서 북한을 여전히 경계하고 적대시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과 이제는 북한과 화해하고 대화·협력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끊임없이 대립과 마찰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 내에 이른바 반공과 통일, 북한인권·민주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담론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도 바로 북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국민들의 대북인식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그리고 향후 6자회담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진전과 더불어 대북인식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서울대 통일연구소의 2007년 자료를 과거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 및 성균관대 사회조사자료와 비교하면서 지난 10여 년간의 대북인식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변화의 특징과 배경을 분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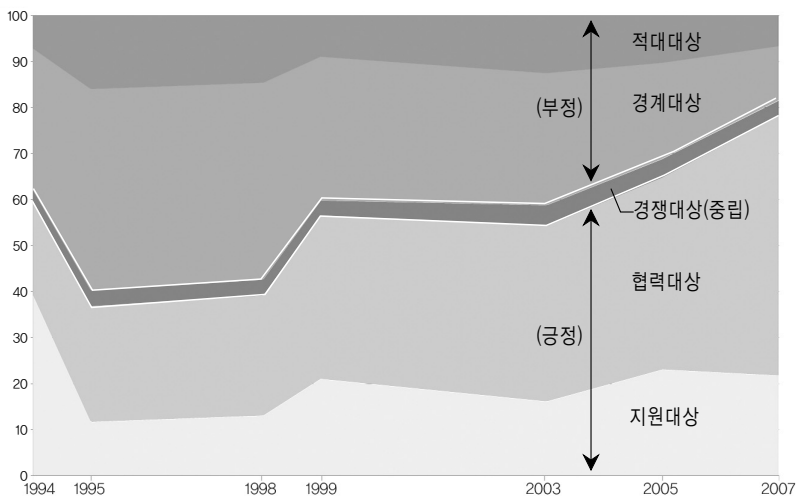
1. 북한에 대한 ‘긍정’인식의 지속적 확대

지난 10여 년간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변화에서 뚜렷하게 발견되는 사실은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점점 감소된 반면,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북한이 ‘경계대상’이라는 견해는 1994년 이후 (30.7%)→43.7%(95)→40.6%(98)→28.6%(99)→27.7%(03)→20.9%(05)→11.8%(07)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협력대상’이라는 의견은 20.4%(94)→25.2%(95)→24.8%(98)→32.5%(99)→



36.9%(03)→41.8%(05)→56.6%(07)로 계속 늘어났다.

한편, 북한을 ‘적대대상’과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큰 흐름에서는 다르지 않다. 즉 시기별로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적대대상’의 경우, 김일성 사망 해인 1994년(7.1%)을 예외로 하면 95년, 98년 99년에 각각 15.9%→13.8%→8.1%로 감소했다가 2003년에 12.0%로 증가했고, 이후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10.2%→6.6%로 다시 감소했다. 즉 ‘적대대상’이라는 시각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지원대상’도 94년(39.2%)을 예외로 하면, 1995년 11.7%로 떨어진 이후 12.4%(98)→19.3%(99)→15.6%(03)→23.1(05)→21.8%(07)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 1994~2005년 통일연구원 자료

[그림 2-II-1] 대북인식의 변화

위의 흐름을 살펴보면, 남한국민의 대북인식이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질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998년까지는 국민들 가운데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1999년부터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90년대 초에는 31:20 혹은 44:25 정도로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이미지는 1999년을 기점으로 ‘경계대상’에서 ‘협력대상’으로 바뀐다. 다시 말하면, 1998년까지 41:25였던 ‘경계대상’ 대 ‘협력대상’의 비율이 1999년에 29:33으로 역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북인식을 ‘긍정’과 ‘부정’으로 크게 구분해 볼 때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인다.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을 부정적 이미지로 묶고, ‘협력대상’과 ‘지원대상’을 긍정적 이미지로 포괄하면, ‘부정’ 대 ‘긍정’의 비율은 1998년 54:37에서 1999년 37:52로 역전된다. 즉 포괄적 의미에서 1999년부터 북한에 대한 ‘긍정적’이미지가 ‘부정적’ 이미지를 앞지른 것으로 변화되었다. ‘경계’와 ‘적대’가 지배적인 냉전의식으로부터 ‘협력’과 ‘지원’의 탈냉전의식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진행해 오다 김대중 정부 들어 대북인식의 지형의 판세가 역전된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의 공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러한 지형도의 탈바꿈이 김대중 정부 시기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인식에서의 이러한 변화추세는 ‘북한의 변화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변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난 13년간 65.7%(93)→71.8%(94)→48.2%(95)→50.2%(98)→65.5%(99)→59.8%(03)→68.4%(05)→68.9(07)%로 변화하였다. 1995년도에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48%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1999년도에 60%대로, 2005년에 70%에 가깝게 높아졌다. 또 북한의 변화에 대해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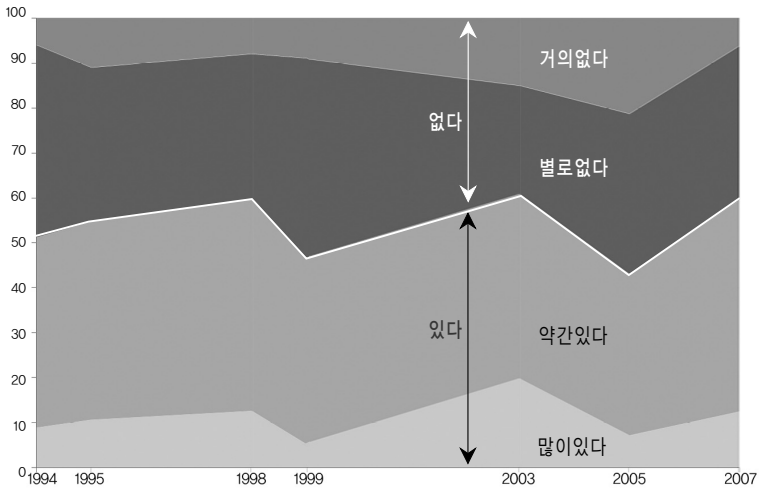
하고 있다”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을 대비시켜 보면, 1993년과 1995년 사이에 66:33→72:28→48:52로 급변하였다가 점차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져 2007년에는 69:31로 달라졌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995~98년까지 “변하고 있다”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50:50정도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가 1999년에 65:35로 역전되고, 2000년대 초반 60:40으로 낮아졌다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70:30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위기의식의 반복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은 낮을 때는 43~44%, 높을 때는 60%로 시기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변화는 아래의 그래프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식은 일관된 경향을 띠기보다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에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58%로 높게 보다가 1999년에는 44%로 낮게 평가했다. 그러다가 2003년에는 다시 60%로 높게 보았고 2005년에는 다시 43%로 낮아졌다. 그리고 2007년 7월에는 다시 60%로 높아졌다. 2007년 9월초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48%로 낮아졌다.

집작컨대, 이러한 등락의 배경에는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깔려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9년에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998년 말에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남북관계의 화해무드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2003년에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은 2002년 서해사태가 발생하여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빚어진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에는 6.15와 8.15를 계

기로 남북의 민·관이 함께하는 민족행사를 치르는 등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다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었던데 영향을 받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 2007년에 북한의 도발위기 의식이 높아진 것은 2006년에 실시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2007년 8월초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와 북미관계의 화해무드로 인해 다시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II-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이렇게 보면 북한에 의한 전쟁 위기의식은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일정한 스펙트럼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가 비교적 순탄하고 평화로울 때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40% 정도로 보고,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는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60%



정도로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채 남북간의 관계변화에 따라 등락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3. 대북인식 변화의 특징 및 배경

대북인식의 변화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 북한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은 탈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 북한을 ‘협력’이나 ‘지원’의 대상이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꾸준히 증가하여 70~80%로 높아진 반면, 북한의 무력도발과 같은 위기의식은 지난 14년 동안 40~60% 사이를 반복하는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균형적 대북인식은 국민들이 ‘북한’이라는 대상을 사회공동체와 정치적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공동체로서의 북한은 ‘협력’이나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변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정치집단으로서의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고 언제라도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위협적 실체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북인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배경으로 북한에 의한 전쟁가능성을 위기의식으로 갖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20대가 30대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더 많이 갖는 상황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1990년대에는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을 더 ‘긍정’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2000년대에는 20대가 30대에 비해 오히려 북한을 ‘부정’의 시각으로 바뀌었다. 또한 새로 유입되는 20대는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2000년대 들어 386세대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이른바 ‘20대의 보수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II-1 대북인식의 이중성과 세대별 인식변화

(단위: %)

구분	1995		1999		2005		2007	
	긍정인식	도발가능	긍정인식	도발가능	긍정인식	도발가능	긍정인식	도발가능
20대	47.7	54.8	56.8	49.5	67.1	53.2	78.5	66.6
30대	41.9	48.3	56.3	43.9	72.0	35.8	82.8	59.9
40대	31.1	54.1	54.5	34.7	67.5	40.0	78.4	54.4
50대	24.4	64.2	39.3	47.7	61.5	40.6	76.8	56.2
60대	16.1	50.0	43.8	40.1	53.6	45.8	65.9	61.2

셋째, 대북인식의 변화는 북한에 대한 인지도와 대북접촉 경험과 상당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북한에 대한 인지도와 대북활동 경험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인지도의 지표로 제시한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리랑축전 등 모든 북한관련 사항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경험과 대북지원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도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한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아리랑축전, 대북지원활동 경험은 역상관계가 있는데, 즉 북한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대북지원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관련 지식과 대북접촉 경험이 대북인식의 이중적 변화양상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대북인식은 통일 및 대북정책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전쟁촉발과 같은 위기의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 즉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하며, 통일이 5~10년이라는 머지않은 시기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의 미래에 대해서도 통일이 가져올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고, 통일 후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의 이슈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나 북한의 개혁·개방, 군사적 긴장해소, 미군철수 등 대북사안에 대해 시급하다고 평가한다.

다섯째, 대북인식은 미국 및 러시아에 대한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반미감정과 관련이 있고, 러시아에 대한 인식과는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협력대상이나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즉 대북인식은 반미감정과 상당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표 2-II-2 대북인식과 대미인식의 관계

(단위: %)

		대북인식					합계(N)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대미인식	협력대상	24.8	53.8	2.4	11.0	8.0	100(637)
	경쟁대상	21.3	56.3	5.7	10.3	6.5	100(263)
	경계대상	15.6	63.1	3.0	14.4	3.8	100(263)
	적대대상	17.1	62.9	2.9	14.3	2.9	100(35)
		$\chi^2=30.2, p<0.05$					

주변국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북한에 대한 선호도와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균관대 사회리서치센터가 조사한 자료와 비교하면 미국에 대한 선호도는 48.3%(03)→45.4%(04)→50.1%(05)→53.0%(07)로 증가한 반면,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29.1%(03)→30.9%(04)→29.9%(05)→23.8%(07)로 감소했다. 이는 대북인식이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친미-반북, 친북-반미 등 특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북한인식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물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을 협력 또는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크며, 반대로 한미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을 경계 또는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반면, 대북인식은 러시아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아주 흡사하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러시아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북한을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경계 또는 적대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대북인식은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태도와는 별 관련이 없다. 즉 국민들은 일본이나 중국을 대하는 태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북한을 인식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매우 유사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가까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II-3 대북인식과 대러인식의 관계

(단위: %)

		대북인식					합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대러인식	협력대상	19.8	61.5	2.2	10.3	6.2	100(273)
	경쟁대상	21.8	60.6	3.3	9.5	5.4	100(482)
	경계대상	22.7	52.9	3.4	13.8	7.3	100(384)
	적대대상	26.8	30.4	7.1	21.4	14.3	100(56)
		$\chi^2=33.7, p<0.01$					

여섯째, 대북인식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대북인식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요인들이 대부분 북한도발 가능성과는 반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비해,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북한의 대상인식과 북한에 의한 전쟁가능성 모두에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북한을 ‘긍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에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대북인식의 이중성을 해독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도 커지는 불

안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은 주변국의 협조를 확보함으로써 인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집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북인식은 우리 사회 내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사회정치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북인식은 광주민주화운동 및 남북정상회담과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4.19와 6월항쟁, 10월 유신과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5.16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광주민주화운동과 남북정상회담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을 ‘공정’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4.19와 6월항쟁, 10월 유신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답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북한을 ‘공정’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5.16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평가와 같은 요인과는 무관하며 문화적 보수-진보 성향과도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소결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여 년간 부정적 이미지가 감소되고 긍정적 이미지가 8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1999년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40~60% 사이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중적 대북인식의 배경에는 새로운 여론형성층으로 유입되고 있는 20대의 보수화와 북한관련 지식 및 대북접촉 경험이 관련을 갖고 있다. 대북인식은 또한 미국에 대한 인식과 반대의 관계로 변화하며 러시아와 유사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대북인식의 이중성은 통일과정에



서 주변국의 협조를 확보함으로써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국민들의 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대북인식으로 야기되는 이념갈등은 광주민주화운동 및 남북정상회담 등의 정치사회적 민주화 사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Ⅲ.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격차 : 그 실상과 극복 방안의 모색

통상 한국사회에서 사회갈등은 계층갈등, 세대갈등, 성역할 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을 지칭하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남남갈등이라는 용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남남갈등은 냉전체제 시기에 명백했던 남북한 간의 갈등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대미정책이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 칭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집단 간에 의견차이가 커서 의견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식격차’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북정책 모든 부분이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별로 인식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지점에서 남남갈등이 발생한다는 가설 하에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대북정책과 관련된 인식격차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또한 인식격차가 왜 남남갈등과 같은 사회갈등으로 확대되는지 분석한다. 둘째, 향후 남남갈등을 야기하지 않



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면서 통일 및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 본다.

1.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격차와 남남갈등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남북교류를 4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100’, ‘다소 도움이 된다=6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0’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주요 배경 변수를 포함시켜 중분류 분석(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MCA)을 해 보았다. 중분류 분석을 한 것은 각각의 배경변수가 남북교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표 2-III-1]을 통해 해당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주로 성, 교육수준, 지역, 정치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특정 대북정책이 통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 소득수준별로는 의견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통상 연령에 따라 인식 차이가 커서 종종 세대 갈등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지만, 대북정책이 통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점이 새롭다. 전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해당 정책이 통일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에 대한 의견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 계층갈등이나 세대갈등에서 남남갈등이 연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표 2-III-1 남북교류별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 MCA 분석

(변수)	(범주)	(명)	인도적 지원 (총평균=54.96)		사회문화 교류 (총평균=60.68)		남북한 경제협력 (총평균=62.93)		남북간 회담 (총평균=64.96)	
			총평균과의 편차 통제전 Eta	통제후 Beta	총평균과의 편차 통제전 Eta	통제후 Beta	총평균과의 편차 통제전 Eta	통제후 Beta	총평균과의 편차 통제전 Eta	통제후 Beta
성별	남자	(600)	3.50	3.11	2.96	2.46	2.44	1.83	3.15	2.55
	여자	(592)	-3.54 (.13)***	-3.15 (.11)	-3.00 (.12)***	-2.50 (.10)	-2.48 (.09)*	-1.86 (.07)	-3.19 (.12)***	-2.58 (.10)
연령별	19-29세	(301)	-1.35	-2.72	-1.85	-3.67	-0.16	-2.29	-3.06	-4.97
	30-39세	(310)	0.32	-0.59	1.39	0.49	0.17	-0.64	0.31	-0.55
	40-49세	(302)	0.79	0.45	1.71	1.65	1.18	1.29	2.26	2.13
	50세 이상	(279)	0.24 (.03)	3.10 (.08)	-1.40 (.06)	1.63 (.08)	-1.30 (.03)	1.80 (.06)	0.51 (.08)***	3.67 (.13)
교육 수준	중졸이하	(152)	-3.74	-3.22	-4.08	-3.65	-4.28	-4.04	-3.12	-4.31
	고졸이하	(504)	-0.94	-0.39	-1.73	-1.60	-2.59	-2.15	-1.74	-1.51
	대재이상	(536)	1.94 (.07)	1.28 (.05)	2.78 (.10)*	2.54 (.09)	3.65 (.13)**	3.17 (.11)	2.52 (.09)**	2.64 (.10)
가구 소득	200만미만	(278)	-2.44	-2.68	-2.38	-2.04	-2.64	-2.22	-2.85	-3.01
	200-299만	(368)	-1.04	-0.61	-1.24	-0.74	-1.97	-1.32	-0.92	-0.49
	300-399만	(294)	1.29	1.73	2.50	2.76	1.56	1.70	1.03	1.57
	400만이상	(252)	2.71 (.07)	1.84 (.07)	1.52 (.08)	0.12 (.07)	3.97 (.10)	2.38 (.07)	3.30 (.08)	2.21 (.08)
지역별	수도권	(583)	-0.64	-0.90	-0.85	-1.07	-0.74	-1.07	-1.50	-1.79
	중부권	(118)	-3.43	-2.74	-1.91	-1.27	-3.52	-2.69	-1.12	-0.37
	호남권	(119)	8.19	8.55	8.25	8.47	6.63	6.30	7.87	7.70
	영남권	(323)	-1.69	-1.78	-1.32	-1.31	-0.30	-0.02	-1.08	-0.95
	강원	(36)	9.97	11.82	7.87	9.15	5.68	6.99	15.61	17.17
	제주	(13)	-0.98 (.13)**	-1.59 (.13)	-9.36 (.13)**	-10.63 (.13)	-3.85 (.10)*	-4.07 (.10)	-11.10 (.16)***	-10.96 (.16)
정치 성향	진보	(300)	7.61	6.87	7.13	6.15	7.06	5.91	7.71	6.88
	중도	(567)	-1.64	-1.08	-2.28	-1.72	-3.46	-2.94	-3.82	-3.22
	보수	(325)	-4.17 (.17)***	-4.45 (.15)	-2.60 (.16)***	-2.67 (.14)	-0.48 (.16)***	-0.32 (.14)	-0.45 (.18)***	-0.73 (.16)

*** p<0.001, ** p<0.01, * p<0.05

한편,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변수라 할 수 있는 성, 교육



수준, 지역, 정치성향 각각의 영향력을 베타(Beta)값을 통해 비교하면 ‘정치성향 > 지역 > 성 > 교육수준’ 순으로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면에서 정치성향과 지역이 인식격차를 낳는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다.

성별로는 모든 측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제반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제반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성이나 교육수준 별로 대북정책에 대해 인식차이가 있으나, 성과 교육수준이 인식격차를 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 성과 교육수준별로 의견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해당 변수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남자가 여자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표 2-III-2] 참조). 다시 말하면 대북정책과 관련된 남남갈등이 성별 차이나 교육수준별 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표 2-III-2 성 및 교육수준별 북한에 대한 인지도 및 정치에 대한 관심도

(단위: %)

변수		선군정치		정치에 대한 관심		계
		안다	전혀 모른다	관심 있다	관심없다	
전체		46.2	53.8	40.0	60.0	100.0(1,200)
성	남자	59.5	40.5	48.3	51.7	100.0(603)
	여자	32.7	67.3	31.7	68.3	100.0(597)
교육수준	중학이하	26.3	73.7	31.6	68.4	100.0(152)
	고등	41.2	58.8	37.8	62.2	100.0(505)
	대학이상	56.8	43.2	44.1	55.9	100.0(537)

결국 정치성향이나 지역별 의견 차이에서 남남갈등의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성향 면에서 ‘진보’는 ‘중도’나 ‘보수’에 비해 모든 측면의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진보는 중도나 보수나 구분되는 의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도’와 ‘보수’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남북교류의 측면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에 있어 중도와 보수는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역전이 되어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진보 > 중도 > 보수’ 순으로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진보 > 중도 ≒ 보수’이며, 남북경제교류나 정기적 남북간 회담에 대해서는 ‘진보 > 보수 > 중도’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도’가 ‘보수’보다 특정 측면의 남북교류가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은 예상 밖의 조사결과이다. 이는 정치성향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은 진보와 보수의 중간이라기보다 보수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중도가 진보와 보수의 중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보수와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견해는 진보(64.7%) > 중도(56.5%) > 보수(48.9%) 순이지만, 북한을 ‘경계대상(진보=9.9%, 중도=12.9%, 보수=11.6%)’으로 보거나 ‘적대대상(진보=4.3%, 중도=7.4%, 보수=7.3%)’으로 보는 비율에 있어서는 중도와 보수가 매우 유사하다.

지역별로도 남북교류에 대해 매우 다른 의견을 보였다. 타 지역에 비해 ‘호남권’과 ‘강원도’에서 남북교류 각 측면 모두가 통일에 매우 긍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다. 다른 지역과 매우 큰 의견 차이를 보인다.

‘호남권’은 지난 10년 동안 대북정책을 주도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정책이 전반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높다 할 수 있다. 한편, 강원도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심스럽다. 표본 수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과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서 제반 분야의 남북교류의 활성화나 이를 통한 남북 긴장완화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강원도나 제주도를 제외하면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호남권과 비호남권 간에 인식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념적으로 진보, 중도, 보수로 3분되고, 지역별로는 몇 개의 권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대북정책과 관련된 인식을 분석해 보면 이념적으로는 ‘진보 : 중도+보수’로 양분되고 지역적으로는 ‘호남권 : 비호남권’식으로 양분되어 나타난다. 갈등은 대립 쌍이 명확한 경우에 첨예하게 드러난다. 대북정책이 남남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이상에서 분석한 것처럼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진보 대 비진보’, ‘호남권 대 비호남권’ 식으로 구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남남갈등 없는 대북정책 추진 가능성 모색

정치성향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는 앞에서 제시한 분야 이외에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인식격차가 존재한다. [표 2-III-3]은 정치성향 별로 의견이 크게 다른 대표적인 부분을 발췌해서 제시한 것이다. 북한 내부에 대한 평가(북한 변화정도,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대북지원수준, 정상회담 정례화의 시급성, 남한에서 미군철수의 시급성),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진보와 비진보(중도 및 보수) 사이에는 상당한 인식격차가 존재한다. 그동안 해당 부분에서 남남갈등이라 할 정도로 매우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졌었다.

표 2-III-3 정치성향별 대북정책에 대해 의견의 크게 다른 부분 (단위:%)

		진보	중도	보수
북한의 변화 정도	변하고 있다	75.2	66.9	66.1
	변하고 있지 않다	24.8	33.1	33.9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있다	54.5	60.0	64.2
	없다	45.5	39.8	35.8
	모름/무응답	0.0	0.2	0.0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도움이 된다	56.4	47.9	45.6
	도움이 되지 않는다	43.6	51.9	54.4
	모름/무응답	0.0	0.4	0.9
대북지원 수준	늘려야 한다	28.4	13.2	9.8
	현 수준 유지	41.3	48.8	40.7
	줄여야 한다	30.4	38.0	49.5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만족	40.6	29.2	22.0
	불만족	58.7	70.8	78.0
	모름/무응답	0.7	0.0	0.0

그렇다면 남남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대북정책이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직접적인 대북정책은 아니지만,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정치성향별로 의견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북한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나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이념체제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북한의 민주성을 1점(매우 비민주적)에서 10점(매우 민주적)사이에서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전체 평균이 2.41인데, 진보(2.46), 중도(2.49), 보수(2.24)로 나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북한 체제의 대한 공유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³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이념체제에 대해서도 [표 2-III-4]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성향별로 차이가 없다.

표 2-III-4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이념체제

(단위: %)

	진보	중도	보수
민주주의	70.1	72.4	75.2
사회주의	3.1	1.5	1.3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절충형	24.5	22.8	20.0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2.4	3.3	3.5
계	100.0 (294)	100.0 (540)	100.0 (315)

나아가 현실적인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치성향간에 의견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다. [표 2-III-5]는 대북정책별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표 2-III-1]과 같은 방식으로 중분류 분석을 한 것이다. [표 2-III-5] 역시 [표 2-III-1]와 전체적인 경향에서 비슷하지만, 정치성향에 국한시켜보면 [표 2-III-1]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난다.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 문제 등에 있어서는 진보가 중도나 보수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북한의 개방, 개혁이 시급성이나 군사적 긴장 해소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매우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비록 [표 2-III-3]에 나타나 있듯이 ‘북한이 변화정도’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에 큰 의견격차가 존재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변화(개방과 개혁)해야 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남북한 무력충돌의 위험성 해소)되어야 한다

3- 흥미롭게도 남한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체(6.91)인데 진보(6.81), 중도(6.93), 보수(6.97)로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유사한 평가를 하였다.

는 점에는 의견일치는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개방, 개혁이나 군사적 긴장 해소,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의견 등은 모두 통일을 이루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과제들이다. 정치성향이 보수건 진보이건 앞으로의 대북 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역으로 진보와 비진보 간에 의식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과거 이루어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부분이다. 향후 대북지원수준에 대해 진보와 비진보 간에 의견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느냐 아니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평가의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2-III-5 통일에 이루기 위해 시급한 사항 : MCA 분석

			정사회담 정례화 (총평균=60.18)		북한의 개방 개혁 (총평균=68.66)		군사적 긴장 해소 (총평균=72.19)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총평균=39.86)		이산가족 국군포로 해결 (총평균=70.85)	
(변수)	(범주)	(명)	총평균과 편차 통제전 통제후 Eta Beta	총평균과 편차 통제전 통제후 Eta Beta	총평균과 편차 통제전 통제후 Eta Beta	총평균과 편차 통제전 통제후 Eta Beta	총평균과 편차 통제전 통제후 Eta Beta	총평균과 편차 통제전 통제후 Eta Beta	총평균과 편차 통제전 통제후 Eta Beta	총평균과 편차 통제전 통제후 Eta Beta	총평균과 편차 통제전 통제후 Eta Beta	
성별	남자	(599)	2.46	2.04	3.75	3.35	2.77	2.24	-1.37	-1.95	2.28	1.90
	여자	(592)	-2.49	-2.07	-3.79	-3.39	-2.81	-2.27	1.39	1.97	-2.31	-1.92
			(.10)**	(.08)	(.15)***	(.13)	(.10)**	(.08)	(.05)*	(.07)	(.09)**	(.07)
연령별	19-29세	(301)	-3.51	-5.24	-1.10	-3.60	0.69	-2.11	3.26	3.04	-0.40	-1.56
	30-39세	(310)	1.19	0.46	0.27	-0.44	1.05	0.25	3.08	2.17	-0.41	-0.90
	40-49세	(302)	2.38	2.57	2.10	2.76	-0.21	0.59	-0.53	-1.02	2.12	2.56
	50세 이상	(278)	-0.11	2.36	-1.39	1.39	-1.69	1.36	-6.36	-4.59	-1.41	-0.08
			(.09)***	(.13)	(.06)*	(.10)	(.04)	(.05)	(.14)*	(.11)	(.05)	(.06)
교육 수준	중졸이하	(151)	-1.66	-2.59	-3.32	-2.83	-3.76	-3.05	-7.14	-3.05	-1.65	-1.39
	고졸이하	(504)	-1.87	-2.08	-3.18	-3.21	-3.92	-3.84	0.19	1.10	-1.57	-1.55
	대재이상	(536)	2.23	2.69	3.92	3.81	4.76	4.48	1.85	-0.17	1.94	1.85
			(.08)*	(.10)	(.14)***	(.14)	(.16)***	(.15)	(.10)	(.05)	(.07)	(.07)
가구 소득	200만미만	(277)	-1.93	-1.99	-2.35	-1.72	-2.63	-1.46	-0.25	1.46	-0.32	0.12
	200-299만	(368)	-0.06	0.46	-0.27	0.41	0.56	1.12	0.03	0.25	0.16	0.93
	300-399만	(294)	1.13	1.54	-1.42	-1.24	-1.31	-1.33	2.24	1.86	-1.22	-1.25
	400만이상	(252)	0.91	-0.26	4.63	2.75	3.62	1.53	-2.38	-4.14	1.54	-0.03
			(.05)	(.05)	(.10)	(.07)	(.08)	(.05)	(.06)	(.08)	(.04)	(.03)
지역별	수도권	(582)	-1.03	-1.13	0.59	0.33	1.24	1.04	1.00	1.13	-0.05	0.04
	중부권	(118)	-0.04	0.34	1.96	2.39	-1.55	-1.10	-3.66	-3.06	0.24	0.45
	호남권	(119)	8.98	9.02	7.26	6.97	1.50	1.08	9.20	9.67	10.01	9.62
	영남권	(323)	-2.31	-2.31	-4.67	-4.20	-2.73	-2.29	-4.21	-4.88	-2.53	-2.58
	강원	(36)	10.18	10.69	4.50	4.12	7.47	6.85	3.69	5.19	-8.91	-9.17
	제주	(13)	-6.36	-7.21	-7.11	-7.02	-8.07	-8.39	-1.37	-4.27	-4.28	-4.57
			(.15)***	(.15)	(.14)***	(.13)	(.09)	(.08)	(.14)***	(.16)	(.15)***	(.15)
정치 성향	진보	(300)	5.68	4.97	3.24	2.10	4.27	3.23	9.84	9.92	4.95	4.17
	중도	(566)	-2.18	-1.64	-1.17	-0.48	-1.75	-1.31	-2.02	-2.31	-2.05	-1.52
	보수	(325)	-1.44	-1.74	-0.96	-1.10	-0.89	-0.70	-5.56	-5.13	-0.99	-1.19
			(.13)***	(.12)	(.08)	(.05)	(.09)	(.07)	(.21)***	(.21)	(.11)**	(.09)

*** p<0.001, ** p<0.01, *p<0.05

그리고 찬성, 반대와 같이 2개로 구분할 수 있는 의견 중에서 모든

집단에서 70%이상이 한쪽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 정치성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견차이로 분석된다 할지라도 인식격차로 해석하기 곤란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예 중에서 ‘이산가족 및 군군포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이에 해당한다.⁴ 비록 통계적으로 정치성향 뿐만 아니라 성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각 하위 집단에서 이산가족 및 군군포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70%를 넘는다.⁵ 그런 부분에서는 남남갈등이 강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표 2-Ⅲ-6]은 국민적 공감대(모든 집단에서 70%이상이 동일한 의견 제시)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 중 통일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들은 김정일 정권이 통일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한다(매우+다소)’는 대답은 매우 적은 반면, 모든 하위범주에서 70%이상이 ‘원하지 않는다(별로+전혀)’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는 의견은 적고 모든 하위집단에서 ‘필요하다(매우+약간)’는 의견이 70%를 넘었다. 남북통일이 남북한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통일정책의 상대자로서 김정일 정권은 미답지 못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변국가와의 협조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4. ‘군사적 긴장 해소’나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정치성향별로 차이가 없었던 분야이며, 동시에 모든 하위집단에서 70%이상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야이다.

5. 지역 중에서 강원(61.1%)과 제주(69.2%)에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70%를 밑돌지만 표본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표 2-III-6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
(단위: %)

		진보	중도	보수
김정일 정권의 통일 원하는 정도	원한다	20.8	10.9	9.5
	원하지 않는다	79.2	89.1	90.5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정도	필요하다	81.5	82.7	82.9
	필요하지 않다	18.5	17.3	17.1
대북정책에 국민의사 반영정도	잘 반영하고 있다	23.8	15.7	17.8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75.9	84.2	82.6
	모름/무응답	0.3	0.2	0.0

남남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적인 원인은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2-III-6]에 나와 있듯이 진보(23.8%)가 보수(17.8%)나 중도(15.7%)보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사를 반영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진보조차도 75.9%가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대북정책 결정에 국민의견이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점이다([표 2-III-7] 참조). 국민들은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점점 소홀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북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여론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남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해 본다.

표 2-III-7 대북정책 결정에 국민의견 반영정도

(단위: %)

	2003년	2005년	2007년
매우 잘 반영 하고 있다	6.0	6.1	0.5
대체로 잘 반영 하고 있다	38.5	33.2	17.8
별로 잘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41.4	47.4	66.9
전혀 잘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10.4	13.3	14.7
모름/ 무응답	3.3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0)

자료: 통일연구원(2003, 2005). 단, 대북정책 대신 통일정책

3. 소결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에는 인식격차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의견차이가 큰 부분이 많다. 하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차이가 남남갈등으로 확대되는 데는 정치적 중도 성향 집단이 진보와 보수의 중간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기보다 보수와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진보 대 비진보’ 형태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대북정책에 대해 지역별로 의견차이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호남권 대 비호남권’ 형태로 구분되었다.

중도가 진보와 보수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못한다면 남남갈등 없는 대북정책은 불가능한가? 이같은 진보와 보수가 대북정책의 여러 측면에서 의견이 크게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의견이 다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였다.

진보와 비진보는 현재 또는 과거에 이루어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나 평가를 달리하지만, 통일과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인 전망이나 정



책에 대해서는 유사한 의견을 갖고 있다. 북한체제의 개방과 개혁의 시급성, 남북한 군사적 긴장해소의 시급성 등에 있어서는 보수, 중도, 진보 간에 명확한 의견차이가 없다. 나아가 통일 한국의 이념체제에 대해서도 큰 의견차이가 없었다. 또한 통계적으로는 의견차이가 있지만,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 김정일 정권이 실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통일에는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정치성향별로 의견차이가 없거나 있더라도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을 고려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되는 남남갈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결국 남남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지난 몇 년의 조사에서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급증한 점이다. 모든 하위집단에서 70%이상이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그렇다면 남남갈등 없는 대북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부터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V. 북한 인식과 새터민 인식의 상호작용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새터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새터민 정책은 법률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보호’와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토대를 지원하는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적 성격 때문에 새터민 정책이 반드시 통일 정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표 2-IV-1]에서 보이듯, 우리 사회에는 현재 1만여 명이 넘는 새터민이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 새터민이 갖는 사회적 정체성이나 위상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새터민은 귀화한 남한인인가, 아니면 외국인 이주자인가, 아니면 거주지만 바뀐 북한 주민일 뿐인가?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정부의 새터민 정책은 비록 새터민이 이질적인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일정 정도의 기능적인



기여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통일 또는 통합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새터민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표 2-IV-1 새터민 입국 현황 (2007년 7월 현재)

(단위: 명)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5	합계
남	564	32	235	564	514	468	625	422	510	221	4,155
여	43	2	71	479	625	813	1,269	961	1,509	778	6,550
합계	607	34	306	1,043	1,139	1,281	1,894	1,383	2,019	999	10,705

출처: 통일부

제1부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일의식조사 결과 새터민에 대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상당히 배타적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새터민은 같은 민족으로 포용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정서는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상대자로서 새터민과 사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일반적으로 공적인 관계에서는 새터민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사적인 관계에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중성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새터민에 대한 우리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어떤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일까? 새터민에 대한 인식은 동포애, 민족적 감정, 선입견, 편견, 몰이해, 낯섬, 이질감, 이데올로기 등의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형성된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새터민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통일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북한 인식과 새터민 인식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본다.

1. 대북 인식과 새터민 인식

우리 국민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생각할수록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2-IV-2]에서 보이듯,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탈북자를 친근하게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22.4%인 반면, ‘경쟁대상’이나 ‘적대대상’, ‘경계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순서대로 0.8%, 2.0%, 3.5%에 그쳤다. 따라서 남북한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새터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IV-2 대북 인식과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단위: %, 명)

대북 인식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N
	친근하게 느낀다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지원대상	7.5	14.4	-	262
협력대상	22.4	33.9	0.3	679
경쟁대상	0.8	2.5	-	39
경계대상	3.5	8.4	-	141
적대대상	2.0	4.6	-	79

$\chi^2 = 27.066 \quad p < 0.05$

한편, 대북 인식에 따라 새터민의 사회적 기능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진다. [표 2-IV-3]을 보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새터민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경쟁대상’, ‘적대대상’, ‘경계대



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앞의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순서대로 1.5%, 2.9%, 4.9%에 그쳤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남한 사회에서 새터민의 사회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에 북한과 남한이 경쟁적·적대적·경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새터민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2-IV-3 대북 인식과 새터민의 사회적 기능

(단위: %, 명)

대북 인식	새터민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N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지원대상	12.4	9.5	262
협력대상	32.3	24.3	679
경쟁대상	1.5	1.8	39
경계대상	4.9	7.0	141
적대대상	2.9	3.8	79

$\chi^2 = 40.635 \quad p < 0.001$

또한 대북 인식은 우리 정부의 새터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래의 [표 2-IV-4]에서 보이듯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우에 우리 정부가 '새터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북한을 '경쟁대상', '적대대상',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앞의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순서대로 1.4%, 3.3%, 4.7%에 그쳤다. 이 결과를 종합했을 때, 새터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IV-4 대북 인식과 새터민 정책

(단위: %, 명)

대북 인식	정부는 새터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N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지원대상	12.9	9.0	262
협력대상	36.9	19.7	679
경쟁대상	1.4	1.9	39
경계대상	4.7	7.1	141
적대대상	3.3	3.3	79

$\chi^2 = 55.396 \quad p < 0.001$

2. 북한사회 인지도와 새터민 인식

북한사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많을수록 새터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요한 용어인 ‘선군정치’와 ‘고난의 행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북한사회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새터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교차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북한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새터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표 2-IV-5]를 보면, 북한의 ‘선군정치’와 ‘고난의 행군’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경우와 ‘전혀 모른다’는 경우에 비해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률과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률 간의 격차가 작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선군정치’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8.7%이고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2.2%로 두 응답률 간의 격차는 약 4% 정도이다. 반면에, ‘선군정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낀다’ 17.4%,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36.3%로 두 응답률 간의 격차는 약19%로 크게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행군’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낀다’ 8.7%,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11.0%로 두 응답률 간의 격차는 약3%이다. 반면에 ‘고난의 행군’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낀다’ 16.7%,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36.9%로 두 응답률 간의 격차는 약20%로 크게 벌어졌다.

표 2-IV-5 북한사회 인지도와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단위: %, 명)

선군정치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N
	친근하게 느낀다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안다	8.7	12.2	-	251
들어본 적이 있다	9.9	15.3	0.1	303
전혀 모른다	17.4	36.3	0.2	646
$\chi^2 = 26.097 \quad p < 0.05$				
고난의 행군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N
	친근하게 느낀다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안다	8.7	11.0	-	235
들어본 적이 있다	10.5	16.0	0.1	318
전혀 모른다	16.7	36.9	0.2	646
$\chi^2 = 29.500 \quad p < 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북한사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도 그 만큼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새터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사회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식이나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사회에 대한 인지도는 새터민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제1부 제IV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새터민과의 관계 유형에서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경우에 가장 거부감이 컸다. 하지만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아지면 새터민이 자신의 결혼상대자인 경우에 그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 2-IV-6]에서 나타나듯, 북한사회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록 결혼상대자로서 새터민에 대해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것에 대해 ‘꺼림’ 7.4%, ‘꺼리지 않음’ 7.4%로 응답률이 같았다. 반면에 ‘선군정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것에 대해 ‘꺼림’ 29.5%, ‘꺼리지 않음’ 11.5%로 두 응답 간의 격차가 18%로 크게 벌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고난의 행군’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것에 대해 ‘꺼림’ 9.5%, ‘꺼리지 않음’ 9.3%로 두 응답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것에 대해 ‘꺼림’ 20.5%, ‘꺼리지 않음’ 8.7%로 두 응답 간에 격차가 약 12%로 크게 벌어졌다.



표 2-IV-6 북한사회 인지도와 새터민과의 관계 태도

(단위: %, 명)

선군정치	결혼상대자로서 새터민과의 관계 맺기			N
	꺼림	그저 그렇다	꺼리지 않음	
안다	7.4	6.1	7.4	235
들어본 적이 있다	10.8	6.5	7.9	318
전혀 모른다	29.5	12.8	11.5	646
$\chi^2 = 55.480 \quad p < 0.001$				
고난의 행군	결혼상대자로서 새터민과의 관계 맺기			N
	꺼림	그저 그렇다	꺼리지 않음	
안다	9.5	7.3	9.3	313
들어본 적이 있다	17.9	8.4	8.9	422
전혀 모른다	20.5	9.7	8.7	465
$\chi^2 = 51.697 \quad p < 0.001$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의 제고는 새터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선입견이나 편견, 거부감 등을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새터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3. 북한관련 경험 유무와 새터민 인식

북한과 관련된 경험 역시 새터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과 관련된 경험은 대체로 평양, 금강산, 개성공단 등과 같이 북한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것, 새터민을 만나보는 것, 북한 방송이나 영화, 문헌 등을 접해보는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북한관련 경험의 유무가 새터민에 대한 인식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북한관련 경험이 있는 경우에 새터민에 대한 좀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IV-7]에서 나타나듯, 북한지역의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낀다’ 1.4%,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3.2%로 두 응답 간의 격차는 약2%인 반면에, 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낀다’ 34.6%,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60.6%로 두 응답 간의 격차는 26%로 벌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터민을 만나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낀다’ 4.5%,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4.5%로 두 응답률 간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새터민을 만나 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낀다’ 31.5%,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59.3%로 두 응답 간에는 약 28%의 격차가 생겼다.

또 북한의 대중매체나 문헌 등을 접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낀다’ 14.6%,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26.1%로 두 응답 간의 격차는 약 12%였다. 반면에 북한 매체나 문헌을 접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새터민을 ‘친근하게 느낀다’ 21.5%,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37.7%로 두 응답 간에는 약 16%로 벌어졌다.

이상의 분석 결과, 여러 경로를 통한 북한관련 경험은 새터민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새터민으로부터 느끼는 거리감을 좁히고 새터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표 2-IV-7 북한관련 경험 유무와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단위: %, 명)

평양, 금강산, 개성공단 방문 경험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N
	친근하게 느낀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있다	1.4	3.2	-	54
없다	34.6	60.6	0.3	1,146
$\chi^2=404.234$ $p<0.001$				
새터민과 만나 본 경험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N
	친근하게 느낀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있다	4.5	4.5	-	107
없다	31.5	59.3	0.3	1,093
$\chi^2=414.427$ $p<0.001$				
북한 방송, 영화, 문헌 등을 접해 본 경험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N
	친근하게 느낀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있다	14.6	26.1	0.2	490
없다	21.5	37.7	0.1	710
$\chi^2=415.426$ $p<0.001$				

또한 북한관련 경험은 새터민과의 관계 태도와도 상호작용을 한다. 아래의 [표 2-IV-8]에서 보이듯, 북한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것을 ‘꺼림’ 2.5%, ‘꺼리지 않음’ 0.9%로 두 응답 간에 약 1.6%의 격차가 발생하지만, 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것을 ‘꺼림’ 45.1%, ‘꺼리지 않음’ 26.0%로 두 응답 간에 약 19%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터민을 만나 본 적이 있는 경우에는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것을 ‘꺼림’ 3.7%, ‘꺼리지 않음’ 3.1%로 두 응답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새터민을 만나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것을 ‘꺼림’ 43.8%, ‘꺼리지 않음’ 23.7%로 두 응답 간의 격차는 약20%로 크게 벌어졌다.

또 북한 대중매체나 문헌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것에 ‘꺼림’ 17.5%, ‘꺼리지 않음’ 12.6%로 두 응답 간에는 약 5%의 격차가 있었으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새터민이 결혼상대자인 것에 ‘꺼림’ 30.3%, ‘꺼리지 않음’ 14.3%로 두 응답 간의 격차가 약16%로 벌어졌다.

이상의 결과들은 북한관련 경험의 유무 차이가 새터민과의 관계 맺기에서의 태도를 결정짓는데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새터민에 대한 이질감이나 편견 등이 줄어들어 사적인 친밀한 관계 맺기에서 거부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터민이 남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하고 또 남한 사람들이 새터민과 관계를 맺는데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경험들을 자주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IV-8 북한관련 경험 유무와 새터민과의 관계 태도

(단위: %, 명)

평양, 금강산, 개성공단 방문 경험	결혼상대자로서 새터민과의 관계 맺기			N
	꺼림	그저 그렇다	꺼리지 않음	
있다	2.5	1.1	0.9	54
없다	45.1	24.3	26.0	1,146
$\chi^2 = 17.296 \quad p < 0.05$				
새터민과 만나 본 경험	결혼상대자로서 새터민과의 관계 맺기			N
	꺼림	그저 그렇다	꺼리지 않음	
있다	3.7	2.0	3.1	107
없다	43.8	23.4	23.7	1,093
$\chi^2 = 18.829 \quad p < 0.05$				
북한 방송, 영화, 문헌 등을 접해 본 경험	결혼상대자로서 새터민과의 관계 맺기			N
	꺼림	그저 그렇다	꺼리지 않음	
있다	17.5	10.8	12.6	490
없다	30.3	14.7	14.3	710
$\chi^2 = 11.893 \quad p < 0.05$				

4. 소결

이상의 조사 분석 결과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거나 북한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새터민에 대한 호감도 또는 포용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을 경쟁이나 경계, 적대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볼 때 새터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북한에 대한 지식과 정보, 경험적 기회 등의 제공을 더욱 확대하고 남북한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새터민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인식

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새터민은 60여년동안 이질적인 제도와 문화에서 살아온 남과 북의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성에 대한 경험적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적응과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적 자료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새터민에 대한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은 정치적 또는 제도적 통일 이후에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새터민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일독일이 그러했듯이, 남한인과 북한인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적이고 차등적인 의식은 ‘완전한’ 통일의 달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사회가 올바른 접근과 정책을 통해서 새터민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로 정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통일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 갖는 사회적 역할과 위상은 중요하다.



V. 주변국과의 인식

1. 강한 민족주의와 북한·미국에 대한 태도

이번 『2007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을 때 응답자들의 50%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 다음은 “남북한의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19.3%),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분단 후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있고, 남북이 다른 체제 하에서 각자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사고와 이념이 많이 달라졌지만, 남북통일에 관한한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은 남한에게 늘 걸림돌과 같은 존재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아직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에게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은 한국인들에게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그래서 한국인은 한반도의 평화에 가

장 위협적인 대상으로 북한을 제일 많이 꼽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6%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북한을 꼽았고, 그 다음이 일본(25.8%), 미국(2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축구시합을 하는 경우 어느 팀을 응원하겠냐는 질문에서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을 한 비율을 훨씬 앞지른다.

북한과 미국이 월드컵에서 대결한다면 어느 팀을 응원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1%는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대답하고 있다.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은 4%에 불과하다. 나머지 응답자 가운데 6.1%는 양팀을 모두 응원하겠다고 대답하고 있고, 8.9%는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약간은 시니컬한 응답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응답자의 4/5가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태도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제일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를 꼽은 것 이상으로 “같은 민족”에 대한 강한 집착의식을 드러낸다. 이처럼 한국사회에는 아직도 강한 민족, 민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 민족이 우선이라는 의식이 한국사회에 강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축구경기에서 어느 팀을 응원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이념적 성향 등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사회 전반적으로 강한 민족주의가 자리잡고 있고, 특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민족주의적인 의식에 대해 여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별로 표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수도권, 충청, 영남지역에서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모두 80% 정도이다. 그런데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에서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90%를 넘고 있다. 북한과 미국 둘 중 어느 팀을 고르기 곤란하거나 특별히 어느 팀을 더 선호하지 않아서 양팀 모두 응원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수도권 9.2%, 충청지역 11%, 영남지역 8.7% 등으로 8-11%에 이른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는 북한이나 미국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로 매우 적다.

강한 민족의식의 존재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축구시합을 한다고 가정할 때 강한 민족의식은 미국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 태도와 결합되어 특히 호남지역에서 더욱 강한 민족주의적인 색채로 나타난다. 호남지역이 특별히 강한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미국과의 축구시합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V-1 지역별 북·미 축구시합시 응원 국가

(단위: %)

변수		북한	미국	양팀 모두 응원	어느 팀도 응원 안함	N
지역	수도권	79.3	3.9	7.6	9.2	589
	충청	82.2	3.4	3.4	11.0	118
	호남	90.8	2.5	2.5	4.2	119
	영남	80.8	4.6	5.9	8.7	323
	강원	80.6	8.3	2.8	8.3	36
	제주	66.7	0.0	8.3	25.0	12
전체		81.0	4.0	6.1	8.9	1197

이처럼 민족주의와 미국에 대한 태도가 결합되어 지역적으로 편차를 나타내는 현상을 우리는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쟁점의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해방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과의 관계와 공조를 계

속 굳건하게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번 『2007통일외식조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질문했었다.

이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8.3%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고, 17.6%는 “한미공조”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4.1%는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다. 표면적으로 응답자들은 일단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온 한미공조도 여전히 중요하면서도 남북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남북관계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에 따라 응답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중등이하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들은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데 54%가 응답을 한 반면 “남북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한 비율은 27%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들은 43%가 “남북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도 “남북관계의 개선” 아니면 “한미공조의 유지”인가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존재한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47%가 “남북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고, 35%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가 둘 다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보수적인 태도를 지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2%가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28.6%만이 “남북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인”가 아니면 “한미공조”인가 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서 교육수준별, 이념적 성향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매우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 따라서도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표 2-V-2 지역별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에 대한 태도 (단위: %)

변수		남북관계 개선	한미공조	똑같이 중요	N
지역	수도권	37.8	17.2	45.0	587
	충청	39.8	22.0	38.1	118
	호남	45.4	16.8	37.8	119
	영남	34.7	17.3	48.0	323
	강원	61.1	16.7	22.2	36
	제주	7.7	15.4	76.9	13
전체		38.3	17.6	44.1	1196

호남지역에서는 응답자의 45.4%가 “남북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37.8%가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에 영남지역에서는 응답자의 34.7%가 “남북관계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48%의 응답자는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미공조”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호남지역이 16.8%, 영남지역이 17.3%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한미공조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함께 중요한지를 선택하는데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차이인 약 10%의 차이가 호남지역은 남북관계 개선에 더 주어지고 있고, 영남지역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는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2. 가깝게 느끼는 나라와 위협적으로 느끼는 나라의 일치와 불일치

가깝게 느끼는 나라의 반대는 멀게 느끼는 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2007통일외식조사』에서는 가깝게 느끼는 나라와 멀게 느끼는 나라를 함께 물어보지는 않았다. 대신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물어보았다. 이 두 질문의 응답을 교차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표 2-V-3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

(단위: %)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						N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미국	11.7	24.3	46.5	16.4	1.1	633
	일본	33.3	13.0	38.4	14.5	0.7	138
	북한	29.5	34.7	16.8	17.2	1.8	285
	중국	36.4	27.3	26.5	7.4	2.5	121
	러시아	36.4	18.2	27.3	18.2	0.0	11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순으로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를 응답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는 북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가장 멀게 느끼는 나라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나라를 동일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두 질문에 대한 응답 국가가 일치하는 경우는 재미있는 사례로 생각할 수 있다.

[표 2-V-3]을 보면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도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 가운데 11.7%를 차지하고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도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0%이다.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지만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은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 가운데 1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 다면서도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은 7.4%에 불과하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한미공조의 유지 등의 쟁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의 현상 속에서 미국과 북한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이분법적인 상황에 놓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동일한 국가를 지목한 경우가 미국과 일본을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각각 10%를 넘는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은 이분법적으로만 사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 편 [표 2-V-2]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사람들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46.5%가 북한을 꼽고 있다. 그 다음이 일본(24.3%), 중국(16.4%)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을 가장 많이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보다 일본을 더 많이 지목하고 있다.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일본을 지목한 응답자가 34.7%이고, 미국은 그 뒤를 이은 29.5%이다. 그 다음은 중국으로 17.2%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북한을 꼽고 있고(38.4%), 그 다음이 미국(33.3%)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14.5%의 응답자가 지목하고 있다.

[표 2-V-3]이 보여주는 것은 한 국가를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도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미국과의 관계가 긴장상태로 인식되면서 미국 아니면 북한을 선택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분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의 일반 국민들은 아직 그와 같은 이분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만은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3. 이념적 성향과 가깝게 느끼는 나라 및 위협적으로 느끼는 나라의 관계

응답자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를 선택해야 했을 때 선택지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선택할 때도 동일하게 5개국이 주어졌다. 따라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및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교차시키면 경우의 수는 $5 \times 5 = 25$ 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즉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도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경우,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도 일본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경우 등등 25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런 경우의 수에 모든 응답자가 분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 소절에서는 좀더 유의미한 경우를 골라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이러한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 [표 2-V-4]는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좋아하는 나라 및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가운데 30%는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반면에 북한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보수적인 응답자 가운데 북한을 가깝게 느끼고 반면에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경우는 5.8%에 불과하다.

다른 한 편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 가운데는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반면에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16.2%이다.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을 가깝게 느끼고 오히려 미국을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11.2%에 달한다. 또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도 10.6%에 달한다.

한국사회에서 자기 자신들을 소위 보수와 진보로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 북한, 일본 등에 대한 태도에서 소위 진보와 보수의 의미가 유의미하게 구분되곤 한다.

표 2-V-4 이념적인 성향과 좋아하는 나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

(단위: %)

좋아하는 나라: 위협적인 나라	진보	중도	보수
미국: 북한	16.2	25.5	30.3
미국: 일본	12.2	12.5	14.1
미국: 중국	7.6	9.2	8.9
북한: 미국	11.2	5.3	5.8
북한: 일본	10.6	7.7	7.0
북한: 중국	5.3	3.4	4.3
일본: 북한	3.0	6.5	2.1
일본: 미국	5.6	3.2	3.4
일본: 중국	1.0	1.9	1.8
좋아하는 나라와 위협적인 나라가 동일	13.2	12.1	12.2
기타	14.3	12.7	10.1
N	303	568	327

[표 2-V-4]에서도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은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꼽고, 반면에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다음은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선택하면서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이들 가운데 북한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꼽으면서 미국을 한반도 평화의 위협으로 인식하거나 일본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선택하는 경우는 소수이다.

다른 한 편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 가운데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 미국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경우로 꼽은 경우는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 가운데 11.2%에 불과하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 북한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꼽은



경우가 16.2%로 가장 높다. 그러나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는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 일본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도 11.2%나 되고,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 일본을 가장 위협적인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도 10.6%나 된다. 소위 자기 자신을 진보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가깝게 느끼는 나라와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로 인식하는 나라의 짝이 매우 다양한 것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는 북한,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존재는 미국 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매우 다양한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었다.

반면에 자신을 한국사회에서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는 북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위의 표에서 기타로 분류된 범주에 진보적인 사람은 14.3%가 해당하고 반면에 보수적인 사람은 10.1%만이 해당되는 데에서도 미약하나마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보, 중도, 보수라는 스스로의 평가에 관계없이 한 국가를 가깝게 느끼면서도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거의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4. 소결

이 절에서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관해 몇 가지 점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중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에 관한 한 한국인들은 여전히 민족주의적 지향이 강하다.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같은 민족이니까”이다.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든지, 남북한이 합쳐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라든지 하는 이유보다도 여전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

이라는 이유가 강하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정서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태도에도 투사된다.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는 미국, 북한, 일본 등으로 다를 수 있다.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로는 북한이 제일 많이 꼽히고, 일본, 미국 등이 등장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촉구시합을 한다면, 미국을 가깝게 느끼고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되어도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이는 한국인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통일과 북한을 생각하는 것 같아도, 막상 민족주의가 동원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느 무엇보다도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좋아하는 나라와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다. 좋아하는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이념적인 성향에서 보수, 중도, 진보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나라가 곧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되기도 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가 의외로 많다. 즉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면서도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한편, 북한이 가장 가깝지만,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에는 위협적인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좋아하는 나라와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를 짝을 지은 후 이념적 성향과 결부시켜 분석해 보면,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나라가 미국,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가 북한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다. 그만큼 미국과 북한을 이분법적으로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들의 머리 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좋아하는 나라와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가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는 등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스스로 진보, 보수 혹은 중도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되문게 하고 있다.

2007
통일의식조사

결론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IUS



2007 통일의식조사 결과 우리 국민 대다수는 민족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정치적 성향 등 배경변수에 따라 다소간의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지향은 모두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다만, 20대 이하의 연령집단에서 분단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져 있는 현상은 앞으로 그들이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러 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특이한 점은 통일에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이 압도적으로 민족의 재통합이라는 당위성에 맞추어져 있으며, 현실적 이익의 기대와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통일이 전체 사회에나 자기 자신에게 이익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고 의식하고 있고 또 통일이후 각종 사회문제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에서는 ‘북한’이라는 대상을 사회영역과 정치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다수의 국민이 북한을 협력대상이나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고, 또 현재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동시에 대부분의 국민이 북한을 비민주적인 체제라고 보고 있으며 김정일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이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협력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인 불신과 비판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 간 이질성과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남북한 간에 정치적 측면(법률과 선거)과 경제

(생활수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 언어와 풍습 면에서도 남북한 간의 이질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막연한 민족동질성에 대한 기대는 상당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에는 대립적인 견해가 뚜렷하게 발견된다.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없다는 입장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과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이, 북한이 남한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과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도 대립하고 있다. 이 결과는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20대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과 부정적 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어 386세대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이른바 ‘20대의 보수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북인식은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친미-반북, 친북-반미 등 특히 미국과의 대쌍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식은 미국에 대한 태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한미 동맹과 민족공조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쟁에서도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말해준다.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을 살펴보면,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용적으로 순서를 매긴다면 국민은 ‘정치교류 > 경제교류 > 사회·문화교류 > 인도적 지원’ 순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통일을 이루



는데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이산가족 및 국군문제 해결, 북한의 개혁 개방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대해서 앞에 제시된 사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또 사회일각에서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통일과 관련해서 그다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 우리 국민은 현재수준 이상의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이 달성되려면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 교류가 정치·군사교류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산가족상봉이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협력 강화나 사회문화교류 확대에 이르기까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국 간 회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적 지원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대북지원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북지원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보수적 성향이나 중도적 성향보다 진보적 성향이, 지역적으로는 호남권에서 남북교류의 필요성과 시급성, 대북지원의 효과, 대북지원규모, 정부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특성을 보였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이는 대북지원정책이 북한주민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은 것과 함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이 제대

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대북정책이 국민을 통합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보다 국민 내부의 분열상, 즉 남남갈등을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비록 정치적 성향-진보와 비진보(보수, 중도)-에 따라 현재 또는 과거에 이루어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나 평가를 달리하지만 통일과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인 전망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유사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개방과 개혁의 시급성, 남북한 군사적 긴장해소의 시급성 등에 있어서는 보수, 중도, 진보 간에 명확한 의견차이가 없었다. 나아가 통일 한국의 이념체제에 대해서도 큰 의견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정치성향별로 의견차이가 없거나 혹 있더라도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을 고려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되는 남남갈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남남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새터민은 우리 사회 안에서 남북한 간의 사회통합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새터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포용적이지 못하다.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새터민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고 거리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새터민에 대한 거리감은 새터민과의 관계 맺기에서 나타나는 거부감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번 조사의 결과,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와 같이 공적인 관계에서는 새터민에 대해 비교적 거부감이 낮은 반면에 사업동업자나 결혼상대자와 같이 사적인 관계나 개인의 삶에 영향력이 큰 관계 유형에서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결과는 우리 정부의 새터민 정



책이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는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비록 새터민에 대한 친근감이 낮지만 국민 대다수는 새터민의 수용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10명중 5명은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새터민이라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약 4명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더 이상 새터민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강한 배타성을 보인 경우는 10명 중에 1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새터민의 사회적 지위나 새터민 관련 정책 등의 평가에서는 다양한 태도들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새터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10명 중 6명이 동의하여 새터민을 보호하고 배려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취업이나 조직생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새터민을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새터민을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된다. 남과 북은 50여년 넘게 이질화된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새터민은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이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행동양식, 생활양식, 가치체계 등에서 전혀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 새터민은 남북 주민들의 이질화 정도를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자, 사회통합이 통일의 최종목표라고 했을 때 새터민에 대한 인식은 남북통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새터민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과 의식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데 ‘근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새터민 정책이 보호와 정착지원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으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데까지 심화되어야 할 것임을 말한다.

다른 한편,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거나 북한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새터민에 대한 호감도 또는 포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을 경쟁이나 경계, 적대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볼 때 새터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 역시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정부 또는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에 대한 지식과 정보, 경험적 기회 등의 제공을 더욱 확대하고 남북한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새터민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은 남북관계에만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매우 밀접한 상호영향력을 갖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 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의 상호성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인은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의 5개국 가운데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다. 전반적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지역, 이념적 성향을 고려했을 때에도 미국을 가깝게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젊은 층으로 올수록 미국을 가깝게 느끼는 비율이 낮아진다. 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에서 미국을 가깝게 느끼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북한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일수록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미국과 일본을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호남지역의 20대에서 가장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이념적으로도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북한을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면에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한반도 주변국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젊은 층이 나이든 층보다 미국이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남북통일을 위해서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통일 문제에서 남북간의 상호협조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움, 특히 한미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통일을 이루는데 다른 사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도 연관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는 현재 국민들의 북한 및 통일, 대북정책 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며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이며 통일지향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북관계는 국제적인 협조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안별로, 영역별로 평가와 인식이 다르고 세대별로 평가와 지향이 달라지고 있으며 20대 젊은 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견해들이 더 강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제 북한 및 통일을 둘러싼 논의들도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한 양분법, 다시 말해 진보-보수, 친북-반북과 같은 틀보다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의견들을 인정하고 그들 간의 상호소통과 민주적 조율과정을 통해 대북정책 및 통일의 비전을 새롭게 형성해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2007
통일의식조사

부 록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IUS



1.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1200)	100.0
성별		
남자	(603)	50.3
여자	(597)	49.8
연령별		
20대	(302)	25.2
30대	(314)	26.2
40대	(305)	25.4
50대 이상	(279)	23.3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52)	12.7
고졸	(505)	42.3
대졸 이상	(537)	45.0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2.4
자영업	(291)	24.3
블루 칼라	(235)	19.6
화이트칼라	(217)	18.1
전업 주부	(237)	19.8
학생/무직/기타	(187)	15.6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23.3
200~299만원	(370)	30.8
300~399만원	(297)	24.8
400만원 이상	(246)	20.5
모름 / 무응답	(8)	.7
지역별		
수도권	(591)	49.3
중부권	(118)	9.8
호남권	(119)	9.9
영남권	(323)	26.9
강원	(36)	3.0
제주	(13)	1.1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5.3
중도	(568)	47.4
보수적	(327)	27.3

2. 질문항별 조사결과 집계표

표 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00)	34.4	29.4	63.8	21.1	12.7	2.4	15.1	100.0
■ 성별									
남자	(603)	41.8	28.2	70.0	16.6	11.3	2.2	13.4	100.0
여자	(597)	27.0	30.7	57.6	25.6	14.1	2.7	16.8	100.0
■ 연령별									
20대	(302)	21.2	32.1	53.3	27.2	16.2	3.3	19.5	100.0
30대	(314)	36.0	29.6	65.6	21.7	10.5	2.2	12.7	100.0
40대	(305)	39.7	26.2	65.9	17.0	14.8	2.3	17.0	100.0
50대이상	(279)	41.2	29.7	71.0	18.3	9.0	1.8	10.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36.2	30.3	66.4	21.1	10.5	2.0	12.5	100.0
고졸	(505)	33.9	27.5	61.4	22.0	13.3	3.4	16.6	100.0
대졸이상	(537)	34.3	30.9	65.2	20.3	12.8	1.7	14.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41.4	34.5	75.9	13.8	6.9	3.4	10.3	100.0
자영업	(291)	42.6	26.5	69.1	17.5	9.3	4.1	13.4	100.0
블루칼라	(235)	31.5	30.2	61.7	23.4	14.0	.9	14.9	100.0
화이트칼라	(217)	44.2	26.7	71.0	16.1	12.4	.5	12.9	100.0
전업주부	(237)	27.8	28.3	56.1	26.6	15.6	1.7	17.3	100.0
학생/무직/기타	(187)	21.9	35.8	57.8	23.5	13.9	4.8	18.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31.9	29.4	61.3	22.6	12.5	3.6	16.1	100.0
200~299만원	(370)	36.2	28.6	64.9	20.5	11.6	3.0	14.6	100.0
300~399만원	(297)	33.7	31.6	65.3	18.2	14.5	2.0	16.5	100.0
400만원 이상	(246)	36.2	26.8	63.0	24.4	11.8	.8	12.6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34.7	27.4	62.1	22.8	12.0	3.0	15.1	100.0
중부권	(118)	36.4	32.2	68.6	23.7	5.9	1.7	7.6	100.0
호남권	(119)	46.2	31.9	78.2	11.8	10.1	.0	10.1	100.0
영남권	(323)	26.0	33.7	59.8	20.4	17.3	2.5	19.8	100.0
강원	(36)	52.8	13.9	66.7	16.7	13.9	2.8	16.7	100.0
제주	(13)	53.8	7.7	61.5	30.8	7.7	.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2.2	27.7	70.0	14.9	12.9	2.3	15.2	100.0
중도	(568)	31.7	28.9	60.6	24.8	12.7	1.9	14.6	100.0
보수적	(327)	31.5	32.1	63.6	20.5	12.5	3.4	15.9	100.0



표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례수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가다려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계
		%	%	%	%	%
■ 전체	(1200)	70.6	11.8	10.6	7.0	100.0
■ 성별						
남자	(603)	72.6	9.8	12.9	4.6	100.0
여자	(597)	68.5	13.9	8.2	9.4	100.0
■ 연령별						
20대	(302)	67.9	14.6	7.0	10.6	100.0
30대	(314)	74.2	11.1	8.6	6.1	100.0
40대	(305)	71.8	13.1	10.2	4.9	100.0
50대이상	(279)	68.1	8.2	17.2	6.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59.9	16.4	15.8	7.9	100.0
고졸	(505)	70.9	11.3	9.9	7.9	100.0
대졸이상	(537)	73.2	11.2	9.9	5.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55.2	17.2	20.7	6.9	100.0
자영업	(291)	74.9	10.7	8.9	5.5	100.0
블루칼라	(235)	69.8	10.2	12.8	7.2	100.0
화이트칼라	(217)	77.4	8.3	10.6	3.7	100.0
전업주부	(237)	63.3	17.3	9.7	9.7	100.0
학생/무직/기타	(187)	67.9	12.3	10.2	9.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68.5	13.6	12.9	5.0	100.0
200~299만원	(370)	68.4	13.0	9.7	8.9	100.0
300~399만원	(297)	72.4	10.8	9.4	7.4	100.0
400만원 이상	(246)	74.0	9.8	10.6	5.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72.6	12.7	8.1	6.6	100.0
중부권	(118)	67.8	9.3	15.3	7.6	100.0
호남권	(119)	68.1	6.7	21.0	4.2	100.0
영남권	(323)	70.6	13.0	8.7	7.7	100.0
강원	(36)	61.1	13.9	13.9	11.1	100.0
제주	(13)	53.8	7.7	23.1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69.3	8.9	17.2	4.6	100.0
중도	(568)	69.7	14.8	7.9	7.6	100.0
보수적	(327)	73.1	9.5	9.2	8.3	100.0

표 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5년 이내	10년	20년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전체	(1200)	3.7	23.5	30.8	14.7	13.8	13.3	.2	100.0
■ 성별									
남자	(603)	3.0	26.2	34.7	13.9	12.1	10.0	.2	100.0
여자	(597)	4.4	20.8	27.0	15.4	15.6	16.8	.2	100.0
■ 연령별									
20대	(302)	1.7	18.2	26.8	17.2	18.2	17.5	.3	100.0
30대	(314)	2.5	22.3	30.6	19.1	13.1	12.1	.3	100.0
40대	(305)	5.2	27.2	35.1	12.1	9.2	11.1	.0	100.0
50대 이상	(279)	5.4	26.5	30.8	9.7	15.1	12.5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3.3	21.7	28.9	8.6	21.7	15.8	.0	100.0
고졸	(505)	4.2	26.5	28.7	13.9	11.1	15.4	.2	100.0
대졸이상	(537)	3.4	21.0	33.3	16.9	14.3	10.8	.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34.5	24.1	13.8	20.7	6.9	.0	100.0
자영업	(291)	4.8	25.8	35.7	10.0	12.4	11.3	.0	100.0
블루칼라	(235)	3.0	23.8	27.7	19.6	12.3	13.2	.4	100.0
화이트칼라	(217)	4.1	26.3	33.2	15.7	12.4	8.3	.0	100.0
전업주부	(237)	4.6	19.4	28.7	14.3	13.1	19.8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6	19.3	28.3	15.0	19.8	15.5	.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5.4	22.6	25.8	15.4	15.4	15.4	.0	100.0
200~299만원	(370)	3.5	20.0	33.2	15.7	11.6	15.7	.3	100.0
300~399만원	(297)	1.7	26.9	32.3	13.5	13.1	12.1	.3	100.0
400만원 이상	(246)	4.5	25.2	30.9	13.8	16.3	9.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4.4	23.0	29.6	14.6	15.7	12.4	.3	100.0
중부권	(118)	.8	25.4	34.7	11.0	16.1	11.9	.0	100.0
호남권	(119)	3.4	33.6	29.4	11.8	14.3	7.6	.0	100.0
영남권	(323)	3.4	20.4	31.9	16.4	10.5	17.3	.0	100.0
강원	(36)	2.8	13.9	41.7	19.4	5.6	16.7	.0	100.0
제주	(13)	7.7	38.5	7.7	23.1	7.7	15.4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5.3	27.7	32.0	13.2	10.6	11.2	.0	100.0
중도	(568)	4.0	22.2	29.0	15.3	15.3	13.7	.4	100.0
보수적	(327)	1.5	21.7	33.0	14.7	14.4	14.7	.0	100.0



표 4-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0)	15.2	42.3	57.4	35.0	7.6	42.6	100.0
■ 성별								
남자	(603)	18.9	44.9	63.8	28.9	7.3	36.2	100.0
여자	(597)	11.4	39.5	50.9	41.2	7.9	49.1	100.0
■ 연령별								
20대	(302)	10.6	47.4	57.9	34.1	7.9	42.1	100.0
30대	(314)	15.0	43.3	58.3	34.7	7.0	41.7	100.0
40대	(305)	17.4	39.7	57.0	36.4	6.6	43.0	100.0
50대이상	(279)	17.9	38.4	56.3	34.8	9.0	43.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2.5	36.8	49.3	42.1	8.6	50.7	100.0
고졸	(505)	14.5	40.8	55.2	36.8	7.9	44.8	100.0
대졸이상	(537)	16.4	44.9	61.3	31.7	7.1	38.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17.2	51.7	69.0	27.6	3.4	31.0	100.0
자영업	(291)	21.0	38.5	59.5	31.6	8.9	40.5	100.0
블루칼라	(235)	11.9	43.0	54.9	36.2	8.9	45.1	100.0
화이트칼라	(217)	21.7	41.0	62.7	30.9	6.5	37.3	100.0
전업주부	(237)	9.3	40.9	50.2	44.7	5.1	49.8	100.0
학생/무직/기타	(187)	9.6	49.2	58.8	32.1	9.1	41.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1.8	43.0	54.8	35.8	9.3	45.2	100.0
200~299만원	(370)	11.6	45.4	57.0	35.9	7.0	43.0	100.0
300~399만원	(297)	17.5	42.4	59.9	32.0	8.1	40.1	100.0
400만원 이상	(246)	21.1	36.2	57.3	36.6	6.1	42.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5.1	40.6	55.7	37.2	7.1	44.3	100.0
충부권	(118)	10.2	41.5	51.7	40.7	7.6	48.3	100.0
호남권	(119)	22.7	48.7	71.4	23.5	5.0	28.6	100.0
영남권	(323)	13.3	42.4	55.7	34.7	9.6	44.3	100.0
강원	(36)	22.2	52.8	75.0	22.2	2.8	25.0	100.0
제주	(13)	23.1	30.8	53.8	30.8	15.4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4.4	44.2	68.6	26.1	5.3	31.4	100.0
중도	(568)	12.1	42.8	54.9	37.7	7.4	45.1	100.0
보수적	(327)	11.6	39.4	51.1	38.8	10.1	48.9	100.0

표 4-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④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0)	17.8	51.9	69.7	25.1	5.3	30.3	100.0
■ 성별								
남자	(603)	23.1	49.9	73.0	22.1	5.0	27.0	100.0
여자	(597)	12.4	53.9	66.3	28.1	5.5	33.7	100.0
■ 연령별								
20대	(302)	18.2	46.7	64.9	28.5	6.6	35.1	100.0
30대	(314)	18.2	55.1	73.2	21.7	5.1	26.8	100.0
40대	(305)	20.3	52.1	72.5	22.3	5.2	27.5	100.0
50대이상	(279)	14.0	53.8	67.7	28.3	3.9	32.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9.9	53.3	63.2	33.6	3.3	36.8	100.0
고졸	(505)	15.2	52.7	67.9	25.5	6.5	32.1	100.0
대졸이상	(537)	22.2	50.8	73.0	22.3	4.7	27.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17.2	55.2	72.4	24.1	3.4	27.6	100.0
자영업	(291)	21.6	48.1	69.8	23.7	6.5	30.2	100.0
블루칼라	(235)	15.7	51.9	67.7	26.8	5.5	32.3	100.0
화이트칼라	(217)	23.0	52.1	75.1	20.7	4.1	24.9	100.0
전업주부	(237)	9.7	57.8	67.5	28.3	4.2	32.5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8.2	49.2	67.4	26.7	5.9	32.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7.6	46.2	63.8	29.7	6.5	36.2	100.0
200~299만원	(370)	14.3	54.1	68.4	26.8	4.9	31.6	100.0
300~399만원	(297)	19.5	55.2	74.7	21.2	4.0	25.3	100.0
400만원 이상	(246)	20.3	51.2	71.5	22.4	6.1	28.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9.0	48.1	67.0	26.9	6.1	33.0	100.0
충부권	(118)	6.8	66.9	73.7	22.0	4.2	26.3	100.0
호남권	(119)	26.9	54.6	81.5	16.8	1.7	18.5	100.0
영남권	(323)	14.9	53.6	68.4	26.3	5.3	31.6	100.0
강원	(36)	27.8	52.8	80.6	16.7	2.8	19.4	100.0
제주	(13)	23.1	23.1	46.2	38.5	15.4	53.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8.7	48.5	77.2	20.5	2.3	22.8	100.0
중도	(568)	13.7	53.2	66.9	27.5	5.6	33.1	100.0
보수적	(327)	14.4	53.2	67.6	25.1	7.3	32.4	100.0



표 4-3.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㉔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	%
■ 전체	(1200)	21.0	51.5	72.5	22.9	4.6	27.5	100.0
■ 성별								
남자	(603)	24.7	50.6	75.3	20.9	3.8	24.7	100.0
여자	(597)	17.3	52.4	69.7	25.0	5.4	30.3	100.0
■ 연령별								
20대	(302)	19.9	53.0	72.8	22.5	4.6	27.2	100.0
30대	(314)	20.1	55.1	75.2	19.1	5.7	24.8	100.0
40대	(305)	22.3	52.1	74.4	22.0	3.6	25.6	100.0
50대이상	(279)	21.9	45.2	67.0	28.7	4.3	33.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8.4	42.8	61.2	34.9	3.9	38.8	100.0
고졸	(505)	15.4	55.6	71.1	23.2	5.7	28.9	100.0
대졸이상	(537)	26.6	50.1	76.7	19.6	3.7	23.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27.6	41.4	69.0	31.0	.0	31.0	100.0
자영업	(291)	25.4	48.1	73.5	19.9	6.5	26.5	100.0
블루칼라	(235)	15.3	55.3	70.6	25.1	4.3	29.4	100.0
화이트칼라	(217)	27.6	50.7	78.3	18.0	3.7	21.7	100.0
전업주부	(237)	15.2	52.7	67.9	27.8	4.2	32.1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9.8	52.4	72.2	23.5	4.3	27.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8.6	49.1	67.7	26.5	5.7	32.3	100.0
200~299만원	(370)	17.6	51.4	68.9	27.6	3.5	31.1	100.0
300~399만원	(297)	22.2	53.9	76.1	19.5	4.4	23.9	100.0
400만원 이상	(246)	26.4	51.6	78.0	16.7	5.3	22.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21.0	50.6	71.6	23.0	5.4	28.4	100.0
중부권	(118)	12.7	55.1	67.8	29.7	2.5	32.2	100.0
호남권	(119)	28.6	52.9	81.5	16.8	1.7	18.5	100.0
영남권	(323)	20.1	52.0	72.1	23.2	4.6	27.9	100.0
강원	(36)	27.8	52.8	80.6	16.7	2.8	19.4	100.0
제주	(13)	30.8	30.8	61.5	23.1	15.4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32.3	47.5	79.9	17.8	2.3	20.1	100.0
중도	(568)	15.1	53.9	69.0	25.2	5.8	31.0	100.0
보수적	(327)	20.5	51.1	71.6	23.9	4.6	28.4	100.0

표 4-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0)	24.0	50.7	74.7	21.7	3.7	25.3	100.0
■ 성별								
남자	(603)	29.0	50.1	79.1	17.2	3.6	20.9	100.0
여자	(597)	18.9	51.3	70.2	26.1	3.7	29.8	100.0
■ 연령별								
20대	(302)	20.9	48.0	68.9	27.2	4.0	31.1	100.0
30대	(314)	24.2	52.2	76.4	18.8	4.8	23.6	100.0
40대	(305)	27.9	49.2	77.0	20.0	3.0	23.0	100.0
50대이상	(279)	22.9	53.4	76.3	20.8	2.9	23.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20.4	47.4	67.8	29.6	2.6	32.2	100.0
고졸	(505)	20.2	53.5	73.7	22.2	4.2	26.3	100.0
대졸이상	(537)	28.7	48.8	77.5	19.0	3.5	22.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24.1	48.3	72.4	27.6	.0	27.6	100.0
자영업	(291)	28.2	49.5	77.7	17.5	4.8	22.3	100.0
블루칼라	(235)	22.1	52.3	74.5	22.1	3.4	25.5	100.0
화이트칼라	(217)	29.5	51.6	81.1	15.7	3.2	18.9	100.0
전업주부	(237)	18.1	51.9	70.0	27.0	3.0	30.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20.9	48.1	69.0	26.7	4.3	31.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20.1	49.8	69.9	26.2	3.9	30.1	100.0
200~299만원	(370)	22.4	50.3	72.7	24.3	3.0	27.3	100.0
300~399만원	(297)	24.6	52.9	77.4	18.9	3.7	22.6	100.0
400만원 이상	(246)	29.7	50.0	79.7	15.9	4.5	20.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21.2	53.0	74.1	21.3	4.6	25.9	100.0
충부권	(118)	21.2	49.2	70.3	29.7	.0	29.7	100.0
호남권	(119)	36.1	48.7	84.9	12.6	2.5	15.1	100.0
영남권	(323)	22.6	50.5	73.1	22.9	4.0	26.9	100.0
강원	(36)	52.8	36.1	88.9	11.1	.0	11.1	100.0
제주	(13)	23.1	23.1	46.2	46.2	7.7	53.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36.6	47.2	83.8	13.5	2.6	16.2	100.0
중도	(568)	17.3	52.6	69.9	26.4	3.7	30.1	100.0
보수적	(327)	23.9	50.5	74.3	21.1	4.6	25.7	100.0



표 5-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전체	(1200)	16.5	50.3	66.8	30.5	2.7	33.2	100.0
■ 성별								
남자	(603)	20.1	50.7	70.8	26.2	3.0	29.2	100.0
여자	(597)	12.9	49.9	62.8	34.8	2.3	37.2	100.0
■ 연령별								
20대	(302)	11.9	49.3	61.3	35.4	3.3	38.7	100.0
30대	(314)	18.5	50.6	69.1	27.4	3.5	30.9	100.0
40대	(305)	19.3	50.8	70.2	28.5	1.3	29.8	100.0
50대이상	(279)	16.1	50.5	66.7	30.8	2.5	33.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2.5	53.3	65.8	31.6	2.6	34.2	100.0
고졸	(505)	14.9	47.7	62.6	34.9	2.6	37.4	100.0
대졸이상	(537)	19.2	51.8	70.9	26.3	2.8	29.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27.6	41.4	69.0	27.6	3.4	31.0	100.0
자영업	(291)	16.8	51.5	68.4	29.2	2.4	31.6	100.0
블루칼라	(235)	17.0	47.2	64.3	32.8	3.0	35.7	100.0
화이트칼라	(217)	23.5	52.1	75.6	21.7	2.8	24.4	100.0
전업주부	(237)	11.0	49.4	60.3	38.0	1.7	39.7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2.8	51.9	64.7	31.6	3.7	35.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4.7	48.7	63.4	33.3	3.2	36.6	100.0
200~299만원	(370)	15.7	51.1	66.8	31.4	1.9	33.2	100.0
300~399만원	(297)	16.2	53.5	69.7	28.6	1.7	30.3	100.0
400만원 이상	(246)	19.9	47.2	67.1	29.3	3.7	32.9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4.9	50.8	65.7	31.5	2.9	34.3	100.0
중부권	(118)	15.3	51.7	66.9	31.4	1.7	33.1	100.0
호남권	(119)	25.2	58.0	83.2	16.0	.8	16.8	100.0
영남권	(323)	14.6	47.7	62.2	34.7	3.1	37.8	100.0
강원	(36)	38.9	38.9	77.8	16.7	5.6	22.2	100.0
제주	(13)	7.7	46.2	53.8	46.2	.0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4.4	49.8	74.3	24.4	1.3	25.7	100.0
중도	(568)	13.2	50.2	63.4	34.3	2.3	36.6	100.0
보수적	(327)	15.0	51.1	66.1	29.4	4.6	33.9	100.0

표 5-2. 대북 사안별 시급성 - ④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전체	(1200)	29.8	48.5	78.3	19.7	2.0	21.7	.1	100.0
■ 성별									
남자	(603)	36.7	45.6	82.3	15.8	1.8	17.6	.2	100.0
여자	(597)	22.8	51.4	74.2	23.6	2.2	25.8	.0	100.0
■ 연령별									
20대	(302)	30.1	44.7	74.8	22.5	2.6	25.2	.0	100.0
30대	(314)	30.6	49.0	79.6	17.5	2.9	20.4	.0	100.0
40대	(305)	31.5	49.8	81.3	18.4	.3	18.7	.0	100.0
50대이상	(279)	26.5	50.5	77.1	20.4	2.2	22.6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21.1	55.9	77.0	19.7	2.6	22.4	.7	100.0
고졸	(505)	26.5	46.3	72.9	24.2	3.0	27.1	.0	100.0
대졸이상	(537)	35.0	48.6	83.6	15.5	.9	16.4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1.0	48.3	79.3	17.2	3.4	20.7	.0	100.0
자영업	(291)	34.0	47.8	81.8	16.5	1.4	17.9	.3	100.0
블루칼라	(235)	28.9	45.5	74.5	22.6	3.0	25.5	.0	100.0
화이트칼라	(217)	35.0	49.3	84.3	14.7	.9	15.7	.0	100.0
전업주부	(237)	18.6	54.0	72.6	25.7	1.7	27.4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31.0	46.0	77.0	19.8	3.2	23.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28.3	44.8	73.1	24.0	2.5	26.5	.4	100.0
200~299만원	(370)	27.8	51.1	78.9	19.5	1.6	21.1	.0	100.0
300~399만원	(297)	27.3	49.8	77.1	20.9	2.0	22.9	.0	100.0
400만원 이상	(246)	36.2	48.4	84.6	14.2	1.2	15.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31.8	46.0	77.8	20.1	1.9	22.0	.2	100.0
중부권	(118)	28.0	56.8	84.7	14.4	.8	15.3	.0	100.0
호남권	(119)	38.7	52.1	90.8	7.6	1.7	9.2	.0	100.0
영남권	(323)	22.6	49.8	72.4	24.5	3.1	27.6	.0	100.0
강원	(36)	36.1	47.2	83.3	16.7	.0	16.7	.0	100.0
제주	(13)	30.8	23.1	53.8	46.2	.0	46.2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37.0	43.2	80.2	18.5	1.3	19.8	.0	100.0
중도	(568)	25.2	53.2	78.3	20.2	1.2	21.5	.2	100.0
보수적	(327)	31.2	45.0	76.1	19.9	4.0	23.9	.0	100.0



표 5-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군사적 긴장 해소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전체	(1200)	39.4	40.5	79.9	17.4	2.7	20.1	100.0
■ 성별								
남자	(603)	44.1	39.3	83.4	13.9	2.7	16.6	100.0
여자	(597)	34.7	41.7	76.4	20.9	2.7	23.6	100.0
■ 연령별								
20대	(302)	41.1	38.4	79.5	18.2	2.3	20.5	100.0
30대	(314)	41.4	40.4	81.8	15.0	3.2	18.2	100.0
40대	(305)	39.7	40.3	80.0	16.7	3.3	20.0	100.0
50대이상	(279)	35.1	43.0	78.1	20.1	1.8	21.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30.9	45.4	76.3	21.7	2.0	23.7	100.0
고졸	(505)	33.7	41.0	74.7	21.8	3.6	25.3	100.0
대졸이상	(537)	46.9	38.9	85.8	12.1	2.0	14.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4.5	41.4	75.9	20.7	3.4	24.1	100.0
자영업	(291)	42.6	38.8	81.4	16.2	2.4	18.6	100.0
블루칼라	(235)	34.5	38.7	73.2	22.1	4.7	26.8	100.0
화이트칼라	(217)	44.2	42.9	87.1	11.5	1.4	12.9	100.0
전업주부	(237)	32.5	43.5	75.9	22.4	1.7	24.1	100.0
학생/무직/기타	(187)	43.9	39.0	82.9	13.9	3.2	17.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35.8	40.9	76.7	19.7	3.6	23.3	100.0
200~299만원	(370)	38.6	43.5	82.2	15.4	2.4	17.8	100.0
300~399만원	(297)	38.0	39.7	77.8	19.5	2.7	22.2	100.0
400만원 이상	(246)	45.9	37.4	83.3	15.0	1.6	1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41.1	40.3	81.4	16.6	2.0	18.6	100.0
중부권	(118)	37.3	39.8	77.1	20.3	2.5	22.9	100.0
호남권	(119)	46.2	33.6	79.8	15.1	5.0	20.2	100.0
영남권	(323)	32.8	45.5	78.3	18.9	2.8	21.7	100.0
강원	(36)	58.3	27.8	86.1	8.3	5.6	13.9	100.0
제주	(13)	30.8	30.8	61.5	38.5	.0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7.9	37.0	84.8	11.9	3.3	15.2	100.0
중도	(568)	35.2	43.0	78.2	19.9	1.9	21.8	100.0
보수적	(327)	39.1	39.1	78.3	18.3	3.4	21.7	100.0

표 5-4.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전체	(1200)	7.6	23.5	31.1	49.9	19.0	68.9	100.0
■ 성별								
남자	(603)	8.5	21.6	30.0	47.3	22.7	70.0	100.0
여자	(597)	6.7	25.5	32.2	52.6	15.2	67.8	100.0
■ 연령별								
20대	(302)	9.9	26.8	36.8	45.7	17.5	63.2	100.0
30대	(314)	7.3	29.6	36.9	47.5	15.6	63.1	100.0
40대	(305)	7.5	23.3	30.8	49.5	19.7	69.2	100.0
50대이상	(279)	5.4	13.3	18.6	57.7	23.7	81.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3.9	15.8	19.7	54.6	25.7	80.3	100.0
고졸	(505)	7.1	24.0	31.1	50.9	18.0	68.9	100.0
대졸이상	(537)	9.1	25.0	34.1	47.7	18.2	65.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17.2	24.1	55.2	20.7	75.9	100.0
자영업	(291)	7.6	24.7	32.3	45.0	22.7	67.7	100.0
블루칼라	(235)	8.1	24.7	32.8	50.6	16.6	67.2	100.0
화이트칼라	(217)	6.5	27.2	33.6	47.0	19.4	66.4	100.0
전업주부	(237)	5.5	18.1	23.6	59.9	16.5	76.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1.2	23.5	34.8	46.0	19.3	65.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8.6	21.9	30.5	49.1	20.4	69.5	100.0
200~299만원	(370)	6.2	24.6	30.8	52.2	17.0	69.2	100.0
300~399만원	(297)	7.1	27.6	34.7	49.8	15.5	65.3	100.0
400만원 이상	(246)	9.3	19.1	28.5	46.7	24.8	71.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7.3	25.2	32.5	50.6	16.9	67.5	100.0
충부권	(118)	3.4	22.0	25.4	54.2	20.3	74.6	100.0
호남권	(119)	15.1	28.6	43.7	44.5	11.8	56.3	100.0
영남권	(323)	7.1	18.6	25.7	48.3	26.0	74.3	100.0
강원	(36)	8.3	25.0	33.3	55.6	11.1	66.7	100.0
제주	(13)	.0	30.8	30.8	53.8	15.4	6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5.2	31.0	46.2	41.3	12.5	53.8	100.0
중도	(568)	5.1	21.7	26.8	54.9	18.3	73.2	100.0
보수적	(327)	4.9	19.6	24.5	49.2	26.3	75.5	100.0



표 5-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전체	(1200)	34.8	45.2	79.9	18.1	2.0	20.1	100.0
■ 성별								
남자	(603)	39.8	42.1	81.9	15.9	2.2	18.1	100.0
여자	(597)	29.6	48.2	77.9	20.3	1.8	22.1	100.0
■ 연령별								
20대	(302)	34.1	45.4	79.5	18.2	2.3	20.5	100.0
30대	(314)	33.4	47.1	80.6	16.6	2.9	19.4	100.0
40대	(305)	38.7	43.0	81.6	17.4	1.0	18.4	100.0
50대이상	(279)	32.6	45.2	77.8	20.4	1.8	22.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32.9	44.1	77.0	21.1	2.0	23.0	100.0
고졸	(505)	31.1	48.5	79.6	17.8	2.6	20.4	100.0
대졸이상	(537)	38.9	42.3	81.2	17.3	1.5	18.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51.7	37.9	89.7	10.3	.0	10.3	100.0
자영업	(291)	42.6	41.6	84.2	13.7	2.1	15.8	100.0
블루칼라	(235)	30.6	46.8	77.4	19.1	3.4	22.6	100.0
화이트칼라	(217)	36.4	46.1	82.5	17.1	.5	17.5	100.0
전업주부	(237)	24.5	48.9	73.4	25.3	1.3	26.6	100.0
학생/무직/기타	(187)	36.4	43.3	79.7	17.1	3.2	20.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35.5	44.1	79.6	17.2	3.2	20.4	100.0
200~299만원	(370)	33.8	47.8	81.6	16.5	1.9	18.4	100.0
300~399만원	(297)	32.3	44.8	77.1	22.2	.7	22.9	100.0
400만원 이상	(246)	37.8	43.9	81.7	16.3	2.0	18.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35.4	43.8	79.2	18.6	2.2	20.8	100.0
충부권	(118)	32.2	50.0	82.2	16.9	.8	17.8	100.0
호남권	(119)	51.3	42.0	93.3	5.0	1.7	6.7	100.0
영남권	(323)	29.4	48.6	78.0	19.8	2.2	22.0	100.0
강원	(36)	27.8	33.3	61.1	36.1	2.8	38.9	100.0
제주	(13)	30.8	38.5	69.2	30.8	.0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1.3	45.5	86.8	11.9	1.3	13.2	100.0
중도	(568)	30.3	48.4	78.7	19.2	2.1	21.3	100.0
보수적	(327)	36.7	38.8	75.5	22.0	2.4	24.5	100.0

표 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같은 민족 이니까	남북간에 전쟁을 위험을 없애기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산가족 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수 있도록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 전체	(1200)	50.6	19.2	18.7	8.9	1.8	.7	.1	.2	100.0
■ 성별										
남자	(603)	51.2	18.9	20.6	6.1	2.2	.8	.2	.0	100.0
여자	(597)	49.9	19.4	16.8	11.7	1.3	.5	.0	.3	100.0
■ 연령별										
20대	(302)	39.1	22.5	22.8	11.9	2.3	1.3	.0	.0	100.0
30대	(314)	51.0	16.9	22.3	7.3	1.6	.6	.0	.3	100.0
40대	(305)	49.5	21.6	19.7	6.9	1.6	.3	.0	.3	100.0
50대이상	(279)	63.8	15.4	9.0	9.7	1.4	.4	.4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64.5	17.1	5.9	10.5	1.3	.7	.0	.0	100.0
고졸	(505)	54.1	17.6	15.6	9.5	2.2	.6	.2	.2	100.0
대졸이상	(537)	43.0	21.2	25.3	8.0	1.5	.7	.0	.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51.7	24.1	10.3	6.9	6.9	.0	.0	.0	100.0
자영업	(291)	51.9	22.3	17.5	5.5	1.0	.7	.3	.7	100.0
블루칼라	(235)	55.7	13.2	18.3	9.8	2.6	.4	.0	.0	100.0
화이트칼라	(217)	44.7	19.4	25.8	8.3	.9	.9	.0	.0	100.0
전업주부	(237)	54.4	19.0	13.5	10.5	2.1	.4	.0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44.4	20.9	20.3	12.3	1.1	1.1	.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55.6	15.8	15.4	10.8	1.4	.7	.0	.4	100.0
200~299만원	(370)	48.4	22.4	17.8	8.4	2.2	.5	.3	.0	100.0
300~399만원	(297)	52.2	19.5	16.8	8.8	1.7	.7	.0	.3	100.0
400만원 이상	(246)	46.3	17.9	25.6	8.1	1.2	.8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52.3	17.3	19.1	8.3	2.0	.7	.2	.2	100.0
충부권	(118)	43.2	27.1	21.2	6.8	1.7	.0	.0	.0	100.0
호남권	(119)	49.6	18.5	21.8	7.6	.8	1.7	.0	.0	100.0
영남권	(323)	53.3	17.3	15.5	11.8	1.5	.6	.0	.0	100.0
강원	(36)	30.6	38.9	22.2	2.8	2.8	.0	.0	2.8	100.0
제주	(13)	38.5	30.8	15.4	15.4	.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2.6	20.5	22.4	10.6	3.0	.7	.0	.3	100.0
중도	(568)	53.2	20.6	16.9	7.4	1.1	.7	.0	.2	100.0
보수적	(327)	53.5	15.3	18.3	10.1	1.8	.6	.3	.0	100.0



표 7.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	%	%	%	%	%
■ 전체	(1200)	16.8	38.9	55.8	36.4	7.8	44.2	.1	100.0
■ 성별									
남자	(603)	23.4	39.1	62.5	30.5	7.0	37.5	.0	100.0
여자	(597)	10.2	38.7	48.9	42.4	8.5	50.9	.2	100.0
■ 연령별									
20대	(302)	15.2	39.4	54.6	37.4	7.9	45.4	.0	100.0
30대	(314)	19.4	46.8	66.2	27.4	6.4	33.8	.0	100.0
40대	(305)	19.7	36.1	55.7	38.7	5.6	44.3	.0	100.0
50대이상	(279)	12.5	32.6	45.2	43.0	11.5	54.5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9.9	24.3	34.2	51.3	14.5	65.8	.0	100.0
고졸	(505)	15.2	39.2	54.5	37.4	7.9	45.3	.2	100.0
대졸이상	(537)	20.1	42.6	62.8	31.5	5.8	37.2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17.2	20.7	37.9	44.8	17.2	62.1	.0	100.0
자영업	(291)	19.9	35.1	55.0	36.4	8.6	45.0	.0	100.0
블루칼라	(235)	14.9	40.4	55.3	38.3	6.4	44.7	.0	100.0
화이트칼라	(217)	22.6	38.7	61.3	32.3	6.5	38.7	.0	100.0
전업주부	(237)	9.3	40.1	49.4	40.9	9.3	50.2	.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7.6	43.3	61.0	32.6	6.4	39.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4.7	29.7	44.4	43.4	12.2	55.6	.0	100.0
200~299만원	(370)	15.7	38.4	54.1	38.6	7.3	45.9	.0	100.0
300~399만원	(297)	17.5	40.4	57.9	35.0	6.7	41.8	.3	100.0
400만원 이상	(246)	19.9	47.6	67.5	28.0	4.5	32.5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9.1	40.1	59.2	34.5	6.3	40.8	.0	100.0
충부권	(118)	16.9	38.1	55.1	39.0	5.1	44.1	.8	100.0
호남권	(119)	20.2	43.7	63.9	29.4	6.7	36.1	.0	100.0
영남권	(323)	10.8	34.7	45.5	43.0	11.5	54.5	.0	100.0
강원	(36)	25.0	38.9	63.9	25.0	11.1	36.1	.0	100.0
제주	(13)	7.7	53.8	61.5	30.8	7.7	38.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5.7	39.9	65.7	29.0	5.3	34.3	.0	100.0
중도	(568)	13.6	40.1	53.7	37.7	8.5	46.1	.2	100.0
보수적	(327)	14.4	35.5	49.8	41.3	8.9	50.2	.0	100.0

표 8.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	%	%	%	%	%
■ 전체	(1200)	5.7	24.6	30.3	51.2	18.5	69.7	.1	100.0
■ 성별									
남자	(603)	8.0	28.7	36.7	48.4	14.9	63.3	.0	100.0
여자	(597)	3.4	20.4	23.8	53.9	22.1	76.0	.2	100.0
■ 연령별									
20대	(302)	4.3	22.8	27.2	53.0	19.5	72.5	.3	100.0
30대	(314)	6.7	29.3	36.0	48.1	15.9	64.0	.0	100.0
40대	(305)	8.2	23.6	31.8	51.5	16.7	68.2	.0	100.0
50대이상	(279)	3.2	22.2	25.4	52.3	22.2	74.6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3.3	14.5	17.8	53.9	28.3	82.2	.0	100.0
고졸	(505)	4.0	23.2	27.1	54.3	18.6	72.9	.0	100.0
대졸이상	(537)	8.0	28.5	36.5	47.5	15.8	63.3	.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4	13.8	17.2	51.7	31.0	82.8	.0	100.0
자영업	(291)	4.8	28.2	33.0	49.1	17.9	67.0	.0	100.0
블루칼라	(235)	3.4	23.8	27.2	56.2	16.6	72.8	.0	100.0
화이트칼라	(217)	12.0	27.2	39.2	43.8	16.6	60.4	.5	100.0
전업주부	(237)	3.4	18.1	21.5	54.4	24.1	78.5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5.9	26.2	32.1	52.4	15.5	67.9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3.6	20.1	23.7	50.2	26.2	76.3	.0	100.0
200~299만원	(370)	3.8	23.8	27.6	55.9	16.5	72.4	.0	100.0
300~399만원	(297)	6.1	29.0	35.0	49.2	15.5	64.6	.3	100.0
400만원 이상	(246)	10.6	24.8	35.4	48.0	16.7	64.6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5.1	27.2	32.3	52.1	15.4	67.5	.2	100.0
충부권	(118)	5.9	22.9	28.8	54.2	16.9	71.2	.0	100.0
호남권	(119)	8.4	17.6	26.1	53.8	20.2	73.9	.0	100.0
영남권	(323)	5.3	23.2	28.5	47.1	24.5	71.5	.0	100.0
강원	(36)	8.3	25.0	33.3	50.0	16.7	66.7	.0	100.0
제주	(13)	7.7	15.4	23.1	61.5	15.4	76.9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9.9	28.4	38.3	48.8	12.9	61.7	.0	100.0
중도	(568)	4.4	23.2	27.6	53.5	18.8	72.4	.0	100.0
보수적	(327)	4.0	23.2	27.2	49.2	23.2	72.5	.3	100.0



표 9-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빈부격차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전체	(1200)	4.8	12.9	17.8	20.6	31.5	30.2	61.7	100.0
■ 성별									
남자	(603)	4.5	13.6	18.1	20.6	29.7	31.7	61.4	100.0
여자	(597)	5.2	12.2	17.4	20.6	33.3	28.6	62.0	100.0
■ 연령별									
20대	(302)	3.3	10.6	13.9	22.8	30.5	32.8	63.2	100.0
30대	(314)	5.4	13.7	19.1	24.2	29.3	27.4	56.7	100.0
40대	(305)	5.2	10.5	15.7	17.4	35.4	31.5	66.9	100.0
50대이상	(279)	5.4	17.2	22.6	17.6	30.8	29.0	59.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7.2	15.1	22.4	17.8	32.2	27.6	59.9	100.0
고졸	(505)	5.3	13.1	18.4	19.0	30.3	32.3	62.6	100.0
대졸이상	(537)	3.7	11.9	15.6	22.7	32.6	29.1	61.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17.2	17.2	31.0	24.1	27.6	51.7	100.0
자영업	(291)	3.8	14.1	17.9	16.2	33.3	32.6	66.0	100.0
블루칼라	(235)	5.5	13.6	19.1	22.6	25.5	32.8	58.3	100.0
화이트칼라	(217)	3.7	12.9	16.6	18.9	34.1	30.4	64.5	100.0
전업주부	(237)	5.9	12.7	18.6	20.7	32.1	28.7	60.8	100.0
학생/무직/기타	(187)	6.4	10.2	16.6	25.1	32.6	25.7	58.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4.7	13.6	18.3	22.9	25.1	33.7	58.8	100.0
200~299만원	(370)	6.2	10.8	17.0	20.8	32.7	29.5	62.2	100.0
300~399만원	(297)	5.1	15.5	20.5	17.8	36.0	25.6	61.6	100.0
400만원 이상	(246)	2.8	11.8	14.6	20.3	32.1	32.9	65.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4.4	14.6	19.0	21.3	30.5	29.3	59.7	100.0
충부권	(118)	5.1	1.7	6.8	25.4	34.7	33.1	67.8	100.0
호남권	(119)	5.9	14.3	20.2	23.5	34.5	21.8	56.3	100.0
영남권	(323)	4.3	13.3	17.6	16.1	31.9	34.4	66.3	100.0
강원	(36)	8.3	16.7	25.0	19.4	33.3	22.2	55.6	100.0
제주	(13)	15.4	7.7	23.1	30.8	7.7	38.5	46.2	100.0
■ 정치적 성향									
진보적	(303)	5.0	18.5	23.4	20.1	31.7	24.8	56.4	100.0
중도	(568)	4.6	11.8	16.4	23.8	30.5	29.4	59.9	100.0
보수적	(327)	4.9	9.8	14.7	15.6	33.0	36.7	69.7	100.0

표 9-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④ 부동산투기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전체	(1200)	7.2	14.2	21.3	19.5	30.0	29.2	59.2	100.0
■ 성별									
남자	(603)	7.1	14.8	21.9	18.2	27.0	32.8	59.9	100.0
여자	(597)	7.2	13.6	20.8	20.8	33.0	25.5	58.5	100.0
■ 연령별									
20대	(302)	7.6	13.2	20.9	21.2	27.2	30.8	57.9	100.0
30대	(314)	5.1	15.0	20.1	19.1	27.4	33.4	60.8	100.0
40대	(305)	7.5	14.1	21.6	17.7	33.8	26.9	60.7	100.0
50대이상	(279)	8.6	14.3	22.9	20.1	31.9	25.1	57.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9.9	13.8	23.7	19.1	33.6	23.7	57.2	100.0
고졸	(505)	6.7	14.1	20.8	19.8	31.3	28.1	59.4	100.0
대졸이상	(537)	6.9	14.2	21.0	19.4	27.6	32.0	59.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4	10.3	13.8	24.1	41.4	20.7	62.1	100.0
자영업	(291)	6.2	15.1	21.3	17.5	30.9	30.2	61.2	100.0
블루칼라	(235)	8.9	14.0	23.0	19.6	26.8	30.6	57.4	100.0
화이트칼라	(217)	6.0	10.1	16.1	18.4	32.3	33.2	65.4	100.0
전업주부	(237)	6.8	15.6	22.4	20.7	32.1	24.9	57.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9.1	16.6	25.7	21.4	25.1	27.8	52.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7.9	13.3	21.1	22.9	26.9	29.0	55.9	100.0
200~299만원	(370)	8.6	16.2	24.9	17.3	30.0	27.8	57.8	100.0
300~399만원	(297)	4.7	13.8	18.5	21.5	33.3	26.6	59.9	100.0
400만원 이상	(246)	6.9	13.0	19.9	15.9	30.1	34.1	64.2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8.3	12.2	20.5	21.2	32.0	26.4	58.4	100.0
중부권	(118)	5.9	9.3	15.3	18.6	26.3	39.8	66.1	100.0
호남권	(119)	5.0	15.1	20.2	14.3	36.1	29.4	65.5	100.0
영남권	(323)	6.8	18.6	25.4	18.9	26.3	29.4	55.7	100.0
강원	(36)	5.6	19.4	25.0	8.3	33.3	33.3	66.7	100.0
제주	(13)	.0	15.4	15.4	46.2	.0	38.5	38.5	100.0
■ 정치적 성향									
진보적	(303)	9.6	18.5	28.1	19.8	28.7	23.4	52.1	100.0
중도	(568)	6.2	13.2	19.4	22.2	30.1	28.3	58.5	100.0
보수적	(327)	6.4	11.9	18.3	14.7	31.2	35.8	67.0	100.0



표 9-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실업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①+②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전체	(1200)	8.0	22.0	30.0	15.0	32.2	22.8	54.9	.1	100.0
■ 성별										
남자	(603)	9.8	24.4	34.2	14.6	28.4	22.7	51.1	.2	100.0
여자	(597)	6.2	19.6	25.8	15.4	36.0	22.8	58.8	.0	100.0
■ 연령별										
20대	(302)	6.6	21.5	28.1	18.9	27.2	25.5	52.6	.3	100.0
30대	(314)	8.3	26.8	35.0	14.3	29.3	21.3	50.6	.0	100.0
40대	(305)	10.2	20.7	30.8	8.5	36.7	23.9	60.7	.0	100.0
50대이상	(279)	6.8	18.6	25.4	18.6	35.8	20.1	55.9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7.9	14.5	22.4	16.4	42.1	19.1	61.2	.0	100.0
고졸	(505)	7.7	20.0	27.7	14.7	31.5	25.9	57.4	.2	100.0
대졸이상	(537)	8.4	25.5	33.9	14.9	30.2	21.0	51.2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17.2	17.2	20.7	41.4	20.7	62.1	.0	100.0
자영업	(291)	8.2	21.3	29.6	10.3	36.8	23.4	60.1	.0	100.0
블루칼라	(235)	8.1	21.7	29.8	16.2	28.1	25.5	53.6	.4	100.0
화이트칼라	(217)	6.5	24.9	31.3	12.4	32.3	24.0	56.2	.0	100.0
전업주부	(237)	7.2	21.1	28.3	15.2	34.2	22.4	56.5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1.8	22.5	34.2	22.5	25.1	18.2	43.3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5.4	23.3	28.7	18.6	26.5	26.2	52.7	.0	100.0
200~299만원	(370)	10.0	21.6	31.6	14.6	31.4	22.4	53.8	.0	100.0
300~399만원	(297)	8.1	22.6	30.6	13.1	36.7	19.2	55.9	.3	100.0
400만원 이상	(246)	7.7	20.3	28.0	13.4	35.0	23.6	58.5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8.3	21.0	29.3	15.2	34.9	20.5	55.3	.2	100.0
충부권	(118)	8.5	21.2	29.7	22.9	19.5	28.0	47.5	.0	100.0
호남권	(119)	9.2	26.9	36.1	12.6	35.3	16.0	51.3	.0	100.0
영남권	(323)	7.1	20.7	27.9	11.1	32.5	28.5	61.0	.0	100.0
강원	(36)	8.3	33.3	41.7	22.2	27.8	8.3	36.1	.0	100.0
제주	(13)	.0	30.8	30.8	30.8	.0	38.5	38.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0.9	26.4	37.3	13.2	28.7	20.8	49.5	.0	100.0
중도	(568)	7.4	19.0	26.4	16.0	37.3	20.1	57.4	.2	100.0
보수적	(327)	6.1	23.2	29.4	15.0	26.3	29.4	55.7	.0	100.0

표 9-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범 죄 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 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전체	(1200)	3.0	6.2	9.2	24.3	42.5	24.0	66.5	100.0
■ 성별									
남자	(603)	2.8	6.3	9.1	25.9	39.6	25.4	65.0	100.0
여자	(597)	3.2	6.0	9.2	22.8	45.4	22.6	68.0	100.0
■ 연령별									
20대	(302)	3.3	6.3	9.6	26.8	40.7	22.8	63.6	100.0
30대	(314)	2.2	6.7	8.9	25.5	41.4	24.2	65.6	100.0
40대	(305)	3.3	4.6	7.9	21.0	46.2	24.9	71.1	100.0
50대 이상	(279)	3.2	7.2	10.4	24.0	41.6	24.0	65.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52)	5.9	3.3	9.2	21.7	44.7	24.3	69.1	100.0
고졸	(505)	3.4	6.9	10.3	22.6	42.0	25.1	67.1	100.0
대졸 이상	(537)	1.9	6.3	8.2	26.3	42.6	22.9	65.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6.9	6.9	34.5	34.5	24.1	58.6	100.0
자영업	(291)	2.1	4.8	6.9	23.7	46.7	22.7	69.4	100.0
블루칼라	(235)	3.0	7.2	10.2	25.5	36.6	27.7	64.3	100.0
화이트칼라	(217)	1.8	6.5	8.3	21.2	46.5	24.0	70.5	100.0
전업주부	(237)	4.6	7.2	11.8	19.4	44.3	24.5	68.8	100.0
학생/무직/기타	(187)	4.3	5.3	9.6	31.6	37.4	21.4	58.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4	5.4	6.8	26.2	37.3	29.7	67.0	100.0
200~299만원	(370)	4.6	6.2	10.8	24.9	43.2	21.1	64.3	100.0
300~399만원	(297)	2.7	8.8	11.4	22.2	45.8	20.5	66.3	100.0
400만원 이상	(246)	2.4	4.1	6.5	23.2	44.3	26.0	70.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4.1	5.1	9.1	24.2	45.3	21.3	66.7	100.0
충부권	(118)	1.7	4.2	5.9	29.7	37.3	27.1	64.4	100.0
호남권	(119)	.0	9.2	9.2	26.9	43.7	20.2	63.9	100.0
영남권	(323)	2.8	6.8	9.6	22.3	40.6	27.6	68.1	100.0
강원	(36)	2.8	13.9	16.7	13.9	41.7	27.8	69.4	100.0
제주	(13)	.0	7.7	7.7	38.5	.0	53.8	53.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3.6	7.9	11.6	26.4	39.3	22.8	62.0	100.0
중도	(568)	2.6	5.3	7.9	24.5	45.6	22.0	67.6	100.0
보수적	(327)	3.1	5.8	8.9	22.3	40.1	28.7	68.8	100.0



표 9-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지역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전체	(1200)	3.6	10.8	14.4	26.9	36.7	22.0	58.7	100.0
■ 성별									
남자	(603)	3.5	13.6	17.1	27.7	33.0	22.2	55.2	100.0
여자	(597)	3.7	8.0	11.7	26.1	40.4	21.8	62.1	100.0
■ 연령별									
20대	(302)	3.0	10.9	13.9	23.8	35.4	26.8	62.3	100.0
30대	(314)	2.2	11.5	13.7	28.0	37.6	20.7	58.3	100.0
40대	(305)	5.2	10.5	15.7	23.3	36.4	24.6	61.0	100.0
50대이상	(279)	3.9	10.4	14.3	33.0	37.3	15.4	52.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5.9	6.6	12.5	31.6	42.8	13.2	55.9	100.0
고졸	(505)	3.2	10.7	13.9	27.1	37.2	21.8	59.0	100.0
대졸이상	(537)	3.4	12.3	15.6	24.8	34.6	25.0	59.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13.8	13.8	27.6	48.3	10.3	58.6	100.0
자영업	(291)	2.7	11.3	14.1	24.4	35.7	25.8	61.5	100.0
블루칼라	(235)	3.0	11.1	14.0	28.5	34.9	22.6	57.4	100.0
화이트칼라	(217)	2.8	11.5	14.3	26.7	39.2	19.8	59.0	100.0
전업주부	(237)	5.1	9.7	14.8	27.8	39.7	17.7	57.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5.3	10.2	15.5	28.3	31.6	24.6	56.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4.3	11.5	15.8	25.8	35.8	22.6	58.4	100.0
200~299만원	(370)	3.5	12.2	15.7	24.9	38.6	20.8	59.5	100.0
300~399만원	(297)	3.4	11.1	14.5	31.3	34.7	19.5	54.2	100.0
400만원 이상	(246)	2.8	8.1	11.0	26.0	37.4	25.6	63.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3.6	10.8	14.4	28.3	35.0	22.3	57.4	100.0
충부권	(118)	4.2	5.9	10.2	26.3	44.1	19.5	63.6	100.0
호남권	(119)	2.5	16.8	19.3	22.7	38.7	19.3	58.0	100.0
영남권	(323)	4.0	9.6	13.6	28.2	36.5	21.7	58.2	100.0
강원	(36)	2.8	19.4	22.2	8.3	41.7	27.8	69.4	100.0
제주	(13)	.0	7.7	7.7	30.8	15.4	46.2	61.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5.6	14.2	19.8	26.1	34.7	19.5	54.1	100.0
중도	(568)	2.3	10.4	12.7	28.7	39.3	19.4	58.6	100.0
보수적	(327)	4.0	8.3	12.2	24.8	34.3	28.7	63.0	100.0

표 9-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㉞ 이념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전체	(1200)	5.3	12.0	17.3	19.3	36.5	26.8	63.3	100.0
■ 성별									
남자	(603)	6.3	14.8	21.1	20.4	33.7	24.9	58.5	100.0
여자	(597)	4.4	9.2	13.6	18.3	39.4	28.8	68.2	100.0
■ 연령별									
20대	(302)	4.6	11.6	16.2	20.2	34.8	28.8	63.6	100.0
30대	(314)	5.7	11.8	17.5	19.1	36.0	27.4	63.4	100.0
40대	(305)	6.9	13.1	20.0	16.1	36.1	27.9	63.9	100.0
50대이상	(279)	3.9	11.5	15.4	22.2	39.4	22.9	62.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4.6	7.2	11.8	21.7	40.8	25.7	66.4	100.0
고졸	(505)	4.4	9.7	14.1	21.6	37.4	26.9	64.4	100.0
대졸이상	(537)	6.5	15.5	22.0	16.0	34.6	27.4	62.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4	3.4	6.9	20.7	44.8	27.6	72.4	100.0
자영업	(291)	4.1	14.4	18.6	18.2	34.0	29.2	63.2	100.0
블루칼라	(235)	4.7	11.9	16.6	20.4	36.6	26.4	63.0	100.0
화이트칼라	(217)	5.5	13.4	18.9	16.6	39.6	24.9	64.5	100.0
전업주부	(237)	5.9	9.7	15.6	18.6	38.0	27.8	65.8	100.0
학생/무직/기타	(187)	7.5	11.2	18.7	23.0	33.2	25.1	58.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6.8	11.1	17.9	17.6	35.8	28.7	64.5	100.0
200~299만원	(370)	3.2	13.2	16.5	20.3	37.8	25.4	63.2	100.0
300~399만원	(297)	6.4	11.8	18.2	23.2	36.4	22.2	58.6	100.0
400만원 이상	(246)	5.3	11.8	17.1	15.0	35.4	32.5	67.9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5.4	14.6	20.0	22.2	32.7	25.2	57.9	100.0
중부권	(118)	4.2	6.8	11.0	16.1	46.6	26.3	72.9	100.0
호남권	(119)	4.2	12.6	16.8	12.6	42.9	27.7	70.6	100.0
영남권	(323)	4.6	8.7	13.3	19.2	39.0	28.5	67.5	100.0
강원	(36)	13.9	13.9	27.8	8.3	33.3	30.6	63.9	100.0
제주	(13)	15.4	15.4	30.8	15.4	7.7	46.2	53.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0.2	13.5	23.8	17.5	35.3	23.4	58.7	100.0
중도	(568)	2.8	12.7	15.5	19.7	39.3	25.5	64.8	100.0
보수적	(327)	5.2	9.2	14.4	20.5	32.7	32.4	65.1	100.0



표 10.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남한의 민주 주의가 완전히 이루어 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 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모름/무응답	계
		%	%	%		
■ 전체	(1200)	19.9	31.3	48.7	.1	100.0
■ 성별						
남자	(603)	19.2	29.7	50.9	.2	100.0
여자	(597)	20.6	33.0	46.4	.0	100.0
■ 연령별						
20대	(302)	16.2	36.4	47.4	.0	100.0
30대	(314)	20.4	30.3	49.4	.0	100.0
40대	(305)	19.7	28.9	51.5	.0	100.0
50대이상	(279)	23.7	29.7	46.2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24.3	27.0	48.0	.7	100.0
고졸	(505)	19.8	31.7	48.5	.0	100.0
대졸이상	(537)	18.4	32.2	49.3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7.9	27.6	34.5	.0	100.0
자영업	(291)	18.2	27.8	53.6	.3	100.0
블루칼라	(235)	19.6	26.8	53.6	.0	100.0
화이트칼라	(217)	16.6	37.3	46.1	.0	100.0
전업주부	(237)	23.6	32.1	44.3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9.3	34.8	46.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20.1	28.7	50.9	.4	100.0
200~299만원	(370)	19.5	33.2	47.3	.0	100.0
300~399만원	(297)	20.5	34.3	45.1	.0	100.0
400만원 이상	(246)	19.5	28.0	52.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6.9	30.6	52.3	.2	100.0
중부권	(118)	21.2	38.1	40.7	.0	100.0
호남권	(119)	16.0	42.0	42.0	.0	100.0
영남권	(323)	25.7	26.9	47.4	.0	100.0
강원	(36)	25.0	30.6	44.4	.0	100.0
제주	(13)	23.1	15.4	61.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1.1	35.3	43.6	.0	100.0
중도	(568)	18.7	30.5	50.7	.2	100.0
보수적	(327)	20.8	29.4	49.8	.0	100.0

표 11.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이념 체제

문)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이념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계
		%	%	%	%	%
■ 전체	(1200)	72.3	1.8	22.6	3.3	100.0
■ 성별						
남자	(603)	76.6	1.5	19.2	2.7	100.0
여자	(597)	68.0	2.0	26.0	4.0	100.0
■ 연령별						
20대	(302)	70.9	2.6	23.5	3.0	100.0
30대	(314)	67.2	1.9	29.0	1.9	100.0
40대	(305)	74.8	.7	20.7	3.9	100.0
50대이상	(279)	77.1	1.8	16.5	4.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74.3	.0	20.4	5.3	100.0
고졸	(505)	71.7	2.8	21.8	3.8	100.0
대졸이상	(537)	72.3	1.3	24.0	2.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75.9	3.4	13.8	6.9	100.0
자영업	(291)	70.1	2.4	23.7	3.8	100.0
블루칼라	(235)	71.1	1.7	22.6	4.7	100.0
화이트칼라	(217)	77.4	1.4	20.3	.9	100.0
전업주부	(237)	69.6	1.3	24.5	4.6	100.0
학생/무직/기타	(187)	74.3	1.6	22.5	1.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68.8	2.2	22.9	6.1	100.0
200~299만원	(370)	73.0	1.6	22.7	2.7	100.0
300~399만원	(297)	76.4	2.7	18.9	2.0	100.0
400만원 이상	(246)	70.7	.4	26.0	2.8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70.7	2.0	24.2	3.0	100.0
중부권	(118)	70.3	.8	23.7	5.1	100.0
호남권	(119)	73.1	.8	23.5	2.5	100.0
영남권	(323)	76.8	2.2	18.3	2.8	100.0
강원	(36)	63.9	.0	30.6	5.6	100.0
제주	(13)	69.2	.0	15.4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70.3	3.0	24.1	2.6	100.0
중도	(568)	71.7	1.4	23.2	3.7	100.0
보수적	(327)	75.2	1.2	20.2	3.4	100.0



표 12.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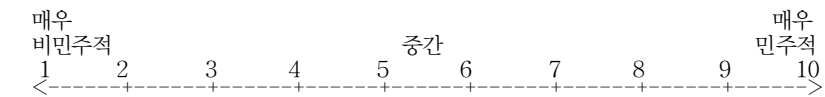
문)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 전체	(1200)	21.8	56.6	3.3	11.8	6.6	100.0
■ 성별							
남자	(603)	19.6	58.4	3.0	12.6	6.5	100.0
여자	(597)	24.1	54.8	3.5	10.9	6.7	100.0
■ 연령별							
20대	(302)	16.9	61.6	5.0	9.3	7.3	100.0
30대	(314)	22.0	60.8	2.9	9.6	4.8	100.0
40대	(305)	20.7	57.7	2.0	13.4	6.2	100.0
50대이상	(279)	28.3	45.2	3.2	15.1	8.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27.6	42.8	2.0	19.7	7.9	100.0
고졸	(505)	24.4	52.9	3.8	13.3	5.7	100.0
대졸이상	(537)	17.7	64.1	3.0	8.2	7.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13.8	62.1	.0	20.7	3.4	100.0
자영업	(291)	21.3	54.6	3.1	14.1	6.9	100.0
블루칼라	(235)	20.9	59.1	3.0	13.6	3.4	100.0
화이트칼라	(217)	19.8	63.1	2.3	8.3	6.5	100.0
전업주부	(237)	29.1	46.0	3.8	13.1	8.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8.7	60.4	4.8	7.0	9.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9.4	53.4	3.6	15.1	8.6	100.0
200~299만원	(370)	24.3	54.6	3.0	11.6	6.5	100.0
300~399만원	(297)	22.6	57.6	4.4	9.4	6.1	100.0
400만원 이상	(246)	20.3	61.4	2.0	11.4	4.9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23.2	55.5	3.0	12.5	5.8	100.0
중부권	(118)	14.4	66.1	1.7	11.9	5.9	100.0
호남권	(119)	25.2	64.7	.8	4.2	5.0	100.0
영남권	(323)	21.7	52.6	5.0	13.0	7.7	100.0
강원	(36)	13.9	55.6	.0	13.9	16.7	100.0
제주	(13)	23.1	46.2	15.4	7.7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5.8	64.7	5.3	9.9	4.3	100.0
중도	(568)	20.6	56.5	2.6	12.9	7.4	100.0
보수적	(327)	29.7	48.9	2.4	11.6	7.3	100.0

표 13. 북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문) ○○님은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1	2	3	4	5	6	7	8	9
		%	%	%	%	%	%	%	%	%
■ 전체	(1200)	32.6	28.4	21.5	8.3	5.8	2.1	.5	.5	.3
■ 성별										
남자	(603)	31.7	28.9	22.6	8.0	5.6	1.7	.3	1.0	.3
여자	(597)	33.5	28.0	20.4	8.5	5.9	2.5	.7	.0	.3
■ 연령별										
20대	(302)	29.5	25.2	21.9	10.9	8.3	2.0	1.3	.7	.3
30대	(314)	28.0	31.5	23.6	8.3	5.1	2.9	.0	.6	.0
40대	(305)	35.1	25.9	23.6	6.9	4.6	1.6	.7	.3	1.0
50대이상	(279)	38.4	31.2	16.5	6.8	5.0	1.8	.0	.4	.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32.9	27.6	20.4	7.9	7.9	2.6	.7	.0	.0
고졸	(505)	31.9	26.5	23.6	9.1	5.7	1.6	.2	.8	.6
대졸이상	(537)	33.3	30.0	19.9	7.6	5.2	2.4	.7	.4	.2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41.4	31.0	17.2	6.9	3.4	.0	.0	.0	.0
자영업	(291)	39.2	25.8	19.9	6.5	4.5	1.7	.0	1.0	1.0
블루칼라	(235)	23.0	25.5	28.5	13.2	6.0	3.0	.4	.4	.0
화이트칼라	(217)	24.9	40.6	18.4	7.8	4.6	2.3	.0	.9	.5
전업주부	(237)	38.4	28.3	20.3	5.9	5.5	1.3	.4	.0	.0
학생/무직/기타	(187)	34.2	22.5	20.9	8.6	9.6	2.1	2.1	.0	.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31.5	27.6	23.3	8.2	7.5	1.4	.0	.4	.0
200~299만원	(370)	33.0	30.5	19.7	7.3	4.6	3.0	.8	.8	.3
300~399만원	(297)	30.0	27.3	22.2	7.7	8.1	2.4	.7	.7	1.0
400만원 이상	(246)	36.2	27.2	21.5	10.6	2.4	1.2	.4	.0	.0
■ 지역별										
수도권	(591)	35.2	28.6	17.9	8.1	5.9	2.7	.5	.5	.5
중부권	(118)	31.4	23.7	20.3	13.6	7.6	2.5	.8	.0	.0
호남권	(119)	29.4	28.6	32.8	4.2	3.4	.8	.0	.8	.0
영남권	(323)	29.1	28.2	24.8	9.0	5.6	1.5	.6	.6	.3
강원	(36)	33.3	41.7	19.4	2.8	2.8	.0	.0	.0	.0
제주	(13)	38.5	30.8	15.4	.0	15.4	.0	.0	.0	.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31.4	27.1	25.1	6.3	6.6	1.7	.7	.7	.7
중도	(568)	30.8	27.6	21.5	10.6	5.5	2.6	.7	.7	.0
보수적	(327)	36.7	30.9	18.3	6.1	5.5	1.5	.0	.0	.6



(continued)



표 13. 북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문) ○○님은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0	계	(평균)
	%	%	점
■ 전체	.1	100.0	(2.40)
■ 성별			
남자	.0	100.0	(2.40)
여자	.2	100.0	(2.39)
■ 연령별			
20대	.0	100.0	(2.60)
30대	.0	100.0	(2.43)
40대	.3	100.0	(2.37)
50대이상	.0	100.0	(2.16)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0	100.0	(2.41)
고졸	.0	100.0	(2.43)
대졸이상	.2	100.0	(2.36)
■ 직업별			
농/수/축산업	.0	100.0	(2.00)
자영업	.3	100.0	(2.30)
블루칼라	.0	100.0	(2.66)
화이트칼라	.0	100.0	(2.41)
전업주부	.0	100.0	(2.17)
학생/무직/기타	.0	100.0	(2.52)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0	100.0	(2.39)
200~299만원	.0	100.0	(2.38)
300~399만원	.0	100.0	(2.56)
400만원 이상	.4	100.0	(2.24)
■ 지역별			
수도권	.0	100.0	(2.37)
중부권	.0	100.0	(2.53)
호남권	.0	100.0	(2.30)
영남권	.3	100.0	(2.48)
강원	.0	100.0	(2.00)
제주	.0	100.0	(2.23)
■ 정치적성향			
진보적	.0	100.0	(2.45)
중도	.0	100.0	(2.46)
보수적	.3	100.0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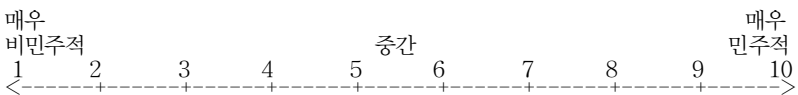


표 14.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문) 그럼, 현재 남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1	2	3	4	5	6	7	8	9
		%	%	%	%	%	%	%	%	%
■ 전체	(1200)	.8	.3	1.3	2.9	11.2	19.9	25.2	26.8	8.0
■ 성별										
남자	(603)	.3	.7	2.0	3.3	11.1	16.9	26.9	26.2	7.8
여자	(597)	1.2	.0	.7	2.5	11.2	22.9	23.5	27.3	8.2
■ 연령별										
20대	(302)	.7	.0	1.3	5.0	11.6	15.6	28.8	28.8	5.6
30대	(314)	1.6	.3	2.2	2.9	11.1	22.9	27.4	20.4	8.9
40대	(305)	.7	1.0	.7	2.0	13.1	19.7	23.3	27.5	7.5
50대이상	(279)	.0	.0	1.1	1.8	8.6	21.5	20.8	30.8	1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0	.0	.7	2.0	7.9	18.4	26.3	29.6	11.2
고졸	(505)	.8	.2	1.2	2.2	11.7	19.4	23.2	28.1	9.7
대졸이상	(537)	.9	.6	1.7	3.9	11.7	20.7	26.8	24.6	5.4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3.4	.0	3.4	3.4	27.6	27.6	24.1	6.9
자영업	(291)	.7	.7	2.7	2.4	11.3	19.2	24.7	25.4	9.3
블루칼라	(235)	1.3	.0	.4	3.4	11.1	19.6	24.7	26.4	9.4
화이트칼라	(217)	.0	.5	.9	2.8	10.6	22.1	26.7	24.4	6.5
전업주부	(237)	.8	.0	.4	1.7	11.8	23.2	23.2	27.4	8.4
학생/무직/기타	(187)	1.1	.0	2.1	4.8	12.3	13.9	26.2	32.1	4.8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4	.4	2.2	5.0	11.1	16.8	22.9	28.3	7.9
200~299만원	(370)	.5	.5	1.4	2.4	10.0	21.4	27.0	26.5	7.6
300~399만원	(297)	.3	.3	.0	1.3	10.8	22.6	25.3	26.9	8.4
400만원 이상	(246)	.8	.0	2.0	2.8	13.8	18.7	24.4	24.8	8.1
■ 지역별										
수도권	(591)	.5	.5	1.4	3.6	12.2	21.3	23.9	24.0	8.8
중부권	(118)	.0	.0	.0	6.8	6.8	17.8	29.7	26.3	9.3
호남권	(119)	1.7	.0	5.0	.0	5.0	20.2	19.3	31.9	10.1
영남권	(323)	.9	.3	.6	1.5	12.4	18.6	28.5	29.4	5.9
강원	(36)	2.8	.0	.0	2.8	11.1	13.9	19.4	41.7	5.6
제주	(13)	.0	.0	.0	.0	30.8	23.1	30.8	.0	.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0	.7	.7	2.3	11.9	22.8	23.4	24.4	6.9
중도	(568)	.2	.2	1.4	3.3	12.0	20.1	24.3	26.6	9.2
보수적	(327)	.6	.3	1.8	2.8	9.2	16.8	28.4	29.4	7.0

(continued)



표 14.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문) 그럼, 현재 남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0	계	(평균)
	%	%	점
■ 전체	3.7	100.0	(6.91)
■ 성별			
남자	4.8	100.0	(6.94)
여자	2.5	100.0	(6.89)
■ 연령별			
20대	2.6	100.0	(6.85)
30대	2.2	100.0	(6.71)
40대	4.6	100.0	(6.93)
50대이상	5.4	100.0	(7.19)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3.9	100.0	(7.21)
고졸	3.6	100.0	(6.98)
대졸이상	3.7	100.0	(6.76)
■ 직업별			
농/수/축산업	3.4	100.0	(6.86)
자영업	3.4	100.0	(6.87)
블루칼라	3.8	100.0	(6.95)
화이트칼라	5.5	100.0	(6.96)
전업주부	3.0	100.0	(6.95)
학생/무직/기타	2.7	100.0	(6.82)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3.9	100.0	(6.83)
200~299만원	2.7	100.0	(6.90)
300~399만원	4.0	100.0	(7.04)
400만원 이상	4.5	100.0	(6.87)
■ 지역별			
수도권	3.9	100.0	(6.86)
중부권	3.4	100.0	(7.03)
호남권	6.7	100.0	(7.12)
영남권	1.9	100.0	(6.89)
강원	2.8	100.0	(7.00)
제주	15.4	100.0	(6.62)
■ 정치적성향			
진보적	5.0	100.0	(6.82)
중도	2.8	100.0	(6.92)
보수적	3.7	100.0	(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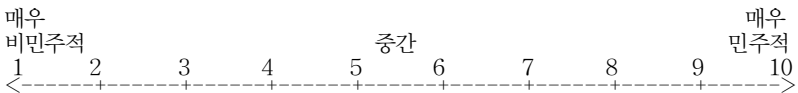


표 15.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도

문)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신뢰 한다	다소 신뢰 한다	%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	%
■ 전체	(1200)	.8	8.0	8.8	53.3	37.8	91.1	.2	100.0
■ 성별									
남자	(603)	.8	9.8	10.6	53.6	35.5	89.1	.3	100.0
여자	(597)	.7	6.2	6.9	52.9	40.2	93.1	.0	100.0
■ 연령별									
20대	(302)	.3	7.3	7.6	52.6	39.7	92.4	.0	100.0
30대	(314)	1.0	8.3	9.2	57.3	32.8	90.1	.6	100.0
40대	(305)	1.3	8.9	10.2	52.8	37.0	89.8	.0	100.0
50대이상	(279)	.4	7.5	7.9	49.8	42.3	92.1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0	6.6	6.6	49.3	44.1	93.4	.0	100.0
고졸	(505)	1.4	7.5	8.9	54.7	36.2	90.9	.2	100.0
대졸이상	(537)	.4	8.9	9.3	53.1	37.4	90.5	.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6.9	13.8	51.7	34.5	86.2	.0	100.0
자영업	(291)	.0	9.3	9.3	51.5	39.2	90.7	.0	100.0
블루칼라	(235)	.9	10.6	11.5	53.2	34.9	88.1	.4	100.0
화이트칼라	(217)	.9	6.9	7.8	57.6	34.1	91.7	.5	100.0
전업주부	(237)	.8	5.5	6.3	51.5	42.2	93.7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5	7.5	8.0	53.5	38.5	92.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1	6.1	7.2	50.9	41.9	92.8	.0	100.0
200~299만원	(370)	.5	8.1	8.6	55.9	35.1	91.1	.3	100.0
300~399만원	(297)	.0	11.4	11.4	49.8	38.4	88.2	.3	100.0
400만원 이상	(246)	1.6	5.7	7.3	55.7	37.0	92.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2	7.4	7.6	53.8	38.2	92.0	.3	100.0
중부권	(118)	.8	7.6	8.5	53.4	38.1	91.5	.0	100.0
호남권	(119)	3.4	17.6	21.0	47.9	31.1	79.0	.0	100.0
영남권	(323)	.9	6.2	7.1	52.6	40.2	92.9	.0	100.0
강원	(36)	.0	2.8	2.8	63.9	33.3	97.2	.0	100.0
제주	(13)	.0	7.7	7.7	61.5	30.8	92.3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0	14.2	16.2	53.1	30.7	83.8	.0	100.0
중도	(568)	.5	6.7	7.2	56.3	36.1	92.4	.4	100.0
보수적	(327)	.0	4.6	4.6	48.0	47.4	95.4	.0	100.0



표 16. 김정일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0)	1.4	11.6	13.0	54.8	32.2	87.0	100.0
■ 성별								
남자	(603)	1.8	12.9	14.8	54.2	31.0	85.2	100.0
여자	(597)	1.0	10.2	11.2	55.4	33.3	88.8	100.0
■ 연령별								
20대	(302)	.7	12.3	12.9	59.3	27.8	87.1	100.0
30대	(314)	3.2	11.8	15.0	55.4	29.6	85.0	100.0
40대	(305)	1.3	12.5	13.8	52.1	34.1	86.2	100.0
50대이상	(279)	.4	9.7	10.0	52.3	37.6	9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7	9.9	10.5	50.0	39.5	89.5	100.0
고졸	(505)	.8	11.1	11.9	53.9	34.3	88.1	100.0
대졸이상	(537)	2.2	12.7	14.9	57.2	27.9	85.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17.2	17.2	41.4	41.4	82.8	100.0
자영업	(291)	1.0	13.1	14.1	49.1	36.8	85.9	100.0
블루칼라	(235)	1.7	13.6	15.3	54.9	29.8	84.7	100.0
화이트칼라	(217)	2.8	12.9	15.7	58.5	25.8	84.3	100.0
전업주부	(237)	1.3	6.3	7.6	54.4	38.0	92.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5	10.7	11.2	62.6	26.2	88.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8	11.8	13.6	50.2	36.2	86.4	100.0
200~299만원	(370)	.5	10.3	10.8	55.4	33.8	89.2	100.0
300~399만원	(297)	1.7	13.8	15.5	55.2	29.3	84.5	100.0
400만원 이상	(246)	1.6	9.8	11.4	59.8	28.9	88.6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7	10.8	12.5	53.3	34.2	87.5	100.0
중부권	(118)	.8	15.3	16.1	50.8	33.1	83.9	100.0
호남권	(119)	1.7	17.6	19.3	55.5	25.2	80.7	100.0
영남권	(323)	1.2	9.9	11.1	58.2	30.7	88.9	100.0
강원	(36)	.0	8.3	8.3	58.3	33.3	91.7	100.0
제주	(13)	.0	7.7	7.7	61.5	30.8	92.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6	18.2	20.8	51.8	27.4	79.2	100.0
중도	(568)	1.1	9.9	10.9	57.4	31.7	89.1	100.0
보수적	(327)	.9	8.6	9.5	53.2	37.3	90.5	100.0

표 17.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	별로 변하지 않고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있다	%	%
■ 전체	(1200)	12.2	56.7	68.8	25.3	5.8	31.2	100.0
■ 성별								
남자	(603)	12.6	58.9	71.5	21.2	7.3	28.5	100.0
여자	(597)	11.7	54.4	66.2	29.5	4.4	33.8	100.0
■ 연령별								
20대	(302)	12.3	53.6	65.9	25.8	8.3	34.1	100.0
30대	(314)	11.1	60.8	72.0	23.2	4.8	28.0	100.0
40대	(305)	15.4	55.7	71.1	23.9	4.9	28.9	100.0
50대이상	(279)	9.7	56.3	65.9	28.7	5.4	34.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1.8	55.9	67.8	28.3	3.9	32.2	100.0
고졸	(505)	10.9	56.8	67.7	26.9	5.3	32.3	100.0
대졸이상	(537)	13.6	56.4	70.0	23.1	6.9	3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4	69.0	72.4	20.7	6.9	27.6	100.0
자영업	(291)	13.7	56.7	70.4	23.7	5.8	29.6	100.0
블루칼라	(235)	12.3	56.2	68.5	24.3	7.2	31.5	100.0
화이트칼라	(217)	13.8	61.3	75.1	20.7	4.1	24.9	100.0
전업주부	(237)	8.4	52.3	60.8	33.8	5.5	39.2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3.4	55.6	69.0	24.6	6.4	31.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4.0	57.0	71.0	23.3	5.7	29.0	100.0
200~299만원	(370)	10.3	54.3	64.6	30.3	5.1	35.4	100.0
300~399만원	(297)	11.4	57.9	69.4	24.2	6.4	30.6	100.0
400만원 이상	(246)	13.8	58.1	72.0	22.4	5.7	28.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2.4	52.5	64.8	26.7	8.5	35.2	100.0
중부권	(118)	9.3	58.5	67.8	28.8	3.4	32.2	100.0
호남권	(119)	21.0	60.5	81.5	17.6	.8	18.5	100.0
영남권	(323)	8.4	62.2	70.6	25.7	3.7	29.4	100.0
강원	(36)	13.9	63.9	77.8	13.9	8.3	22.2	100.0
제주	(13)	38.5	38.5	76.9	23.1	.0	23.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5.8	59.4	75.2	20.8	4.0	24.8	100.0
중도	(568)	12.3	54.6	66.9	26.9	6.2	33.1	100.0
보수적	(327)	8.3	57.8	66.1	26.9	7.0	33.9	100.0



표 18.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문)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전체	(1200)	12.5	47.2	59.7	34.1	6.2	40.3	.1	100.0
■ 성별									
남자	(603)	11.6	43.8	55.4	36.8	7.8	44.6	.0	100.0
여자	(597)	13.4	50.6	64.0	31.3	4.5	35.8	.2	100.0
■ 연령별									
20대	(302)	20.9	45.7	66.6	29.8	3.3	33.1	.3	100.0
30대	(314)	8.3	51.6	59.9	33.4	6.7	40.1	.0	100.0
40대	(305)	8.2	46.2	54.4	37.4	8.2	45.6	.0	100.0
50대이상	(279)	12.9	44.8	57.7	35.8	6.5	42.3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3.2	42.8	55.9	37.5	6.6	44.1	.0	100.0
고졸	(505)	9.7	47.5	57.2	34.7	8.1	42.8	.0	100.0
대졸이상	(537)	15.1	48.0	63.1	32.4	4.3	36.7	.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41.4	48.3	44.8	6.9	51.7	.0	100.0
자영업	(291)	9.6	47.1	56.7	36.4	6.9	43.3	.0	100.0
블루칼라	(235)	10.2	46.4	56.6	37.0	6.4	43.4	.0	100.0
화이트칼라	(217)	10.1	41.9	52.1	39.2	8.8	47.9	.0	100.0
전업주부	(237)	13.9	48.9	62.9	32.1	5.1	37.1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21.9	52.9	74.9	21.9	3.2	25.1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4.0	48.7	62.7	31.9	5.4	37.3	.0	100.0
200~299만원	(370)	11.1	48.4	59.5	33.8	6.8	40.5	.0	100.0
300~399만원	(297)	10.8	43.8	54.5	39.4	5.7	45.1	.3	100.0
400만원 이상	(246)	15.0	47.2	62.2	30.9	6.9	37.8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3.4	49.6	62.9	31.1	5.8	36.9	.2	100.0
중부권	(118)	15.3	44.9	60.2	38.1	1.7	39.8	.0	100.0
호남권	(119)	9.2	47.1	56.3	37.0	6.7	43.7	.0	100.0
영남권	(323)	9.9	45.2	55.1	37.2	7.7	44.9	.0	100.0
강원	(36)	22.2	47.2	69.4	22.2	8.3	30.6	.0	100.0
제주	(13)	15.4	7.7	23.1	61.5	15.4	76.9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3.5	40.9	54.5	36.6	8.9	45.5	.0	100.0
중도	(568)	9.5	50.5	60.0	34.3	5.5	39.8	.2	100.0
보수적	(327)	16.8	47.4	64.2	31.2	4.6	35.8	.0	100.0

표 19-1.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선군정치

문)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4.5	16.4	25.3	53.8	100.0
■ 성별						
남자	(603)	7.6	24.2	27.7	40.5	100.0
여자	(597)	1.3	8.5	22.8	67.3	100.0
■ 연령별						
20대	(302)	5.0	14.2	27.2	53.6	100.0
30대	(314)	2.5	15.9	27.7	53.8	100.0
40대	(305)	6.9	17.0	28.2	47.9	100.0
50대이상	(279)	3.6	18.6	17.2	60.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3	7.2	17.8	73.7	100.0
고졸	(505)	3.4	14.1	23.8	58.8	100.0
대졸이상	(537)	6.5	21.2	29.1	43.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17.2	13.8	69.0	100.0
자영업	(291)	6.9	16.8	23.4	52.9	100.0
블루칼라	(235)	2.6	17.4	27.7	52.3	100.0
화이트칼라	(217)	6.5	25.8	27.6	40.1	100.0
전업주부	(237)	.8	5.5	22.4	71.3	100.0
학생/무직/기타	(187)	6.4	17.6	27.8	48.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4.3	15.4	22.6	57.7	100.0
200~299만원	(370)	2.4	11.4	27.6	58.6	100.0
300~399만원	(297)	5.7	18.5	24.9	50.8	100.0
400만원 이상	(246)	6.5	22.8	24.8	45.9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4.6	17.6	25.4	52.5	100.0
중부권	(118)	4.2	10.2	32.2	53.4	100.0
호남권	(119)	4.2	20.2	18.5	57.1	100.0
영남권	(323)	4.6	15.8	24.1	55.4	100.0
강원	(36)	2.8	8.3	30.6	58.3	100.0
제주	(13)	7.7	23.1	30.8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5.9	24.4	28.1	41.6	100.0
중도	(568)	3.5	13.9	24.8	57.7	100.0
보수적	(327)	4.6	13.5	23.5	58.4	100.0



표 19-2. 북한 사회 인지도 - ④ 주체사상

문)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11.3	33.7	36.8	18.3	100.0
■ 성별						
남자	(603)	16.6	41.8	30.3	11.3	100.0
여자	(597)	6.0	25.5	43.2	25.3	100.0
■ 연령별						
20대	(302)	7.6	32.1	35.4	24.8	100.0
30대	(314)	10.2	39.2	38.2	12.4	100.0
40대	(305)	17.7	35.1	34.4	12.8	100.0
50대이상	(279)	9.7	27.6	39.1	23.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5.3	19.7	42.8	32.2	100.0
고졸	(505)	9.3	31.7	38.4	20.6	100.0
대졸이상	(537)	15.1	39.7	33.1	12.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13.8	34.5	34.5	17.2	100.0
자영업	(291)	13.7	39.9	35.7	10.7	100.0
블루칼라	(235)	10.6	33.2	33.2	23.0	100.0
화이트칼라	(217)	18.4	40.6	32.3	8.8	100.0
전업주부	(237)	3.8	19.0	46.8	30.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9.1	35.8	34.8	20.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1.8	29.4	35.1	23.7	100.0
200~299만원	(370)	8.4	33.0	38.9	19.7	100.0
300~399만원	(297)	12.5	34.3	36.4	16.8	100.0
400만원 이상	(246)	14.2	38.6	36.2	11.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1.0	34.9	36.0	18.1	100.0
중부권	(118)	13.6	34.7	38.1	13.6	100.0
호남권	(119)	10.9	37.0	31.9	20.2	100.0
영남권	(323)	10.2	30.0	40.9	18.9	100.0
강원	(36)	13.9	30.6	30.6	25.0	100.0
제주	(13)	30.8	38.5	15.4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6.2	45.2	25.4	13.2	100.0
중도	(568)	9.7	30.1	41.0	19.2	100.0
보수적	(327)	9.5	29.1	40.1	21.4	100.0

표 19-3.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천리마운동

문)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10.7	27.8	36.6	25.0	100.0
■ 성별						
남자	(603)	14.9	34.2	33.8	17.1	100.0
여자	(597)	6.4	21.3	39.4	33.0	100.0
■ 연령별						
20대	(302)	4.0	22.8	35.4	37.7	100.0
30대	(314)	8.3	33.4	39.2	19.1	100.0
40대	(305)	19.7	29.8	34.8	15.7	100.0
50대이상	(279)	10.8	24.4	36.9	28.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6.6	17.8	36.2	39.5	100.0
고졸	(505)	10.1	26.5	37.2	26.1	100.0
대졸이상	(537)	12.5	31.8	35.9	19.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17.2	20.7	34.5	27.6	100.0
자영업	(291)	15.1	30.9	37.5	16.5	100.0
블루칼라	(235)	9.8	28.9	37.4	23.8	100.0
화이트칼라	(217)	13.8	35.9	30.0	20.3	100.0
전업주부	(237)	5.1	16.9	40.5	37.6	100.0
학생/무직/기타	(187)	7.5	26.2	37.4	28.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9.7	26.2	32.3	31.9	100.0
200~299만원	(370)	7.8	26.5	39.5	26.2	100.0
300~399만원	(297)	11.8	31.0	34.7	22.6	100.0
400만원 이상	(246)	15.0	28.0	39.0	17.9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1.0	29.1	34.5	25.4	100.0
중부권	(118)	11.9	26.3	43.2	18.6	100.0
호남권	(119)	14.3	22.7	32.8	30.3	100.0
영남권	(323)	7.1	27.6	39.3	26.0	100.0
강원	(36)	13.9	27.8	41.7	16.7	100.0
제주	(13)	30.8	30.8	23.1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4.5	33.7	31.0	20.8	100.0
중도	(568)	9.5	26.1	38.2	26.2	100.0
보수적	(327)	8.9	25.4	39.1	26.6	100.0



표 19-4.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고난의 행군

문)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0)	5.8	13.8	26.5	53.8	.1	100.0
■ 성별							
남자	(603)	8.6	19.7	29.0	42.6	.0	100.0
여자	(597)	2.8	7.9	24.0	65.2	.2	100.0
■ 연령별							
20대	(302)	1.7	10.6	22.2	65.6	.0	100.0
30대	(314)	4.8	14.6	27.7	52.9	.0	100.0
40대	(305)	9.2	18.4	28.9	43.3	.3	100.0
50대이상	(279)	7.5	11.5	27.2	53.8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3.9	6.6	23.7	65.8	.0	100.0
고졸	(505)	4.8	13.1	26.9	55.0	.2	100.0
대졸이상	(537)	7.3	16.6	27.2	49.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3.4	31.0	58.6	.0	100.0
자영업	(291)	8.2	14.8	29.6	47.4	.0	100.0
블루칼라	(235)	5.1	16.2	28.5	49.8	.4	100.0
화이트칼라	(217)	7.8	22.1	26.3	43.8	.0	100.0
전업주부	(237)	2.1	6.3	22.4	69.2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4.8	11.2	24.1	59.9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6.1	14.0	26.2	53.8	.0	100.0
200~299만원	(370)	3.5	11.4	25.4	59.7	.0	100.0
300~399만원	(297)	6.4	14.8	25.9	52.5	.3	100.0
400만원 이상	(246)	8.1	16.3	29.7	45.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5.9	13.5	25.4	55.0	.2	100.0
중부권	(118)	5.9	16.9	29.7	47.5	.0	100.0
호남권	(119)	7.6	16.0	24.4	52.1	.0	100.0
영남권	(323)	4.3	12.7	29.4	53.6	.0	100.0
강원	(36)	11.1	11.1	13.9	63.9	.0	100.0
제주	(13)	.0	15.4	30.8	53.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8.3	19.1	26.4	46.2	.0	100.0
중도	(568)	4.9	11.8	26.2	56.9	.2	100.0
보수적	(327)	4.9	12.5	27.2	55.4	.0	100.0

표 19-5.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꽃제비

문)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0)	4.7	11.3	22.3	61.6	.1	100.0
■ 성별							
남자	(603)	6.8	15.8	24.2	53.2	.0	100.0
여자	(597)	2.5	6.9	20.4	70.0	.2	100.0
■ 연령별							
20대	(302)	4.0	11.3	17.5	67.2	.0	100.0
30대	(314)	3.8	10.8	22.0	63.4	.0	100.0
40대	(305)	4.9	12.5	28.9	53.4	.3	100.0
50대이상	(279)	6.1	10.8	20.8	62.4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3	7.2	15.8	75.7	.0	100.0
고졸	(505)	3.8	9.7	23.8	62.6	.2	100.0
대졸이상	(537)	6.5	14.0	23.1	56.4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4	6.9	20.7	69.0	.0	100.0
자영업	(291)	5.8	13.1	23.7	57.4	.0	100.0
블루칼라	(235)	5.1	10.2	21.3	63.0	.4	100.0
화이트칼라	(217)	7.4	15.7	23.0	53.9	.0	100.0
전업주부	(237)	.8	7.2	23.2	68.8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4.3	11.2	20.3	64.2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5.0	12.2	20.1	62.7	.0	100.0
200~299만원	(370)	2.4	10.0	21.4	66.2	.0	100.0
300~399만원	(297)	4.4	9.4	26.9	58.9	.3	100.0
400만원 이상	(246)	8.1	15.0	20.7	56.1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5.9	12.7	22.0	59.2	.2	100.0
중부권	(118)	5.1	10.2	25.4	59.3	.0	100.0
호남권	(119)	5.9	10.1	21.0	63.0	.0	100.0
영남권	(323)	2.2	8.4	23.5	65.9	.0	100.0
강원	(36)	2.8	22.2	13.9	61.1	.0	100.0
제주	(13)	.0	15.4	15.4	69.2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6.3	13.5	22.4	57.8	.0	100.0
중도	(568)	3.5	10.4	23.8	62.1	.2	100.0
보수적	(327)	5.2	11.0	19.9	63.9	.0	100.0



표 19-6.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아리랑 축전

문)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6.2	19.9	35.2	38.8	100.0
■ 성별						
남자	(603)	7.6	26.5	34.2	31.7	100.0
여자	(597)	4.7	13.2	36.2	45.9	100.0
■ 연령별						
20대	(302)	4.3	14.6	29.8	51.3	100.0
30대	(314)	4.8	22.3	39.8	33.1	100.0
40대	(305)	9.2	23.9	36.4	30.5	100.0
50대이상	(279)	6.5	18.6	34.4	40.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3	13.8	32.9	52.0	100.0
고졸	(505)	5.7	16.4	37.6	40.2	100.0
대졸이상	(537)	8.0	25.0	33.7	33.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24.1	44.8	24.1	100.0
자영업	(291)	7.6	22.3	39.9	30.2	100.0
블루칼라	(235)	6.8	20.0	34.9	38.3	100.0
화이트칼라	(217)	6.9	26.3	38.2	28.6	100.0
전업주부	(237)	2.5	13.9	35.4	48.1	100.0
학생/무직/기타	(187)	7.0	16.0	23.5	53.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7.2	19.4	33.0	40.5	100.0
200~299만원	(370)	4.3	14.9	40.3	40.5	100.0
300~399만원	(297)	6.4	19.9	31.6	42.1	100.0
400만원 이상	(246)	7.7	28.0	35.0	29.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6.8	20.1	32.8	40.3	100.0
중부권	(118)	4.2	14.4	47.5	33.9	100.0
호남권	(119)	6.7	24.4	34.5	34.5	100.0
영남권	(323)	5.3	18.3	35.9	40.6	100.0
강원	(36)	5.6	30.6	33.3	30.6	100.0
제주	(13)	15.4	30.8	23.1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8.3	29.0	34.0	28.7	100.0
중도	(568)	5.6	16.0	35.6	42.8	100.0
보수적	(327)	5.2	18.3	35.8	40.7	100.0

표 20-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	%	%	%
■ 전체	(1200)	4.5	95.4	.1	100.0
■ 성별					
남자	(603)	5.1	94.9	.0	100.0
여자	(597)	3.9	96.0	.2	100.0
■ 연령별					
20대	(302)	4.0	95.7	.3	100.0
30대	(314)	3.2	96.8	.0	100.0
40대	(305)	3.6	96.4	.0	100.0
50대이상	(279)	7.5	92.5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3.3	96.7	.0	100.0
고졸	(505)	4.8	95.0	.2	100.0
대졸이상	(537)	4.7	95.3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93.1	.0	100.0
자영업	(291)	3.4	96.6	.0	100.0
블루칼라	(235)	3.8	96.2	.0	100.0
화이트칼라	(217)	7.8	92.2	.0	100.0
전업주부	(237)	3.8	95.8	.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3.7	96.3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3.6	96.1	.4	100.0
200~299만원	(370)	1.9	98.1	.0	100.0
300~399만원	(297)	6.4	93.6	.0	100.0
400만원 이상	(246)	7.3	92.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5.2	94.6	.2	100.0
중부권	(118)	5.1	94.9	.0	100.0
호남권	(119)	4.2	95.8	.0	100.0
영남권	(323)	2.8	97.2	.0	100.0
강원	(36)	5.6	94.4	.0	100.0
제주	(13)	7.7	92.3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5.0	95.0	.0	100.0
중도	(568)	4.9	94.9	.2	100.0
보수적	(327)	3.4	96.6	.0	100.0



표 20-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	%	%	%
■ 전체	(1200)	8.9	91.0	.1	100.0
■ 성별					
남자	(603)	11.4	88.6	.0	100.0
여자	(597)	6.4	93.5	.2	100.0
■ 연령별					
20대	(302)	8.3	91.4	.3	100.0
30대	(314)	7.0	93.0	.0	100.0
40대	(305)	10.2	89.8	.0	100.0
50대이상	(279)	10.4	89.6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5.9	94.1	.0	100.0
고졸	(505)	7.7	92.1	.2	100.0
대졸이상	(537)	10.8	89.2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93.1	.0	100.0
자영업	(291)	12.7	87.3	.0	100.0
블루칼라	(235)	7.7	92.3	.0	100.0
화이트칼라	(217)	7.8	92.2	.0	100.0
전업주부	(237)	5.1	94.5	.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1.2	88.8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0.0	89.6	.4	100.0
200~299만원	(370)	7.3	92.7	.0	100.0
300~399만원	(297)	8.4	91.6	.0	100.0
400만원 이상	(246)	10.2	89.8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0.3	89.5	.2	100.0
중부권	(118)	5.1	94.9	.0	100.0
호남권	(119)	13.4	86.6	.0	100.0
영남권	(323)	6.8	93.2	.0	100.0
강원	(36)	2.8	97.2	.0	100.0
제주	(13)	7.7	92.3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1.2	88.8	.0	100.0
중도	(568)	7.4	92.4	.2	100.0
보수적	(327)	9.5	90.5	.0	100.0

표 20-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0)	40.8	59.2	100.0
■ 성별				
남자	(603)	42.0	58.0	100.0
여자	(597)	39.7	60.3	100.0
■ 연령별				
20대	(302)	48.3	51.7	100.0
30대	(314)	43.3	56.7	100.0
40대	(305)	35.7	64.3	100.0
50대이상	(279)	35.5	64.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34.2	65.8	100.0
고졸	(505)	37.8	62.2	100.0
대졸이상	(537)	46.0	54.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4.5	65.5	100.0
자영업	(291)	38.5	61.5	100.0
블루칼라	(235)	37.9	62.1	100.0
화이트칼라	(217)	41.5	58.5	100.0
전업주부	(237)	42.2	57.8	100.0
학생/무직/기타	(187)	47.1	52.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44.8	55.2	100.0
200~299만원	(370)	38.4	61.6	100.0
300~399만원	(297)	39.1	60.9	100.0
400만원 이상	(246)	42.7	57.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37.9	62.1	100.0
중부권	(118)	37.3	62.7	100.0
호남권	(119)	48.7	51.3	100.0
영남권	(323)	41.8	58.2	100.0
강원	(36)	55.6	44.4	100.0
제주	(13)	69.2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6.9	53.1	100.0
중도	(568)	41.4	58.6	100.0
보수적	(327)	34.3	65.7	100.0



표 20-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문) ○○님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	%	%	%
■ 전체	(1200)	2.8	97.1	.1	100.0
■ 성별					
남자	(603)	3.2	96.8	.0	100.0
여자	(597)	2.5	97.3	.2	100.0
■ 연령별					
20대	(302)	3.3	96.4	.3	100.0
30대	(314)	2.5	97.5	.0	100.0
40대	(305)	1.3	98.7	.0	100.0
50대이상	(279)	4.3	95.7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2.0	98.0	.0	100.0
고졸	(505)	2.0	97.8	.2	100.0
대졸이상	(537)	3.9	96.1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13.8	86.2	.0	100.0
자영업	(291)	1.4	98.6	.0	100.0
블루칼라	(235)	3.0	97.0	.0	100.0
화이트칼라	(217)	5.1	94.9	.0	100.0
전업주부	(237)	.8	98.7	.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3.2	96.8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2.9	96.8	.4	100.0
200~299만원	(370)	1.1	98.9	.0	100.0
300~399만원	(297)	4.0	96.0	.0	100.0
400만원 이상	(246)	4.1	95.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2.5	97.3	.2	100.0
중부권	(118)	.8	99.2	.0	100.0
호남권	(119)	5.9	94.1	.0	100.0
영남권	(323)	2.5	97.5	.0	100.0
강원	(36)	5.6	94.4	.0	100.0
제주	(13)	7.7	92.3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5.0	95.0	.0	100.0
중도	(568)	2.1	97.7	.2	100.0
보수적	(327)	2.1	97.9	.0	100.0

표 21-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㉞ 선거방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전체	(1200)	71.9	25.3	97.2	1.7	1.1	2.8	.1	100.0
■ 성별									
남자	(603)	75.8	21.4	97.2	2.3	.5	2.8	.0	100.0
여자	(597)	68.0	29.1	97.2	1.0	1.7	2.7	.2	100.0
■ 연령별									
20대	(302)	68.2	28.8	97.0	1.7	1.3	3.0	.0	100.0
30대	(314)	72.6	23.9	96.5	2.9	.3	3.2	.3	100.0
40대	(305)	77.7	20.3	98.0	.7	1.3	2.0	.0	100.0
50대이상	(279)	68.8	28.3	97.1	1.4	1.4	2.9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67.8	30.9	98.7	1.3	.0	1.3	.0	100.0
고졸	(505)	67.1	28.7	95.8	2.0	2.0	4.0	.2	100.0
대졸이상	(537)	77.5	20.5	98.0	1.5	.6	2.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89.7	10.3	100.0	.0	.0	.0	.0	100.0
자영업	(291)	74.9	23.4	98.3	1.0	.7	1.7	.0	100.0
블루칼라	(235)	66.8	28.9	95.7	2.6	1.7	4.3	.0	100.0
화이트칼라	(217)	75.1	21.7	96.8	1.8	1.4	3.2	.0	100.0
전업주부	(237)	69.6	27.4	97.0	.8	1.7	2.5	.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70.1	27.3	97.3	2.7	.0	2.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70.6	25.1	95.7	2.9	1.4	4.3	.0	100.0
200~299만원	(370)	68.4	28.9	97.3	1.9	.5	2.4	.3	100.0
300~399만원	(297)	72.4	25.3	97.6	1.3	1.0	2.4	.0	100.0
400만원 이상	(246)	78.0	19.9	98.0	.4	1.6	2.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70.7	25.7	96.4	1.7	1.7	3.4	.2	100.0
중부권	(118)	80.5	17.8	98.3	.8	.8	1.7	.0	100.0
호남권	(119)	75.6	22.7	98.3	1.7	.0	1.7	.0	100.0
영남권	(323)	67.5	30.0	97.5	2.2	.3	2.5	.0	100.0
강원	(36)	91.7	8.3	100.0	.0	.0	.0	.0	100.0
제주	(13)	69.2	23.1	92.3	.0	7.7	7.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73.3	24.1	97.4	1.7	.7	2.3	.3	100.0
중도	(568)	69.5	27.5	97.0	1.8	1.2	3.0	.0	100.0
보수적	(327)	74.9	22.3	97.2	1.5	1.2	2.8	.0	100.0



표 21-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생활수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전체	(1200)	78.8	19.6	98.3	1.0	.7	1.7	100.0
■ 성별								
남자	(603)	81.1	17.2	98.3	1.3	.3	1.7	100.0
여자	(597)	76.4	21.9	98.3	.7	1.0	1.7	100.0
■ 연령별								
20대	(302)	73.2	25.2	98.3	1.0	.7	1.7	100.0
30대	(314)	78.3	19.7	98.1	1.6	.3	1.9	100.0
40대	(305)	86.9	11.1	98.0	1.0	1.0	2.0	100.0
50대이상	(279)	76.3	22.6	98.9	.4	.7	1.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75.0	25.0	100.0	.0	.0	.0	100.0
고졸	(505)	76.4	21.0	97.4	1.2	1.4	2.6	100.0
대졸이상	(537)	82.1	16.6	98.7	1.1	.2	1.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89.7	6.9	96.6	3.4	.0	3.4	100.0
자영업	(291)	82.1	16.8	99.0	.3	.7	1.0	100.0
블루칼라	(235)	75.7	21.7	97.4	.9	1.7	2.6	100.0
화이트칼라	(217)	82.5	16.1	98.6	1.4	.0	1.4	100.0
전업주부	(237)	73.8	24.1	97.9	1.3	.8	2.1	100.0
학생/무직/기타	(187)	78.1	20.9	98.9	1.1	.0	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77.8	19.0	96.8	1.8	1.4	3.2	100.0
200~299만원	(370)	76.8	22.2	98.9	.8	.3	1.1	100.0
300~399만원	(297)	76.1	21.9	98.0	1.3	.7	2.0	100.0
400만원 이상	(246)	86.2	13.4	99.6	.0	.4	.4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77.0	20.6	97.6	1.2	1.2	2.4	100.0
중부권	(118)	83.1	16.9	100.0	.0	.0	.0	100.0
호남권	(119)	80.7	19.3	100.0	.0	.0	.0	100.0
영남권	(323)	78.6	19.8	98.5	1.5	.0	1.5	100.0
강원	(36)	91.7	8.3	100.0	.0	.0	.0	100.0
제주	(13)	69.2	23.1	92.3	.0	7.7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82.5	15.2	97.7	2.0	.3	2.3	100.0
중도	(568)	75.5	23.4	98.9	.5	.5	1.1	100.0
보수적	(327)	80.7	17.1	97.9	.9	1.2	2.1	100.0

표 21-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법률제도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전체	(1200)	68.3	28.3	96.7	2.3	1.0	3.3	.1	100.0
■ 성별									
남자	(603)	69.7	27.7	97.3	2.0	.7	2.7	.0	100.0
여자	(597)	67.0	29.0	96.0	2.5	1.3	3.9	.2	100.0
■ 연령별									
20대	(302)	63.6	31.8	95.4	3.6	1.0	4.6	.0	100.0
30대	(314)	68.8	28.0	96.8	2.2	.6	2.9	.3	100.0
40대	(305)	73.8	23.9	97.7	.7	1.6	2.3	.0	100.0
50대이상	(279)	67.0	29.7	96.8	2.5	.7	3.2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65.8	28.9	94.7	4.6	.0	4.6	.7	100.0
고졸	(505)	67.1	28.5	95.6	2.2	2.2	4.4	.0	100.0
대졸이상	(537)	70.4	27.9	98.3	1.5	.2	1.7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5.5	27.6	93.1	3.4	.0	3.4	3.4	100.0
자영업	(291)	74.9	23.4	98.3	.7	1.0	1.7	.0	100.0
블루칼라	(235)	66.8	28.5	95.3	3.0	1.7	4.7	.0	100.0
화이트칼라	(217)	69.1	27.6	96.8	2.8	.5	3.2	.0	100.0
전업주부	(237)	65.8	29.5	95.4	3.0	1.7	4.6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63.1	35.3	98.4	1.6	.0	1.6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68.8	26.2	95.0	1.8	2.9	4.7	.4	100.0
200~299만원	(370)	65.9	31.4	97.3	2.2	.5	2.7	.0	100.0
300~399만원	(297)	67.0	29.6	96.6	3.0	.3	3.4	.0	100.0
400만원 이상	(246)	72.8	24.8	97.6	2.0	.4	2.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65.8	29.9	95.8	3.0	1.2	4.2	.0	100.0
중부권	(118)	72.9	25.4	98.3	1.7	.0	1.7	.0	100.0
호남권	(119)	68.1	27.7	95.8	2.5	.8	3.4	.8	100.0
영남권	(323)	69.3	28.8	98.1	.9	.9	1.9	.0	100.0
강원	(36)	91.7	8.3	100.0	.0	.0	.0	.0	100.0
제주	(13)	53.8	30.8	84.6	7.7	7.7	15.4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69.0	27.1	96.0	2.6	1.3	4.0	.0	100.0
중도	(568)	68.0	29.9	97.9	1.4	.7	2.1	.0	100.0
보수적	(327)	68.2	26.9	95.1	3.4	1.2	4.6	.3	100.0



표 21-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언어사용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전체	(1200)	43.4	49.2	92.6	6.6	.8	7.4	100.0
■ 성별								
남자	(603)	40.5	52.4	92.9	6.8	.3	7.1	100.0
여자	(597)	46.4	45.9	92.3	6.4	1.3	7.7	100.0
■ 연령별								
20대	(302)	38.1	53.0	91.1	8.3	.7	8.9	100.0
30대	(314)	41.1	52.9	93.9	5.4	.6	6.1	100.0
40대	(305)	48.9	44.6	93.4	5.2	1.3	6.6	100.0
50대이상	(279)	45.9	45.9	91.8	7.5	.7	8.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45.4	45.4	90.8	9.2	.0	9.2	100.0
고졸	(505)	43.8	48.9	92.7	5.3	2.0	7.3	100.0
대졸이상	(537)	42.6	50.3	92.9	7.1	.0	7.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44.8	55.2	100.0	.0	.0	.0	100.0
자영업	(291)	43.3	49.1	92.4	6.9	.7	7.6	100.0
블루칼라	(235)	42.6	51.5	94.0	4.3	1.7	6.0	100.0
화이트칼라	(217)	42.9	52.1	94.9	5.1	.0	5.1	100.0
전업주부	(237)	44.3	45.1	89.5	8.9	1.7	10.5	100.0
학생/무직/기타	(187)	44.4	46.5	90.9	9.1	.0	9.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48.7	44.8	93.5	4.7	1.8	6.5	100.0
200~299만원	(370)	42.7	50.0	92.7	7.0	.3	7.3	100.0
300~399만원	(297)	38.7	52.2	90.9	8.4	.7	9.1	100.0
400만원 이상	(246)	45.1	48.4	93.5	5.7	.8	6.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41.6	48.9	90.5	8.3	1.2	9.5	100.0
충부권	(118)	37.3	55.9	93.2	6.8	.0	6.8	100.0
호남권	(119)	43.7	51.3	95.0	5.0	.0	5.0	100.0
영남권	(323)	48.9	46.1	95.0	4.3	.6	5.0	100.0
강원	(36)	36.1	61.1	97.2	2.8	.0	2.8	100.0
제주	(13)	61.5	23.1	84.6	7.7	7.7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6.2	46.9	93.1	5.9	1.0	6.9	100.0
중도	(568)	43.1	49.6	92.8	6.9	.4	7.2	100.0
보수적	(327)	41.0	50.8	91.7	6.7	1.5	8.3	100.0

표 21-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전체	(1200)	38.2	50.7	88.8	10.2	1.0	11.2	100.0
■ 성별								
남자	(603)	36.2	52.4	88.6	10.8	.7	11.4	100.0
여자	(597)	40.2	48.9	89.1	9.5	1.3	10.9	100.0
■ 연령별								
20대	(302)	33.4	52.3	85.8	13.6	.7	14.2	100.0
30대	(314)	36.0	55.1	91.1	8.0	1.0	8.9	100.0
40대	(305)	42.0	46.6	88.5	10.2	1.3	11.5	100.0
50대이상	(279)	41.6	48.4	90.0	9.0	1.1	10.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41.4	47.4	88.8	10.5	.7	11.2	100.0
고졸	(505)	40.6	48.5	89.1	8.7	2.2	10.9	100.0
대졸이상	(537)	34.8	54.2	89.0	11.0	.0	11.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48.3	51.7	100.0	.0	.0	.0	100.0
자영업	(291)	39.2	50.9	90.0	9.3	.7	10.0	100.0
블루칼라	(235)	39.6	50.2	89.8	8.1	2.1	10.2	100.0
화이트칼라	(217)	34.6	54.8	89.4	10.1	.5	10.6	100.0
전업주부	(237)	39.2	49.8	89.0	9.7	1.3	11.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35.8	47.6	83.4	16.0	.5	16.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42.7	45.9	88.5	9.3	2.2	11.5	100.0
200~299만원	(370)	36.5	50.5	87.0	12.7	.3	13.0	100.0
300~399만원	(297)	35.4	54.5	89.9	9.1	1.0	10.1	100.0
400만원 이상	(246)	39.0	51.6	90.7	8.5	.8	9.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38.4	47.5	86.0	12.7	1.4	14.0	100.0
중부권	(118)	33.9	57.6	91.5	7.6	.8	8.5	100.0
호남권	(119)	36.1	55.5	91.6	8.4	.0	8.4	100.0
영남권	(323)	41.5	49.2	90.7	8.7	.6	9.3	100.0
강원	(36)	22.2	77.8	100.0	.0	.0	.0	100.0
제주	(13)	46.2	46.2	92.3	.0	7.7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0.6	49.5	90.1	9.6	.3	9.9	100.0
중도	(568)	37.9	51.1	88.9	10.2	.9	11.1	100.0
보수적	(327)	36.1	51.4	87.5	10.7	1.8	12.5	100.0



표 22.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문)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0)	22.3	45.8	68.2	27.5	4.3	31.8	100.0
■ 성별								
남자	(603)	21.2	41.8	63.0	31.0	6.0	37.0	100.0
여자	(597)	23.5	49.9	73.4	24.0	2.7	26.6	100.0
■ 연령별								
20대	(302)	20.5	49.3	69.9	27.5	2.6	30.1	100.0
30대	(314)	20.4	44.3	64.6	30.3	5.1	35.4	100.0
40대	(305)	22.6	45.2	67.9	27.9	4.3	32.1	100.0
50대이상	(279)	26.2	44.4	70.6	24.0	5.4	29.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23.0	44.7	67.8	27.6	4.6	32.2	100.0
고졸	(505)	23.6	45.5	69.1	26.7	4.2	30.9	100.0
대졸이상	(537)	21.2	46.4	67.6	27.9	4.5	32.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20.7	37.9	58.6	31.0	10.3	41.4	100.0
자영업	(291)	24.4	42.3	66.7	30.2	3.1	33.3	100.0
블루칼라	(235)	17.0	46.0	63.0	29.4	7.7	37.0	100.0
화이트칼라	(217)	22.1	41.5	63.6	30.4	6.0	36.4	100.0
전업주부	(237)	25.3	51.9	77.2	20.3	2.5	22.8	100.0
학생/무직/기타	(187)	23.0	48.7	71.7	26.7	1.6	28.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21.5	47.3	68.8	25.8	5.4	31.2	100.0
200~299만원	(370)	20.5	47.3	67.8	28.6	3.5	32.2	100.0
300~399만원	(297)	22.2	44.4	66.7	29.3	4.0	33.3	100.0
400만원 이상	(246)	26.4	43.5	69.9	25.2	4.9	30.1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24.2	44.7	68.9	27.6	3.6	31.1	100.0
충부권	(118)	24.6	40.7	65.3	31.4	3.4	34.7	100.0
호남권	(119)	22.7	41.2	63.9	27.7	8.4	36.1	100.0
영남권	(323)	17.3	51.4	68.7	26.3	5.0	31.3	100.0
강원	(36)	30.6	47.2	77.8	19.4	2.8	22.2	100.0
제주	(13)	15.4	46.2	61.5	38.5	.0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4.8	38.3	63.0	30.0	6.9	37.0	100.0
중도	(568)	17.8	52.1	69.9	26.9	3.2	30.1	100.0
보수적	(327)	28.1	42.2	70.3	26.0	3.7	29.7	100.0

표 23. 한반도 전쟁 가능성

문)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전체	(1200)	7.5	45.9	53.4	39.7	6.9	46.6	100.0
■ 성별								
남자	(603)	6.8	43.1	49.9	41.8	8.3	50.1	100.0
여자	(597)	8.2	48.7	57.0	37.5	5.5	43.0	100.0
■ 연령별								
20대	(302)	10.3	51.3	61.6	33.1	5.3	38.4	100.0
30대	(314)	5.4	48.4	53.8	38.2	8.0	46.2	100.0
40대	(305)	5.9	43.3	49.2	43.9	6.9	50.8	100.0
50대이상	(279)	8.6	40.1	48.7	43.7	7.5	51.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8.6	39.5	48.0	48.0	3.9	52.0	100.0
고졸	(505)	6.7	45.3	52.1	39.6	8.3	47.9	100.0
대졸이상	(537)	8.0	48.4	56.4	37.1	6.5	43.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41.4	41.4	48.3	10.3	58.6	100.0
자영업	(291)	6.9	43.3	50.2	41.6	8.2	49.8	100.0
블루칼라	(235)	7.7	43.4	51.1	41.3	7.7	48.9	100.0
화이트칼라	(217)	6.0	39.6	45.6	47.5	6.9	54.4	100.0
전업주부	(237)	9.3	49.8	59.1	35.4	5.5	40.9	100.0
학생/무직/기타	(187)	9.1	55.6	64.7	29.9	5.3	35.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8.6	42.7	51.3	43.0	5.7	48.7	100.0
200~299만원	(370)	6.2	47.6	53.8	39.2	7.0	46.2	100.0
300~399만원	(297)	8.1	43.1	51.2	40.4	8.4	48.8	100.0
400만원 이상	(246)	7.3	51.2	58.5	35.0	6.5	41.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9.8	47.9	57.7	35.9	6.4	42.3	100.0
중부권	(118)	4.2	53.4	57.6	39.8	2.5	42.4	100.0
호남권	(119)	4.2	44.5	48.7	42.9	8.4	51.3	100.0
영남권	(323)	4.0	41.5	45.5	45.8	8.7	54.5	100.0
강원	(36)	25.0	38.9	63.9	30.6	5.6	36.1	100.0
제주	(13)	.0	30.8	30.8	53.8	15.4	6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5.9	45.2	51.2	39.3	9.6	48.8	100.0
중도	(568)	6.5	46.8	53.3	40.5	6.2	46.7	100.0
보수적	(327)	10.7	45.3	56.0	38.5	5.5	44.0	100.0



표 24. 현재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현재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0)	8.1	41.4	49.5	38.9	11.4	50.3	.2	100.0
■ 성별									
남자	(603)	9.6	43.3	52.9	36.5	10.4	46.9	.2	100.0
여자	(597)	6.5	39.5	46.1	41.4	12.4	53.8	.2	100.0
■ 연령별									
20대	(302)	5.0	42.1	47.0	40.4	11.9	52.3	.7	100.0
30대	(314)	8.6	43.0	51.6	40.4	8.0	48.4	.0	100.0
40대	(305)	10.2	39.0	49.2	38.7	12.1	50.8	.0	100.0
50대이상	(279)	8.6	41.6	50.2	35.8	14.0	49.8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4.6	42.1	46.7	36.2	17.1	53.3	.0	100.0
고졸	(505)	9.7	37.8	47.5	40.4	12.1	52.5	.0	100.0
대졸이상	(537)	7.6	44.5	52.1	38.2	9.3	47.5	.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44.8	51.7	34.5	13.8	48.3	.0	100.0
자영업	(291)	8.9	43.3	52.2	36.4	11.3	47.8	.0	100.0
블루칼라	(235)	7.7	39.1	46.8	40.4	12.3	52.8	.4	100.0
화이트칼라	(217)	8.8	43.3	52.1	38.7	8.8	47.5	.5	100.0
전업주부	(237)	8.4	36.3	44.7	40.5	14.8	55.3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5.9	45.5	51.3	39.6	9.1	48.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6.8	38.0	44.8	39.8	15.4	55.2	.0	100.0
200~299만원	(370)	8.4	38.9	47.3	43.2	9.5	52.7	.0	100.0
300~399만원	(297)	8.4	46.1	54.5	34.7	10.1	44.8	.7	100.0
400만원 이상	(246)	8.5	42.7	51.2	37.4	11.4	48.8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8.3	40.9	49.2	40.8	9.6	50.4	.3	100.0
충부권	(118)	5.9	42.4	48.3	40.7	11.0	51.7	.0	100.0
호남권	(119)	12.6	43.7	56.3	36.1	7.6	43.7	.0	100.0
영남권	(323)	5.6	41.5	47.1	35.3	17.6	52.9	.0	100.0
강원	(36)	22.2	36.1	58.3	41.7	.0	41.7	.0	100.0
제주	(13)	.0	46.2	46.2	46.2	7.7	53.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2.5	43.9	56.4	33.0	10.6	43.6	.0	100.0
중도	(568)	6.9	41.0	47.9	41.5	10.2	51.8	.4	100.0
보수적	(327)	6.1	39.4	45.6	40.1	14.4	54.4	.0	100.0

표 25-1. 현재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

문) ○○님은 현재의 대북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대폭 늘려야 한다	조금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 야 한다	조금 줄여야 한다	대폭 줄여야 한다		
		%	%	%	%	%	%	%	%
■ 전체	(1200)	3.8	12.3	16.1	44.8	26.8	12.4	39.2	100.0
■ 성별									
남자	(603)	4.1	14.3	18.4	45.9	23.9	11.8	35.7	100.0
여자	(597)	3.4	10.4	13.7	43.6	29.6	13.1	42.7	100.0
■ 연령별									
20대	(302)	2.6	15.9	18.5	47.7	22.8	10.9	33.8	100.0
30대	(314)	4.8	14.6	19.4	46.5	21.7	12.4	34.1	100.0
40대	(305)	5.2	10.8	16.1	39.7	31.1	13.1	44.3	100.0
50대이상	(279)	2.2	7.5	9.7	45.2	31.9	13.3	45.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2.0	5.3	7.2	43.4	33.6	15.8	49.3	100.0
고졸	(505)	3.6	9.3	12.9	45.3	30.5	11.3	41.8	100.0
대졸이상	(537)	4.5	16.8	21.2	44.7	21.4	12.7	34.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6.9	13.8	48.3	20.7	17.2	37.9	100.0
자영업	(291)	4.1	7.6	11.7	46.0	26.8	15.5	42.3	100.0
블루칼라	(235)	5.1	10.6	15.7	47.2	26.4	10.6	37.0	100.0
화이트칼라	(217)	3.7	22.1	25.8	41.9	20.7	11.5	32.3	100.0
전업주부	(237)	3.0	6.8	9.7	43.5	35.9	11.0	46.8	100.0
학생/무직/기타	(187)	2.1	18.7	20.9	43.3	23.5	12.3	35.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4.3	9.3	13.6	41.9	28.3	16.1	44.4	100.0
200~299만원	(370)	2.4	12.7	15.1	46.2	27.3	11.4	38.6	100.0
300~399만원	(297)	4.4	12.1	16.5	45.5	27.9	10.1	38.0	100.0
400만원 이상	(246)	4.5	15.0	19.5	44.7	22.8	13.0	35.8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3.9	13.7	17.6	43.3	26.1	13.0	39.1	100.0
중부권	(118)	1.7	11.9	13.6	40.7	23.7	22.0	45.8	100.0
호남권	(119)	8.4	17.6	26.1	49.6	19.3	5.0	24.4	100.0
영남권	(323)	2.2	8.0	10.2	46.7	31.3	11.8	43.0	100.0
강원	(36)	8.3	8.3	16.7	44.4	36.1	2.8	38.9	100.0
제주	(13)	.0	23.1	23.1	53.8	15.4	7.7	23.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7.9	20.5	28.4	41.3	20.1	10.2	30.4	100.0
중도	(568)	2.1	11.1	13.2	48.8	27.1	10.9	38.0	100.0
보수적	(327)	2.8	7.0	9.8	40.7	32.4	17.1	49.5	100.0



표 25-2.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문) 그렇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된 물품이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대북지원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김정일의 정권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기타	모름/무응답	계
		%	%	%	%			
■ 전체	(470)	51.5	18.5	14.7	13.8	1.3	.2	100.0
■ 성별								
남자	(215)	46.0	17.2	19.1	15.3	1.9	.5	100.0
여자	(255)	56.1	19.6	11.0	12.5	.8	.0	100.0
■ 연령별								
20대	(102)	54.9	20.6	10.8	11.8	2.0	.0	100.0
30대	(107)	49.5	19.6	14.0	15.0	.9	.9	100.0
40대	(135)	48.9	17.8	17.0	14.8	1.5	.0	100.0
50대이상	(126)	53.2	16.7	15.9	13.5	.8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75)	56.0	18.7	9.3	14.7	1.3	.0	100.0
고졸	(211)	51.2	22.3	12.8	12.3	1.4	.0	100.0
대졸이상	(183)	49.7	14.2	19.1	15.3	1.1	.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1)	45.5	18.2	27.3	9.1	.0	.0	100.0
자영업	(123)	46.3	17.1	21.1	14.6	.8	.0	100.0
블루칼라	(87)	49.4	26.4	10.3	12.6	1.1	.0	100.0
화이트칼라	(70)	51.4	14.3	10.0	20.0	2.9	1.4	100.0
전업주부	(111)	58.6	19.8	10.8	9.9	.9	.0	100.0
학생/무직/기타	(67)	52.2	13.4	17.9	14.9	1.5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24)	49.2	22.6	12.9	14.5	.8	.0	100.0
200~299만원	(143)	51.7	18.9	11.2	16.8	1.4	.0	100.0
300~399만원	(113)	48.7	16.8	21.2	12.4	.0	.9	100.0
400만원 이상	(88)	56.8	14.8	14.8	10.2	3.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231)	48.1	16.5	17.3	16.5	1.3	.4	100.0
충부권	(54)	64.8	14.8	13.0	7.4	.0	.0	100.0
호남권	(29)	58.6	20.7	10.3	10.3	.0	.0	100.0
영남권	(139)	51.8	23.0	12.2	10.8	2.2	.0	100.0
강원	(14)	42.9	21.4	14.3	21.4	.0	.0	100.0
제주	(3)	33.3	.0	.0	66.7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92)	42.4	22.8	16.3	18.5	.0	.0	100.0
중도	(216)	53.7	18.1	13.0	12.5	2.3	.5	100.0
보수적	(162)	53.7	16.7	16.0	13.0	.6	.0	100.0

표 26. 현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 ○○님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 전체	(1200)	1.4	28.8	30.2	54.8	14.9	69.7	.2	100.0
■ 성별									
남자	(603)	1.7	30.7	32.3	53.2	14.3	67.5	.2	100.0
여자	(597)	1.2	26.8	28.0	56.3	15.6	71.9	.2	100.0
■ 연령별									
20대	(302)	1.3	29.5	30.8	57.3	11.3	68.5	.7	100.0
30대	(314)	.3	34.1	34.4	53.8	11.8	65.6	.0	100.0
40대	(305)	2.6	22.3	24.9	56.7	18.4	75.1	.0	100.0
50대이상	(279)	1.4	29.0	30.5	50.9	18.6	69.5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7	28.3	28.9	45.4	25.7	71.1	.0	100.0
고졸	(505)	1.8	26.3	28.1	58.2	13.5	71.7	.2	100.0
대졸이상	(537)	1.3	31.1	32.4	54.2	13.2	67.4	.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4	44.8	48.3	34.5	17.2	51.7	.0	100.0
자영업	(291)	1.4	27.1	28.5	52.9	18.6	71.5	.0	100.0
블루칼라	(235)	.9	29.4	30.2	55.3	14.5	69.8	.0	100.0
화이트칼라	(217)	1.4	33.6	35.0	56.2	8.8	65.0	.0	100.0
전업주부	(237)	1.7	22.8	24.5	58.2	16.9	75.1	.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6	29.4	31.0	54.0	14.4	68.4	.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2.5	27.2	29.7	48.7	21.5	70.3	.0	100.0
200~299만원	(370)	.3	27.3	27.6	60.0	12.2	72.2	.3	100.0
300~399만원	(297)	1.3	31.3	32.7	55.9	11.1	67.0	.3	100.0
400만원 이상	(246)	2.0	29.3	31.3	52.0	16.7	68.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7	26.1	26.7	57.0	15.9	72.9	.3	100.0
중부권	(118)	1.7	27.1	28.8	56.8	14.4	71.2	.0	100.0
호남권	(119)	5.0	38.7	43.7	46.2	10.1	56.3	.0	100.0
영남권	(323)	1.5	29.7	31.3	52.9	15.8	68.7	.0	100.0
강원	(36)	.0	41.7	41.7	52.8	5.6	58.3	.0	100.0
제주	(13)	.0	15.4	15.4	61.5	23.1	84.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3.3	37.3	40.6	46.9	11.9	58.7	.7	100.0
중도	(568)	.5	28.7	29.2	58.6	12.1	70.8	.0	100.0
보수적	(327)	1.2	20.8	22.0	55.4	22.6	78.0	.0	100.0



표 27. 대북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문) ○○님은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잘 반영 하고 있다	대체로 잘 반영 하고 있다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	%	%	%	%	%	%
■ 전체	(1200)	.5	17.8	18.3	66.9	14.7	81.6	.2	100.0
■ 성별									
남자	(603)	.7	19.9	20.6	64.7	14.6	79.3	.2	100.0
여자	(597)	.3	15.6	15.9	69.2	14.7	83.9	.2	100.0
■ 연령별									
20대	(302)	.7	19.2	19.9	66.6	13.2	79.8	.3	100.0
30대	(314)	.0	19.4	19.4	71.3	9.2	80.6	.0	100.0
40대	(305)	1.0	14.8	15.7	67.9	16.1	83.9	.3	100.0
50대이상	(279)	.4	17.6	17.9	61.3	20.8	82.1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0	15.8	15.8	59.2	25.0	84.2	.0	100.0
고졸	(505)	.8	17.2	18.0	68.1	13.9	82.0	.0	100.0
대졸이상	(537)	.4	18.8	19.2	68.2	12.3	80.4	.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4	31.0	34.5	48.3	17.2	65.5	.0	100.0
자영업	(291)	.0	17.9	17.9	64.9	17.2	82.1	.0	100.0
블루칼라	(235)	.0	15.7	15.7	70.2	14.0	84.3	.0	100.0
화이트칼라	(217)	.9	18.9	19.8	68.7	11.1	79.7	.5	100.0
전업주부	(237)	.4	15.2	15.6	68.4	16.0	84.4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1	20.3	21.4	64.2	13.9	78.1	.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7	19.4	20.1	62.0	17.9	79.9	.0	100.0
200~299만원	(370)	.3	15.7	15.9	69.2	14.9	84.1	.0	100.0
300~399만원	(297)	.3	17.2	17.5	70.4	11.8	82.2	.3	100.0
400만원 이상	(246)	.8	19.5	20.3	64.6	14.6	79.3	.4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7	13.5	14.2	69.2	16.2	85.4	.3	100.0
중부권	(118)	.0	16.9	16.9	69.5	13.6	83.1	.0	100.0
호남권	(119)	.8	26.1	26.9	63.0	10.1	73.1	.0	100.0
영남권	(323)	.3	22.9	23.2	61.9	14.9	76.8	.0	100.0
강원	(36)	.0	19.4	19.4	75.0	5.6	80.6	.0	100.0
제주	(13)	.0	7.7	7.7	76.9	15.4	92.3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3	22.4	23.8	63.7	12.2	75.9	.3	100.0
중도	(568)	.0	15.7	15.7	72.4	11.8	84.2	.2	100.0
보수적	(327)	.6	16.8	17.4	60.6	22.0	82.6	.0	100.0

표 28.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 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 하게 느껴 지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0)	2.6	33.4	36.0	56.8	7.0	63.8	.3	100.0
■ 성별									
남자	(603)	3.3	37.6	41.0	53.9	5.0	58.9	.2	100.0
여자	(597)	1.8	29.1	31.0	59.6	9.0	68.7	.3	100.0
■ 연령별									
20대	(302)	2.3	32.1	34.4	53.3	11.9	65.2	.3	100.0
30대	(314)	2.5	31.5	34.1	60.2	5.7	65.9	.0	100.0
40대	(305)	3.6	35.4	39.0	56.1	4.6	60.7	.3	100.0
50대이상	(279)	1.8	34.8	36.6	57.3	5.7	63.1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7	35.5	36.2	58.6	4.6	63.2	.7	100.0
고졸	(505)	3.6	33.5	37.0	55.0	7.5	62.6	.4	100.0
대졸이상	(537)	2.0	33.1	35.2	57.7	7.1	64.8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44.8	44.8	44.8	6.9	51.7	3.4	100.0
자영업	(291)	3.1	38.5	41.6	54.3	4.1	58.4	.0	100.0
블루칼라	(235)	3.4	33.6	37.0	55.3	7.2	62.6	.4	100.0
화이트칼라	(217)	2.8	31.3	34.1	59.4	6.5	65.9	.0	100.0
전업주부	(237)	1.3	27.4	28.7	63.3	7.6	70.9	.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2.7	33.7	36.4	52.4	11.2	63.6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2.5	35.1	37.6	57.0	4.7	61.6	.7	100.0
200~299만원	(370)	2.2	31.9	34.1	58.1	7.6	65.7	.3	100.0
300~399만원	(297)	2.4	34.3	36.7	55.2	8.1	63.3	.0	100.0
400만원 이상	(246)	3.7	31.3	35.0	57.3	7.7	65.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3.0	31.0	34.0	57.5	8.1	65.7	.3	100.0
중부권	(118)	.0	29.7	29.7	58.5	11.9	70.3	.0	100.0
호남권	(119)	5.9	42.9	48.7	46.2	4.2	50.4	.8	100.0
영남권	(323)	1.5	34.7	36.2	58.8	5.0	63.8	.0	100.0
강원	(36)	.0	36.1	36.1	63.9	.0	63.9	.0	100.0
제주	(13)	7.7	53.8	61.5	30.8	7.7	38.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6	36.0	40.6	53.1	6.3	59.4	.0	100.0
중도	(568)	1.4	33.1	34.5	58.8	6.3	65.1	.4	100.0
보수적	(327)	2.8	31.5	34.3	56.6	8.9	65.4	.3	100.0



표 29-1.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동네 이웃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 전체	(1200)	2.2	11.9	14.1	41.0	36.9	8.0	44.9	100.0
■ 성별									
남자	(603)	1.7	9.8	11.4	40.1	38.6	9.8	48.4	100.0
여자	(597)	2.7	14.1	16.8	41.9	35.2	6.2	41.4	100.0
■ 연령별									
20대	(302)	2.6	10.3	12.9	43.0	38.1	6.0	44.0	100.0
30대	(314)	2.5	10.2	12.7	41.4	36.0	9.9	45.9	100.0
40대	(305)	2.6	11.1	13.8	42.6	34.8	8.9	43.6	100.0
50대이상	(279)	.7	16.5	17.2	36.6	39.1	7.2	46.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2.0	17.8	19.7	32.2	41.4	6.6	48.0	100.0
고졸	(505)	2.4	12.1	14.5	44.4	32.9	8.3	41.2	100.0
대졸이상	(537)	2.0	9.9	11.9	40.2	39.7	8.2	47.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4	13.8	17.2	27.6	41.4	13.8	55.2	100.0
자영업	(291)	.3	10.7	11.0	38.8	40.5	9.6	50.2	100.0
블루칼라	(235)	2.1	12.3	14.5	43.4	34.5	7.7	42.1	100.0
화이트칼라	(217)	1.8	12.4	14.3	38.7	37.3	9.7	47.0	100.0
전업주부	(237)	3.0	14.3	17.3	43.9	33.3	5.5	38.8	100.0
학생/무직/기타	(187)	4.3	9.6	13.9	42.2	37.4	6.4	43.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3.6	13.3	16.8	40.9	34.8	7.5	42.3	100.0
200~299만원	(370)	1.4	12.2	13.5	43.0	37.3	6.2	43.5	100.0
300~399만원	(297)	2.4	11.8	14.1	39.7	39.7	6.4	46.1	100.0
400만원 이상	(246)	1.6	10.6	12.2	38.6	35.8	13.4	49.2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2.5	10.7	13.2	46.2	32.8	7.8	40.6	100.0
중부권	(118)	3.4	19.5	22.9	33.9	39.0	4.2	43.2	100.0
호남권	(119)	.0	6.7	6.7	30.3	47.9	15.1	63.0	100.0
영남권	(323)	2.2	13.3	15.5	38.4	39.0	7.1	46.1	100.0
강원	(36)	.0	8.3	8.3	44.4	38.9	8.3	47.2	100.0
제주	(13)	.0	23.1	23.1	23.1	46.2	7.7	53.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3.3	11.6	14.9	34.0	40.6	10.6	51.2	100.0
중도	(568)	1.2	12.3	13.6	45.4	34.9	6.2	41.0	100.0
보수적	(327)	2.8	11.6	14.4	39.8	37.0	8.9	45.9	100.0

표 29-2.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직장 동료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
■ 전체	(1200)	1.7	12.3	14.0	41.2	36.1	8.8	44.8	100.0
■ 성별									
남자	(603)	.8	10.4	11.3	38.8	39.1	10.8	49.9	100.0
여자	(597)	2.5	14.2	16.8	43.6	33.0	6.7	39.7	100.0
■ 연령별									
20대	(302)	1.7	13.2	14.9	40.7	37.4	7.0	44.4	100.0
30대	(314)	1.6	9.6	11.1	39.8	37.9	11.1	49.0	100.0
40대	(305)	2.0	9.2	11.1	44.6	34.8	9.5	44.3	100.0
50대이상	(279)	1.4	17.9	19.4	39.4	34.1	7.2	41.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3	18.4	19.7	38.2	36.2	5.9	42.1	100.0
고졸	(505)	2.0	12.7	14.7	43.4	32.9	9.1	42.0	100.0
대졸이상	(537)	1.5	10.1	11.5	40.0	39.1	9.3	48.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3.4	3.4	41.4	44.8	10.3	55.2	100.0
자영업	(291)	1.4	9.6	11.0	38.8	39.9	10.3	50.2	100.0
블루칼라	(235)	1.3	13.6	14.9	39.1	36.2	9.8	46.0	100.0
화이트칼라	(217)	1.8	10.1	12.0	38.2	39.2	10.6	49.8	100.0
전업주부	(237)	1.7	15.6	17.3	48.5	29.5	4.6	34.2	100.0
학생/무직/기타	(187)	2.7	15.0	17.6	41.2	33.7	7.5	41.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8	13.3	15.1	42.7	33.7	8.6	42.3	100.0
200~299만원	(370)	.8	12.2	13.0	44.6	35.9	6.5	42.4	100.0
300~399만원	(297)	3.0	13.5	16.5	40.1	35.0	8.4	43.4	100.0
400만원 이상	(246)	1.2	10.2	11.4	35.4	40.7	12.6	5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2.5	12.0	14.6	44.2	32.8	8.5	41.3	100.0
중부권	(118)	1.7	15.3	16.9	39.0	38.1	5.9	44.1	100.0
호남권	(119)	.0	3.4	3.4	34.5	45.4	16.8	62.2	100.0
영남권	(323)	.9	15.5	16.4	37.8	38.1	7.7	45.8	100.0
강원	(36)	.0	11.1	11.1	50.0	33.3	5.6	38.9	100.0
제주	(13)	.0	7.7	7.7	46.2	38.5	7.7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0	9.9	11.9	35.6	39.9	12.5	52.5	100.0
중도	(568)	1.6	14.1	15.7	44.2	33.5	6.7	40.1	100.0
보수적	(327)	1.5	11.6	13.1	41.3	36.7	8.9	45.6	100.0



표 29-3.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사업 동업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
■ 전체	(1200)	7.2	29.4	36.6	35.6	21.8	6.0	27.8	.1	100.0
■ 성별										
남자	(603)	5.5	26.5	32.0	35.2	25.5	7.1	32.7	.2	100.0
여자	(597)	8.9	32.3	41.2	36.0	17.9	4.9	22.8	.0	100.0
■ 연령별										
20대	(302)	8.3	24.8	33.1	37.7	23.5	5.6	29.1	.0	100.0
30대	(314)	4.5	30.3	34.7	36.9	20.7	7.3	28.0	.3	100.0
40대	(305)	8.2	28.9	37.0	34.8	23.0	5.2	28.2	.0	100.0
50대이상	(279)	7.9	34.1	41.9	32.6	19.7	5.7	25.4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7.9	35.5	43.4	32.9	17.1	6.6	23.7	.0	100.0
고졸	(505)	6.7	31.1	37.8	36.4	19.6	5.9	25.5	.2	100.0
대졸이상	(537)	7.4	26.1	33.5	35.6	25.0	6.0	30.9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10.3	24.1	34.5	34.5	20.7	10.3	31.0	.0	100.0
자영업	(291)	6.5	31.6	38.1	33.3	23.0	5.5	28.5	.0	100.0
블루칼라	(235)	5.1	25.1	30.2	41.7	22.1	5.5	27.7	.4	100.0
화이트칼라	(217)	6.9	25.3	32.3	33.6	26.3	7.8	34.1	.0	100.0
전업주부	(237)	8.9	34.2	43.0	34.6	16.9	5.5	22.4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8.6	31.6	40.1	34.2	20.3	5.3	25.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7.9	26.2	34.1	39.1	20.1	6.8	26.9	.0	100.0
200~299만원	(370)	6.5	32.4	38.9	36.2	21.1	3.5	24.6	.3	100.0
300~399만원	(297)	7.4	30.0	37.4	32.3	22.6	7.7	30.3	.0	100.0
400만원 이상	(246)	7.3	27.2	34.6	34.6	24.0	6.9	30.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7.1	28.6	35.7	39.6	19.5	5.1	24.5	.2	100.0
충부권	(118)	15.3	28.8	44.1	24.6	26.3	5.1	31.4	.0	100.0
호남권	(119)	5.0	33.6	38.7	21.0	27.7	12.6	40.3	.0	100.0
영남권	(323)	4.6	29.4	34.1	37.8	22.0	6.2	28.2	.0	100.0
강원	(36)	8.3	38.9	47.2	27.8	22.2	2.8	25.0	.0	100.0
제주	(13)	15.4	7.7	23.1	53.8	23.1	.0	23.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7.9	20.5	28.4	33.3	28.7	9.6	38.3	.0	100.0
중도	(568)	6.3	32.9	39.3	37.3	19.7	3.7	23.4	.0	100.0
보수적	(327)	8.0	31.8	39.8	34.9	18.3	6.7	25.1	.3	100.0

표 29-4.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결혼 상대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
■ 전체	(1200)	13.9	33.8	47.7	25.4	19.3	7.6	26.8	.1	100.0
■ 성별										
남자	(603)	9.8	27.0	36.8	29.0	24.5	9.5	34.0	.2	100.0
여자	(597)	18.1	40.5	58.6	21.8	13.9	5.7	19.6	.0	100.0
■ 연령별										
20대	(302)	15.2	33.8	49.0	27.5	16.9	6.6	23.5	.0	100.0
30대	(314)	11.8	32.5	44.3	24.5	21.3	9.9	31.2	.0	100.0
40대	(305)	15.7	33.8	49.5	24.9	18.0	7.5	25.6	.0	100.0
50대이상	(279)	12.9	35.1	48.0	24.7	20.8	6.1	26.9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2.5	43.4	55.9	23.0	15.1	5.9	21.1	.0	100.0
고졸	(505)	13.1	34.3	47.3	26.1	18.6	7.9	26.5	.0	100.0
대졸이상	(537)	15.3	30.4	45.6	25.5	20.9	7.8	28.7	.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27.6	34.5	24.1	27.6	13.8	41.4	.0	100.0
자영업	(291)	11.0	32.3	43.3	25.8	22.0	8.6	30.6	.3	100.0
블루칼라	(235)	10.2	32.3	42.6	28.1	19.1	10.2	29.4	.0	100.0
화이트칼라	(217)	14.7	29.0	43.8	24.0	24.4	7.8	32.3	.0	100.0
전업주부	(237)	18.6	41.4	59.9	21.1	14.8	4.2	19.0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7.6	35.3	52.9	28.3	12.8	5.9	18.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1.5	33.0	44.4	27.2	18.3	9.7	28.0	.4	100.0
200~299만원	(370)	13.8	37.0	50.8	25.4	18.6	5.1	23.8	.0	100.0
300~399만원	(297)	12.5	33.7	46.1	26.9	20.2	6.7	26.9	.0	100.0
400만원 이상	(246)	17.9	30.5	48.4	21.1	20.3	10.2	30.5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4.2	35.4	49.6	26.9	17.6	5.8	23.4	.2	100.0
충부권	(118)	17.8	32.2	50.0	19.5	25.4	5.1	30.5	.0	100.0
호남권	(119)	10.9	30.3	41.2	19.3	23.5	16.0	39.5	.0	100.0
영남권	(323)	12.7	33.1	45.8	26.9	18.9	8.4	27.2	.0	100.0
강원	(36)	19.4	38.9	58.3	19.4	11.1	11.1	22.2	.0	100.0
제주	(13)	7.7	7.7	15.4	46.2	30.8	7.7	38.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3.2	25.1	38.3	25.4	25.7	10.6	36.3	.0	100.0
중도	(568)	12.7	37.7	50.4	26.9	17.1	5.6	22.7	.0	100.0
보수적	(327)	16.8	34.6	51.4	22.9	17.1	8.3	25.4	.3	100.0



표 30.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문)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 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계
		%	%	%	%
■ 전체	(1200)	52.0	37.2	10.8	100.0
■ 성별					
남자	(603)	57.7	34.5	7.8	100.0
여자	(597)	46.2	39.9	13.9	100.0
■ 연령별					
20대	(302)	47.4	42.4	10.3	100.0
30대	(314)	50.6	40.4	8.9	100.0
40대	(305)	58.4	32.8	8.9	100.0
50대이상	(279)	51.6	32.6	15.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41.4	39.5	19.1	100.0
고졸	(505)	55.8	33.7	10.5	100.0
대졸이상	(537)	51.2	39.9	8.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58.6	27.6	13.8	100.0
자영업	(291)	56.0	33.7	10.3	100.0
블루칼라	(235)	53.2	36.2	10.6	100.0
화이트칼라	(217)	53.9	38.7	7.4	100.0
전업주부	(237)	46.4	38.8	14.8	100.0
학생/무직/기타	(187)	48.1	41.2	10.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52.3	36.2	11.5	100.0
200~299만원	(370)	47.8	40.8	11.4	100.0
300~399만원	(297)	58.2	33.7	8.1	100.0
400만원 이상	(246)	50.8	37.0	12.2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54.1	34.7	11.2	100.0
중부권	(118)	50.8	41.5	7.6	100.0
호남권	(119)	55.5	37.8	6.7	100.0
영남권	(323)	48.3	39.3	12.4	100.0
강원	(36)	41.7	41.7	16.7	100.0
제주	(13)	53.8	38.5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60.1	30.7	9.2	100.0
중도	(568)	48.2	41.4	10.4	100.0
보수적	(327)	51.4	35.5	13.1	100.0

표 31-1.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	%	%
■ 전체	(1200)	6.0	47.8	53.8	41.7	4.6	46.3	100.0
■ 성별								
남자	(603)	7.0	49.9	56.9	39.5	3.6	43.1	100.0
여자	(597)	5.0	45.6	50.6	43.9	5.5	49.4	100.0
■ 연령별								
20대	(302)	6.0	46.4	52.3	42.1	5.6	47.7	100.0
30대	(314)	5.4	50.0	55.4	41.7	2.9	44.6	100.0
40대	(305)	7.5	48.9	56.4	37.4	6.2	43.6	100.0
50대이상	(279)	5.0	45.5	50.5	45.9	3.6	49.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2.6	40.8	43.4	50.0	6.6	56.6	100.0
고졸	(505)	4.8	48.1	52.9	41.6	5.5	47.1	100.0
대졸이상	(537)	8.2	49.2	57.4	39.5	3.2	42.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31.0	37.9	55.2	6.9	62.1	100.0
자영업	(291)	5.5	51.9	57.4	39.2	3.4	42.6	100.0
블루칼라	(235)	3.8	42.1	46.0	48.1	6.0	54.0	100.0
화이트칼라	(217)	6.9	51.6	58.5	39.6	1.8	41.5	100.0
전업주부	(237)	5.1	46.4	51.5	43.0	5.5	48.5	100.0
학생/무직/기타	(187)	9.1	48.1	57.2	36.4	6.4	42.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4.7	40.9	45.5	48.4	6.1	54.5	100.0
200~299만원	(370)	4.6	48.4	53.0	42.2	4.9	47.0	100.0
300~399만원	(297)	9.1	50.8	59.9	36.4	3.7	40.1	100.0
400만원 이상	(246)	5.7	50.8	56.5	40.2	3.3	43.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6.4	46.7	53.1	40.9	5.9	46.9	100.0
중부권	(118)	3.4	44.9	48.3	49.2	2.5	51.7	100.0
호남권	(119)	10.1	53.8	63.9	34.5	1.7	36.1	100.0
영남권	(323)	4.6	48.6	53.3	42.1	4.6	46.7	100.0
강원	(36)	5.6	44.4	50.0	50.0	.0	50.0	100.0
제주	(13)	7.7	53.8	61.5	38.5	.0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9.2	51.5	60.7	35.3	4.0	39.3	100.0
중도	(568)	4.2	46.3	50.5	45.1	4.4	49.5	100.0
보수적	(327)	6.1	46.8	52.9	41.6	5.5	47.1	100.0



표 31-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㉔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	%	%
■ 전체	(1200)	9.8	49.3	59.2	35.1	5.8	40.8	100.0
■ 성별								
남자	(603)	10.6	52.7	63.3	32.2	4.5	36.7	100.0
여자	(597)	9.0	45.9	54.9	38.0	7.0	45.1	100.0
■ 연령별								
20대	(302)	8.6	44.7	53.3	39.7	7.0	46.7	100.0
30대	(314)	12.1	49.0	61.1	35.0	3.8	38.9	100.0
40대	(305)	11.1	54.1	65.2	27.5	7.2	34.8	100.0
50대이상	(279)	7.2	49.5	56.6	38.4	5.0	43.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4.6	45.4	50.0	42.1	7.9	50.0	100.0
고졸	(505)	10.9	47.3	58.2	35.8	5.9	41.8	100.0
대졸이상	(537)	10.4	52.3	62.8	32.2	5.0	37.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4	44.8	48.3	44.8	6.9	51.7	100.0
자영업	(291)	12.7	53.6	66.3	27.8	5.8	33.7	100.0
블루칼라	(235)	6.0	48.9	54.9	39.6	5.5	45.1	100.0
화이트칼라	(217)	12.4	53.9	66.4	29.5	4.1	33.6	100.0
전업주부	(237)	8.9	41.4	50.2	43.0	6.8	49.8	100.0
학생/무직/기타	(187)	9.1	48.7	57.8	35.8	6.4	42.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7.2	43.0	50.2	42.7	7.2	49.8	100.0
200~299만원	(370)	10.0	47.0	57.0	36.8	6.2	43.0	100.0
300~399만원	(297)	10.8	50.5	61.3	33.0	5.7	38.7	100.0
400만원 이상	(246)	11.4	58.1	69.5	26.8	3.7	30.5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2.4	50.1	62.4	32.1	5.4	37.6	100.0
충북권	(118)	6.8	43.2	50.0	42.4	7.6	50.0	100.0
호남권	(119)	9.2	51.3	60.5	34.5	5.0	39.5	100.0
영남권	(323)	5.6	50.2	55.7	38.1	6.2	44.3	100.0
강원	(36)	16.7	44.4	61.1	33.3	5.6	38.9	100.0
제주	(13)	15.4	46.2	61.5	38.5	.0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4.2	50.2	64.4	30.7	5.0	35.6	100.0
중도	(568)	7.6	49.6	57.2	38.7	4.0	42.8	100.0
보수적	(327)	9.8	48.3	58.1	32.7	9.2	41.9	100.0

표 31-3.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	%	%
■ 전체	(1200)	2.1	24.5	26.6	56.3	17.1	73.4	100.0
■ 성별								
남자	(603)	1.8	21.1	22.9	55.9	21.2	77.1	100.0
여자	(597)	2.3	28.0	30.3	56.8	12.9	69.7	100.0
■ 연령별								
20대	(302)	3.3	25.5	28.8	54.0	17.2	71.2	100.0
30대	(314)	.3	22.9	23.2	56.4	20.4	76.8	100.0
40대	(305)	2.6	24.3	26.9	54.8	18.4	73.1	100.0
50대이상	(279)	2.2	25.4	27.6	60.6	11.8	72.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7	30.9	31.6	56.6	11.8	68.4	100.0
고졸	(505)	3.4	28.1	31.5	51.5	17.0	68.5	100.0
대졸이상	(537)	1.3	19.0	20.3	60.9	18.8	79.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27.6	27.6	62.1	10.3	72.4	100.0
자영업	(291)	1.4	23.0	24.4	57.0	18.6	75.6	100.0
블루칼라	(235)	1.3	23.8	25.1	53.6	21.3	74.9	100.0
화이트칼라	(217)	1.4	19.4	20.7	59.0	20.3	79.3	100.0
전업주부	(237)	3.0	30.4	33.3	56.1	10.5	66.7	100.0
학생/무직/기타	(187)	4.3	25.7	29.9	54.5	15.5	70.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2.2	22.9	25.1	56.6	18.3	74.9	100.0
200~299만원	(370)	3.0	27.6	30.5	56.2	13.2	69.5	100.0
300~399만원	(297)	1.0	26.6	27.6	57.2	15.2	72.4	100.0
400만원 이상	(246)	2.0	19.1	21.1	55.3	23.6	78.9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2.0	24.7	26.7	56.3	16.9	73.3	100.0
중부권	(118)	1.7	25.4	27.1	61.0	11.9	72.9	100.0
호남권	(119)	1.7	17.6	19.3	53.8	26.9	80.7	100.0
영남권	(323)	2.2	27.2	29.4	53.6	17.0	70.6	100.0
강원	(36)	5.6	11.1	16.7	72.2	11.1	83.3	100.0
제주	(13)	.0	38.5	38.5	61.5	.0	61.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0	19.8	21.8	58.7	19.5	78.2	100.0
중도	(568)	1.6	28.5	30.1	56.3	13.6	69.9	100.0
보수적	(327)	3.1	21.7	24.8	54.1	21.1	75.2	100.0



표 31-4.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	%	%
■ 전체	(1200)	13.3	50.4	63.7	32.3	4.1	36.3	100.0
■ 성별								
남자	(603)	14.6	49.8	64.3	31.3	4.3	35.7	100.0
여자	(597)	11.9	51.1	63.0	33.2	3.9	37.0	100.0
■ 연령별								
20대	(302)	13.2	48.0	61.3	33.8	5.0	38.7	100.0
30대	(314)	13.7	50.6	64.3	31.5	4.1	35.7	100.0
40대	(305)	14.8	46.9	61.6	33.4	4.9	38.4	100.0
50대이상	(279)	11.1	56.6	67.7	30.1	2.2	32.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1.2	56.6	67.8	29.6	2.6	32.2	100.0
고졸	(505)	14.7	49.7	64.4	30.7	5.0	35.6	100.0
대졸이상	(537)	12.7	49.3	62.0	34.3	3.7	38.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20.7	48.3	69.0	31.0	.0	31.0	100.0
자영업	(291)	13.4	52.9	66.3	27.8	5.8	33.7	100.0
블루칼라	(235)	14.0	46.0	60.0	35.7	4.3	40.0	100.0
화이트칼라	(217)	9.7	47.9	57.6	37.3	5.1	42.4	100.0
전업주부	(237)	12.2	53.2	65.4	32.9	1.7	34.6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6.6	50.8	67.4	28.9	3.7	32.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5.8	48.7	64.5	31.5	3.9	35.5	100.0
200~299만원	(370)	13.2	50.0	63.2	32.7	4.1	36.8	100.0
300~399만원	(297)	12.5	50.8	63.3	33.0	3.7	36.7	100.0
400만원 이상	(246)	11.8	52.4	64.2	30.9	4.9	35.8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1.3	48.6	59.9	34.3	5.8	40.1	100.0
충부권	(118)	21.2	44.9	66.1	32.2	1.7	33.9	100.0
호남권	(119)	20.2	47.9	68.1	27.7	4.2	31.9	100.0
영남권	(323)	11.5	56.3	67.8	29.7	2.5	32.2	100.0
강원	(36)	8.3	58.3	66.7	33.3	.0	33.3	100.0
제주	(13)	23.1	38.5	61.5	38.5	.0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3.5	52.8	66.3	29.4	4.3	33.7	100.0
중도	(568)	12.0	52.3	64.3	32.4	3.3	35.7	100.0
보수적	(327)	15.3	45.0	60.2	34.6	5.2	39.8	100.0

표 32.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문)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없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체	(1200)	53.0	11.5	23.8	10.1	.9	.4	.3	100.0
■ 성별									
남자	(603)	54.1	9.6	25.4	9.6	1.0	.3	.0	100.0
여자	(597)	51.9	13.4	22.3	10.6	.8	.5	.5	100.0
■ 연령별									
20대	(302)	46.7	19.5	21.5	10.6	1.3	.3	.0	100.0
30대	(314)	46.8	13.1	24.8	12.4	1.6	.6	.6	100.0
40대	(305)	51.8	8.2	29.8	8.9	.3	.7	.3	100.0
50대이상	(279)	68.1	4.7	18.6	8.2	.4	.0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69.7	4.6	17.8	7.9	.0	.0	.0	100.0
고졸	(505)	53.1	11.7	23.8	10.1	1.2	.2	.0	100.0
대졸이상	(537)	48.6	13.4	25.1	10.6	.9	.7	.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51.7	10.3	31.0	3.4	.0	3.4	.0	100.0
자영업	(291)	57.4	9.3	22.0	9.3	1.7	.3	.0	100.0
블루칼라	(235)	48.5	11.9	26.4	11.9	1.3	.0	.0	100.0
화이트칼라	(217)	50.7	8.3	27.6	11.1	.5	1.4	.5	100.0
전업주부	(237)	57.4	11.0	21.1	9.3	.4	.0	.8	100.0
학생/무직/기타	(187)	49.7	18.2	21.4	10.2	.5	.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55.9	11.5	22.6	9.7	.0	.4	.0	100.0
200~299만원	(370)	52.2	12.4	24.3	9.5	1.1	.5	.0	100.0
300~399만원	(297)	49.5	11.8	25.6	10.4	2.0	.3	.3	100.0
400만원 이상	(246)	55.3	10.2	22.4	10.6	.4	.4	.8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55.0	11.5	21.7	10.2	.8	.3	.5	100.0
중부권	(118)	61.0	11.0	18.6	6.8	1.7	.8	.0	100.0
호남권	(119)	38.7	16.8	31.9	11.8	.8	.0	.0	100.0
영남권	(323)	51.7	10.5	25.4	10.8	.9	.6	.0	100.0
강원	(36)	52.8	2.8	38.9	5.6	.0	.0	.0	100.0
제주	(13)	53.8	15.4	15.4	15.4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2.9	11.6	32.0	11.9	1.7	.0	.0	100.0
중도	(568)	54.8	13.2	19.7	10.9	.5	.7	.2	100.0
보수적	(327)	59.3	8.6	23.2	7.0	.9	.3	.6	100.0



표 33.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문)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없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체	(1200)	21.1	25.8	36.0	15.5	1.3	.1	.3	100.0
■ 성별									
남자	(603)	20.4	27.7	33.8	16.1	1.7	.0	.3	100.0
여자	(597)	21.8	23.8	38.2	14.9	1.0	.2	.2	100.0
■ 연령별									
20대	(302)	33.8	20.2	32.8	11.9	1.0	.0	.3	100.0
30대	(314)	22.9	28.0	34.4	13.1	1.0	.3	.3	100.0
40대	(305)	15.4	31.5	32.8	18.4	2.0	.0	.0	100.0
50대이상	(279)	11.5	22.9	44.8	19.0	1.4	.0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1.2	23.7	46.1	17.8	1.3	.0	.0	100.0
고졸	(505)	19.2	27.9	34.9	15.8	1.8	.2	.2	100.0
대졸이상	(537)	25.3	24.4	34.3	14.7	.9	.0	.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1.0	20.7	20.7	27.6	.0	.0	.0	100.0
자영업	(291)	15.8	27.1	34.7	20.3	1.7	.0	.3	100.0
블루칼라	(235)	23.4	28.9	31.1	14.5	1.7	.4	.0	100.0
화이트칼라	(217)	22.1	28.1	30.0	18.9	.9	.0	.0	100.0
전업주부	(237)	15.6	23.2	48.9	11.4	.4	.0	.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30.5	20.3	37.4	9.1	2.1	.0	.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21.5	24.0	38.7	13.3	1.8	.4	.4	100.0
200~299만원	(370)	20.8	24.3	39.7	13.5	1.4	.0	.3	100.0
300~399만원	(297)	20.9	27.9	33.7	16.8	.7	.0	.0	100.0
400만원 이상	(246)	21.1	27.2	30.1	19.5	1.6	.0	.4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20.5	24.9	37.6	15.1	1.5	.0	.5	100.0
충부권	(118)	14.4	24.6	39.0	20.3	1.7	.0	.0	100.0
호남권	(119)	27.7	29.4	28.6	13.4	.8	.0	.0	100.0
영남권	(323)	20.7	28.5	34.4	15.2	1.2	.0	.0	100.0
강원	(36)	30.6	11.1	41.7	16.7	.0	.0	.0	100.0
제주	(13)	30.8	15.4	30.8	15.4	.0	7.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7.7	28.7	26.7	15.2	1.7	.0	.0	100.0
중도	(568)	19.5	24.6	38.4	15.7	1.2	.2	.4	100.0
보수적	(327)	17.4	25.1	40.4	15.6	1.2	.0	.3	100.0

표 34.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문)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사례수	북한 팀	미국 팀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0)	80.8	4.0	6.1	8.8	.3	100.0
■ 성별							
남자	(603)	84.2	2.7	5.1	7.8	.2	100.0
여자	(597)	77.4	5.4	7.0	9.9	.3	100.0
■ 연령별							
20대	(302)	74.8	4.0	5.3	15.6	.3	100.0
30대	(314)	85.7	1.6	6.1	6.1	.6	100.0
40대	(305)	82.0	5.2	6.2	6.6	.0	100.0
50대이상	(279)	80.6	5.4	6.8	7.2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78.9	7.2	6.6	7.2	.0	100.0
고졸	(505)	80.8	4.6	6.1	7.9	.6	100.0
대졸이상	(537)	81.8	2.6	5.6	10.1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89.7	3.4	.0	6.9	.0	100.0
자영업	(291)	85.9	4.1	5.2	4.5	.3	100.0
블루칼라	(235)	83.4	2.6	5.1	8.5	.4	100.0
화이트칼라	(217)	82.0	1.4	6.0	10.6	.0	100.0
전업주부	(237)	75.5	6.3	9.7	8.0	.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73.3	5.9	5.3	15.5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77.8	6.1	6.8	8.6	.7	100.0
200~299만원	(370)	79.7	4.6	4.9	10.5	.3	100.0
300~399만원	(297)	81.8	3.0	7.1	8.1	.0	100.0
400만원 이상	(246)	84.6	2.0	6.1	7.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79.0	3.9	7.6	9.1	.3	100.0
중부권	(118)	82.2	3.4	3.4	11.0	.0	100.0
호남권	(119)	90.8	2.5	2.5	4.2	.0	100.0
영남권	(323)	80.8	4.6	5.9	8.7	.0	100.0
강원	(36)	80.6	8.3	2.8	8.3	.0	100.0
제주	(13)	61.5	.0	7.7	23.1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83.5	3.6	5.0	7.9	.0	100.0
중도	(568)	79.9	3.9	6.2	9.7	.4	100.0
보수적	(327)	79.8	4.6	7.0	8.3	.3	100.0



표 35-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미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모름/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0)	53.1	21.9	21.9	2.9	.2	100.0
■ 성별							
남자	(603)	50.6	26.0	20.1	3.3	.0	100.0
여자	(597)	55.6	17.8	23.8	2.5	.3	100.0
■ 연령별							
20대	(302)	51.7	21.5	22.8	4.0	.0	100.0
30대	(314)	45.5	22.6	28.3	3.2	.3	100.0
40대	(305)	55.7	23.3	18.4	2.6	.0	100.0
50대이상	(279)	60.2	20.1	17.6	1.8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64.5	19.1	15.8	.7	.0	100.0
고졸	(505)	54.3	21.6	20.2	3.6	.4	100.0
대졸이상	(537)	49.2	22.9	25.1	2.8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41.4	27.6	27.6	3.4	.0	100.0
자영업	(291)	56.0	21.6	19.9	2.4	.0	100.0
블루칼라	(235)	43.8	23.4	28.5	4.3	.0	100.0
화이트칼라	(217)	50.2	26.3	20.7	2.8	.0	100.0
전업주부	(237)	62.9	14.8	19.4	2.1	.8	100.0
학생/무직/기타	(187)	52.9	23.0	20.9	3.2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54.1	22.2	20.8	2.5	.4	100.0
200~299만원	(370)	55.7	22.7	17.6	3.8	.3	100.0
300~399만원	(297)	52.2	22.2	22.6	3.0	.0	100.0
400만원 이상	(246)	48.8	19.9	29.3	2.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51.8	21.5	22.3	4.1	.3	100.0
충부권	(118)	56.8	20.3	22.0	.8	.0	100.0
호남권	(119)	48.7	21.8	27.7	1.7	.0	100.0
영남권	(323)	55.7	22.0	20.4	1.9	.0	100.0
강원	(36)	61.1	22.2	13.9	2.8	.0	100.0
제주	(13)	30.8	53.8	7.7	7.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2.9	20.5	30.7	5.9	.0	100.0
중도	(568)	56.2	22.4	19.7	1.4	.4	100.0
보수적	(327)	57.5	22.3	17.7	2.4	.0	100.0

표 35-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일본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모름/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0)	14.6	46.4	30.2	8.5	.3	100.0
■ 성별							
남자	(603)	16.6	46.4	28.2	8.8	.0	100.0
여자	(597)	12.6	46.4	32.2	8.2	.7	100.0
■ 연령별							
20대	(302)	16.2	47.7	27.5	8.6	.0	100.0
30대	(314)	14.3	45.5	31.5	8.0	.6	100.0
40대	(305)	15.7	46.2	29.8	8.2	.0	100.0
50대이상	(279)	11.8	46.2	31.9	9.3	.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0.5	49.3	32.9	6.6	.7	100.0
고졸	(505)	14.1	47.3	28.3	9.7	.6	100.0
대졸이상	(537)	16.4	44.5	31.1	8.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41.4	44.8	6.9	.0	100.0
자영업	(291)	18.9	45.0	27.1	8.6	.3	100.0
블루칼라	(235)	9.8	46.4	33.2	10.6	.0	100.0
화이트칼라	(217)	16.1	46.1	31.3	6.5	.0	100.0
전업주부	(237)	11.4	47.3	32.9	7.2	1.3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7.1	48.1	24.6	10.2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1.5	53.0	28.3	6.8	.4	100.0
200~299만원	(370)	15.4	43.2	28.4	12.4	.5	100.0
300~399만원	(297)	15.2	44.1	34.7	5.7	.3	100.0
400만원 이상	(246)	16.7	46.3	29.3	7.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5.1	47.0	28.9	8.3	.7	100.0
중부권	(118)	12.7	57.6	24.6	5.1	.0	100.0
호남권	(119)	15.1	45.4	31.9	7.6	.0	100.0
영남권	(323)	15.5	40.6	32.8	11.1	.0	100.0
강원	(36)	5.6	44.4	44.4	5.6	.0	100.0
제주	(13)	7.7	76.9	15.4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2.5	42.9	32.3	12.2	.0	100.0
중도	(568)	16.2	48.6	28.5	6.2	.5	100.0
보수적	(327)	13.8	46.2	30.6	9.2	.3	100.0



표 35-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모름/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0)	19.3	46.3	30.9	3.3	.3	100.0
■ 성별							
남자	(603)	18.7	47.6	30.7	3.0	.0	100.0
여자	(597)	19.8	45.1	31.2	3.5	.5	100.0
■ 연령별							
20대	(302)	23.8	42.4	29.5	4.3	.0	100.0
30대	(314)	20.7	43.6	32.2	3.2	.3	100.0
40대	(305)	19.3	48.5	29.5	2.6	.0	100.0
50대이상	(279)	12.5	51.3	32.6	2.9	.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5.1	51.3	30.3	2.6	.7	100.0
고졸	(505)	16.0	49.1	31.5	3.0	.4	100.0
대졸이상	(537)	23.5	42.5	30.4	3.7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13.8	55.2	31.0	.0	.0	100.0
자영업	(291)	19.2	47.8	29.9	3.1	.0	100.0
블루칼라	(235)	14.0	48.1	33.6	4.3	.0	100.0
화이트칼라	(217)	21.2	42.4	33.6	2.8	.0	100.0
전업주부	(237)	17.3	47.3	31.2	3.0	1.3	100.0
학생/무직/기타	(187)	27.3	43.3	25.7	3.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5.8	52.0	29.0	2.9	.4	100.0
200~299만원	(370)	19.7	49.7	26.5	3.8	.3	100.0
300~399만원	(297)	18.9	39.4	38.4	3.0	.3	100.0
400만원 이상	(246)	22.8	42.7	31.3	3.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7.1	47.2	31.0	4.2	.5	100.0
중부권	(118)	17.8	45.8	35.6	.8	.0	100.0
호남권	(119)	28.6	48.7	22.7	.0	.0	100.0
영남권	(323)	21.1	43.0	33.4	2.5	.0	100.0
강원	(36)	16.7	50.0	25.0	8.3	.0	100.0
제주	(13)	7.7	61.5	15.4	15.4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2.8	41.3	31.4	4.6	.0	100.0
중도	(568)	18.3	49.3	29.8	2.3	.4	100.0
보수적	(327)	17.4	46.2	32.4	3.7	.3	100.0

표 35-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러시아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모름/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0)	22.8	40.2	32.0	4.7	.4	100.0
■ 성별							
남자	(603)	23.4	41.3	31.2	4.1	.0	100.0
여자	(597)	22.1	39.0	32.8	5.2	.8	100.0
■ 연령별							
20대	(302)	28.8	33.4	31.8	6.0	.0	100.0
30대	(314)	22.3	41.7	31.5	3.5	1.0	100.0
40대	(305)	24.3	44.3	27.5	3.9	.0	100.0
50대이상	(279)	15.1	41.2	37.6	5.4	.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3.8	41.4	38.2	5.3	1.3	100.0
고졸	(505)	20.2	42.2	32.7	4.4	.6	100.0
대졸이상	(537)	27.9	37.8	29.6	4.7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10.3	37.9	48.3	.0	3.4	100.0
자영업	(291)	26.5	37.5	31.6	4.1	.3	100.0
블루칼라	(235)	16.6	43.8	34.0	5.5	.0	100.0
화이트칼라	(217)	25.3	40.1	31.3	3.2	.0	100.0
전업주부	(237)	16.9	43.5	32.9	5.5	1.3	100.0
학생/무직/기타	(187)	31.6	34.8	27.8	5.9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7.6	45.2	30.1	6.5	.7	100.0
200~299만원	(370)	22.2	43.8	28.6	4.9	.5	100.0
300~399만원	(297)	22.2	36.7	37.0	3.7	.3	100.0
400만원 이상	(246)	30.5	32.5	33.7	3.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22.3	39.3	32.0	5.8	.7	100.0
중부권	(118)	21.2	38.1	39.0	1.7	.0	100.0
호남권	(119)	28.6	34.5	33.6	2.5	.8	100.0
영남권	(323)	23.2	42.1	30.7	4.0	.0	100.0
강원	(36)	16.7	50.0	25.0	8.3	.0	100.0
제주	(13)	7.7	76.9	7.7	7.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28.4	35.6	30.0	5.9	.0	100.0
중도	(568)	21.1	43.7	31.9	2.8	.5	100.0
보수적	(327)	20.2	38.5	33.9	6.7	.6	100.0



표 36-1.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미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전체	(1200)	50.6	1.3	45.5	2.6	100.0
■ 성별						
남자	(603)	52.9	1.5	43.1	2.5	100.0
여자	(597)	48.2	1.2	47.9	2.7	100.0
■ 연령별						
20대	(302)	41.4	1.7	54.6	2.3	100.0
30대	(314)	46.5	.3	51.0	2.2	100.0
40대	(305)	54.4	1.6	40.3	3.6	100.0
50대이상	(279)	60.9	1.8	35.1	2.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59.2	1.3	36.8	2.6	100.0
고졸	(505)	49.9	1.6	44.8	3.8	100.0
대졸이상	(537)	48.8	1.1	48.6	1.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7.9	.0	55.2	6.9	100.0
자영업	(291)	53.3	1.4	41.2	4.1	100.0
블루칼라	(235)	47.2	1.7	50.6	.4	100.0
화이트칼라	(217)	45.2	1.4	50.7	2.8	100.0
전업주부	(237)	59.9	.4	37.1	2.5	100.0
학생/무직/기타	(187)	46.5	2.1	49.2	2.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52.3	1.1	44.4	2.2	100.0
200~299만원	(370)	52.2	1.9	42.2	3.8	100.0
300~399만원	(297)	49.2	1.7	46.1	3.0	100.0
400만원 이상	(246)	47.6	.4	51.2	.8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51.6	1.9	43.7	2.9	100.0
중부권	(118)	51.7	.0	46.6	1.7	100.0
호남권	(119)	42.0	.0	56.3	1.7	100.0
영남권	(323)	50.5	1.5	45.5	2.5	100.0
강원	(36)	58.3	.0	38.9	2.8	100.0
제주	(13)	53.8	.0	38.5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3.6	1.3	51.2	4.0	100.0
중도	(568)	53.0	1.4	43.5	2.1	100.0
보수적	(327)	53.2	1.2	43.4	2.1	100.0

표 36-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일본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전체	(1200)	16.2	3.3	72.7	7.9	100.0
■ 성별						
남자	(603)	17.6	2.8	72.1	7.5	100.0
여자	(597)	14.7	3.7	73.2	8.4	100.0
■ 연령별						
20대	(302)	13.9	5.6	70.2	10.3	100.0
30대	(314)	18.2	1.9	73.9	6.1	100.0
40대	(305)	16.1	2.6	72.5	8.9	100.0
50대이상	(279)	16.5	2.9	74.2	6.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3.8	4.6	74.3	7.2	100.0
고졸	(505)	16.6	3.4	72.3	7.7	100.0
대졸이상	(537)	16.4	2.8	72.8	8.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10.3	.0	79.3	10.3	100.0
자영업	(291)	16.5	3.1	73.5	6.9	100.0
블루칼라	(235)	16.2	4.7	73.6	5.5	100.0
화이트칼라	(217)	17.1	1.8	71.9	9.2	100.0
전업주부	(237)	16.0	2.5	73.4	8.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5.5	4.8	69.5	10.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3.3	3.6	74.6	8.6	100.0
200~299만원	(370)	17.0	2.7	72.2	8.1	100.0
300~399만원	(297)	16.2	4.7	68.7	10.4	100.0
400만원 이상	(246)	18.7	2.0	75.6	3.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8.4	4.1	69.5	8.0	100.0
중부권	(118)	16.9	.8	75.4	6.8	100.0
호남권	(119)	12.6	2.5	76.5	8.4	100.0
영남권	(323)	11.8	2.5	78.6	7.1	100.0
강원	(36)	22.2	5.6	58.3	13.9	100.0
제주	(13)	30.8	7.7	46.2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6.8	4.3	71.0	7.9	100.0
중도	(568)	18.1	2.8	72.0	7.0	100.0
보수적	(327)	12.2	3.1	75.2	9.5	100.0



표 36-3.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㉔ 중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전체	(1200)	5.3	26.8	56.4	11.4	100.0
■ 성별						
남자	(603)	4.5	30.3	53.9	11.3	100.0
여자	(597)	6.2	23.3	59.0	11.6	100.0
■ 연령별						
20대	(302)	7.0	23.2	59.9	9.9	100.0
30대	(314)	5.4	21.3	62.4	10.8	100.0
40대	(305)	5.2	32.8	49.8	12.1	100.0
50대이상	(279)	3.6	30.5	53.0	12.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5.3	34.9	47.4	12.5	100.0
고졸	(505)	5.7	27.5	56.8	9.9	100.0
대졸이상	(537)	5.0	24.0	58.7	12.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24.1	62.1	6.9	100.0
자영업	(291)	4.1	32.3	52.9	10.7	100.0
블루칼라	(235)	6.8	23.0	57.0	13.2	100.0
화이트칼라	(217)	3.2	23.5	58.5	14.7	100.0
전업주부	(237)	5.5	28.7	55.3	10.5	100.0
학생/무직/기타	(187)	7.5	24.6	59.4	8.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5.0	31.2	56.3	7.5	100.0
200~299만원	(370)	5.7	28.6	53.8	11.9	100.0
300~399만원	(297)	5.4	22.9	59.6	12.1	100.0
400만원 이상	(246)	4.9	24.0	57.3	13.8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3.7	26.9	56.9	12.5	100.0
중부권	(118)	5.9	33.1	45.8	15.3	100.0
호남권	(119)	5.9	23.5	58.8	11.8	100.0
영남권	(323)	6.5	25.7	59.4	8.4	100.0
강원	(36)	16.7	30.6	47.2	5.6	100.0
제주	(13)	7.7	15.4	61.5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6.9	21.8	56.8	14.5	100.0
중도	(568)	5.5	28.5	56.3	9.7	100.0
보수적	(327)	3.7	28.7	56.3	11.3	100.0

표 36-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러시아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0)	3.7	19.0	59.1	18.2	.1	100.0
■ 성별							
남자	(603)	2.8	21.2	57.7	18.1	.2	100.0
여자	(597)	4.5	16.8	60.5	18.3	.0	100.0
■ 연령별							
20대	(302)	4.6	12.9	59.3	23.2	.0	100.0
30대	(314)	4.8	14.6	67.2	13.1	.3	100.0
40대	(305)	3.3	25.2	52.5	19.0	.0	100.0
50대이상	(279)	1.8	23.7	57.0	17.6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2.6	23.7	54.6	19.1	.0	100.0
고졸	(505)	3.6	19.8	58.6	18.0	.0	100.0
대졸이상	(537)	4.1	17.1	60.9	17.7	.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6.9	17.2	62.1	13.8	.0	100.0
자영업	(291)	3.8	23.4	56.4	16.2	.3	100.0
블루칼라	(235)	4.7	16.6	62.1	16.6	.0	100.0
화이트칼라	(217)	1.8	15.2	60.8	22.1	.0	100.0
전업주부	(237)	2.5	21.5	60.3	15.6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5.3	16.6	56.1	21.9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3.6	19.7	59.9	16.8	.0	100.0
200~299만원	(370)	3.0	18.6	58.4	20.0	.0	100.0
300~399만원	(297)	3.0	19.9	58.6	18.5	.0	100.0
400만원 이상	(246)	5.7	18.3	60.6	15.0	.4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3.6	21.3	57.5	17.4	.2	100.0
충부권	(118)	2.5	18.6	54.2	24.6	.0	100.0
호남권	(119)	5.9	19.3	57.1	17.6	.0	100.0
영남권	(323)	3.1	16.1	63.8	17.0	.0	100.0
강원	(36)	5.6	8.3	66.7	19.4	.0	100.0
제주	(13)	7.7	15.4	53.8	23.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3	15.2	57.4	22.8	.3	100.0
중도	(568)	3.3	19.7	61.4	15.5	.0	100.0
보수적	(327)	3.7	21.4	56.6	18.3	.0	100.0



표 37-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미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0)	4.6	25.3	29.9	53.7	16.3	69.9	.2	100.0
■ 성별									
남자	(603)	4.0	24.5	28.5	52.4	18.9	71.3	.2	100.0
여자	(597)	5.2	26.1	31.3	54.9	13.6	68.5	.2	100.0
■ 연령별									
20대	(302)	3.3	21.2	24.5	54.0	21.5	75.5	.0	100.0
30대	(314)	4.1	23.2	27.4	52.5	19.7	72.3	.3	100.0
40대	(305)	5.6	26.9	32.5	56.4	11.1	67.5	.0	100.0
50대이상	(279)	5.4	30.5	35.8	51.6	12.2	63.8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3.9	31.6	35.5	51.3	12.5	63.8	.7	100.0
고졸	(505)	4.8	29.7	34.5	50.5	14.9	65.3	.2	100.0
대졸이상	(537)	4.7	19.7	24.4	57.0	18.6	75.6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24.1	24.1	44.8	31.0	75.9	.0	100.0
자영업	(291)	5.2	30.9	36.1	49.8	14.1	63.9	.0	100.0
블루칼라	(235)	6.0	28.9	34.9	50.2	14.5	64.7	.4	100.0
화이트칼라	(217)	3.7	18.4	22.1	59.4	18.4	77.9	.0	100.0
전업주부	(237)	4.6	25.7	30.4	57.8	11.4	69.2	.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3.7	20.3	24.1	52.9	23.0	75.9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4.7	28.7	33.3	50.2	16.1	66.3	.4	100.0
200~299만원	(370)	4.9	24.3	29.2	55.9	14.6	70.5	.3	100.0
300~399만원	(297)	3.7	29.3	33.0	53.9	13.1	67.0	.0	100.0
400만원 이상	(246)	5.3	18.3	23.6	53.7	22.8	76.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4.2	23.0	27.2	57.2	15.2	72.4	.3	100.0
중부권	(118)	6.8	28.0	34.7	46.6	18.6	65.3	.0	100.0
호남권	(119)	5.0	21.0	26.1	46.2	27.7	73.9	.0	100.0
영남권	(323)	2.8	30.7	33.4	52.3	14.2	66.6	.0	100.0
강원	(36)	13.9	25.0	38.9	55.6	5.6	61.1	.0	100.0
제주	(13)	15.4	15.4	30.8	53.8	15.4	69.2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6	22.4	27.1	52.1	20.8	72.9	.0	100.0
중도	(568)	3.3	27.1	30.5	56.7	12.5	69.2	.4	100.0
보수적	(327)	6.7	24.8	31.5	49.8	18.7	68.5	.0	100.0

표 37-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일본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0)	1.3	14.7	16.0	59.6	24.3	83.8	.2	100.0
■ 성별									
남자	(603)	1.0	13.3	14.3	56.1	29.5	85.6	.2	100.0
여자	(597)	1.7	16.1	17.8	63.1	18.9	82.1	.2	100.0
■ 연령별									
20대	(302)	.7	10.6	11.3	61.3	27.5	88.7	.0	100.0
30대	(314)	1.0	16.6	17.5	57.6	24.5	82.2	.3	100.0
40대	(305)	2.0	14.4	16.4	61.6	22.0	83.6	.0	100.0
50대이상	(279)	1.8	17.2	19.0	57.7	22.9	80.6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3	16.4	17.8	61.2	20.4	81.6	.7	100.0
고졸	(505)	1.8	17.8	19.6	60.4	19.8	80.2	.2	100.0
대졸이상	(537)	.9	11.2	12.1	58.8	29.1	87.9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13.8	13.8	55.2	31.0	86.2	.0	100.0
자영업	(291)	.7	16.8	17.5	57.0	25.4	82.5	.0	100.0
블루칼라	(235)	1.7	20.9	22.6	53.6	23.4	77.0	.4	100.0
화이트칼라	(217)	1.4	9.2	10.6	62.2	27.2	89.4	.0	100.0
전업주부	(237)	2.1	13.9	16.0	66.2	17.3	83.5	.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1	10.7	11.8	61.0	27.3	88.2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8	16.5	18.3	57.3	24.0	81.4	.4	100.0
200~299만원	(370)	1.4	13.2	14.6	60.5	24.6	85.1	.3	100.0
300~399만원	(297)	1.3	14.5	15.8	66.7	17.5	84.2	.0	100.0
400만원 이상	(246)	.8	15.0	15.9	52.0	32.1	84.1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5	13.7	15.2	61.1	23.4	84.4	.3	100.0
중부권	(118)	3.4	14.4	17.8	59.3	22.9	82.2	.0	100.0
호남권	(119)	.0	17.6	17.6	54.6	27.7	82.4	.0	100.0
영남권	(323)	.9	13.9	14.9	60.1	25.1	85.1	.0	100.0
강원	(36)	.0	25.0	25.0	52.8	22.2	75.0	.0	100.0
제주	(13)	.0	23.1	23.1	46.2	30.8	76.9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0	12.9	13.9	57.1	29.0	86.1	.0	100.0
중도	(568)	.7	16.9	17.6	62.0	20.1	82.0	.4	100.0
보수적	(327)	2.8	12.5	15.3	57.8	26.9	84.7	.0	100.0



표 37-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 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0)	1.3	14.8	16.0	63.3	20.5	83.8	.2	100.0
■ 성별									
남자	(603)	.3	12.3	12.6	62.2	25.0	87.2	.2	100.0
여자	(597)	2.2	17.3	19.4	64.5	15.9	80.4	.2	100.0
■ 연령별									
20대	(302)	1.0	14.6	15.6	61.3	23.2	84.4	.0	100.0
30대	(314)	1.0	12.7	13.7	64.0	22.0	86.0	.3	100.0
40대	(305)	1.6	15.7	17.4	64.3	18.4	82.6	.0	100.0
50대이상	(279)	1.4	16.1	17.6	63.8	18.3	82.1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7	18.4	19.1	66.4	13.8	80.3	.7	100.0
고졸	(505)	1.8	16.4	18.2	63.4	18.2	81.6	.2	100.0
대졸이상	(537)	.9	12.3	13.2	62.6	24.2	86.8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20.7	20.7	58.6	20.7	79.3	.0	100.0
자영업	(291)	1.4	16.2	17.5	62.2	20.3	82.5	.0	100.0
블루칼라	(235)	1.3	18.7	20.0	60.9	18.7	79.6	.4	100.0
화이트칼라	(217)	.5	13.8	14.3	61.8	24.0	85.7	.0	100.0
전업주부	(237)	2.1	11.4	13.5	71.3	14.8	86.1	.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1.1	11.8	12.8	61.5	25.7	87.2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1.4	16.8	18.3	62.4	19.0	81.4	.4	100.0
200~299만원	(370)	1.9	12.4	14.3	66.2	19.2	85.4	.3	100.0
300~399만원	(297)	1.0	16.8	17.8	66.3	15.8	82.2	.0	100.0
400만원 이상	(246)	.4	13.0	13.4	56.9	29.7	86.6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0	13.9	14.9	65.3	19.5	84.8	.3	100.0
중부권	(118)	3.4	15.3	18.6	62.7	18.6	81.4	.0	100.0
호남권	(119)	.8	15.1	16.0	56.3	27.7	84.0	.0	100.0
영남권	(323)	1.2	15.2	16.4	62.8	20.7	83.6	.0	100.0
강원	(36)	.0	22.2	22.2	66.7	11.1	77.8	.0	100.0
제주	(13)	.0	15.4	15.4	46.2	38.5	84.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3	16.5	17.8	59.7	22.4	82.2	.0	100.0
중도	(568)	.7	16.0	16.7	64.4	18.5	82.9	.4	100.0
보수적	(327)	2.1	11.0	13.1	64.5	22.3	86.9	.0	100.0

표 37-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러시아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편 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0)	1.4	15.9	17.3	64.6	17.9	82.5	.2	100.0
■ 성별									
남자	(603)	.7	14.9	15.6	62.4	21.9	84.2	.2	100.0
여자	(597)	2.2	16.9	19.1	66.8	13.9	80.7	.2	100.0
■ 연령별									
20대	(302)	1.7	17.2	18.9	62.6	18.5	81.1	.0	100.0
30대	(314)	1.3	15.0	16.2	65.3	18.2	83.4	.3	100.0
40대	(305)	1.0	15.7	16.7	67.2	16.1	83.3	.0	100.0
50대이상	(279)	1.8	15.8	17.6	63.1	19.0	82.1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2.0	15.8	17.8	67.8	13.8	81.6	.7	100.0
고졸	(505)	1.6	17.4	19.0	63.6	17.2	80.8	.2	100.0
대졸이상	(537)	1.1	14.7	15.8	64.6	19.6	84.2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0	17.2	17.2	62.1	20.7	82.8	.0	100.0
자영업	(291)	1.7	15.8	17.5	64.6	17.9	82.5	.0	100.0
블루칼라	(235)	.9	24.3	25.1	57.4	17.0	74.5	.4	100.0
화이트칼라	(217)	.0	13.4	13.4	66.8	19.8	86.6	.0	100.0
전업주부	(237)	2.5	10.5	13.1	73.4	13.1	86.5	.4	100.0
학생/무직/기타	(187)	2.1	15.0	17.1	60.4	22.5	82.9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2.5	16.5	19.0	62.7	17.9	80.6	.4	100.0
200~299만원	(370)	1.6	14.3	15.9	67.6	16.2	83.8	.3	100.0
300~399만원	(297)	1.3	17.2	18.5	67.0	14.5	81.5	.0	100.0
400만원 이상	(246)	.0	15.9	15.9	59.8	24.4	84.1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8	15.6	16.4	66.0	17.3	83.2	.3	100.0
중부권	(118)	3.4	18.6	22.0	62.7	15.3	78.0	.0	100.0
호남권	(119)	2.5	17.6	20.2	55.5	24.4	79.8	.0	100.0
영남권	(323)	1.5	14.6	16.1	65.3	18.6	83.9	.0	100.0
강원	(36)	.0	16.7	16.7	77.8	5.6	83.3	.0	100.0
제주	(13)	.0	23.1	23.1	46.2	30.8	76.9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7	17.2	18.8	62.4	18.8	81.2	.0	100.0
중도	(568)	.7	17.3	18.0	66.2	15.5	81.7	.4	100.0
보수적	(327)	2.4	12.2	14.7	63.9	21.4	85.3	.0	100.0



표 38-1.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문) ○○님은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 하다	약간 필요 하다	%	별로 필요 하지않다	전혀 필요 하지않다	%	
■ 전체	(1200)	35.8	46.7	82.5	14.8	2.8	17.5	100.0
■ 성별								
남자	(603)	41.1	42.6	83.7	13.4	2.8	16.3	100.0
여자	(597)	30.5	50.8	81.2	16.1	2.7	18.8	100.0
■ 연령별								
20대	(302)	34.8	47.4	82.1	14.9	3.0	17.9	100.0
30대	(314)	37.3	49.7	86.9	11.1	1.9	13.1	100.0
40대	(305)	35.1	43.9	79.0	17.0	3.9	21.0	100.0
50대이상	(279)	36.2	45.5	81.7	16.1	2.2	18.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27.6	52.6	80.3	15.8	3.9	19.7	100.0
고졸	(505)	34.5	46.9	81.4	15.0	3.6	18.6	100.0
대졸이상	(537)	39.5	45.1	84.5	13.8	1.7	15.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27.6	41.4	69.0	20.7	10.3	31.0	100.0
자영업	(291)	39.5	46.0	85.6	13.4	1.0	14.4	100.0
블루칼라	(235)	35.7	44.7	80.4	14.5	5.1	19.6	100.0
화이트칼라	(217)	39.2	43.8	82.9	16.1	.9	17.1	100.0
전업주부	(237)	26.2	55.7	81.9	15.2	3.0	18.1	100.0
학생/무직/기타	(187)	39.0	43.3	82.4	14.4	3.2	17.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35.1	47.3	82.4	14.7	2.9	17.6	100.0
200~299만원	(370)	33.5	51.1	84.6	13.2	2.2	15.4	100.0
300~399만원	(297)	33.7	45.1	78.8	17.5	3.7	21.2	100.0
400만원 이상	(246)	42.7	41.1	83.7	14.2	2.0	16.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39.4	42.6	82.1	16.1	1.9	17.9	100.0
중부권	(118)	39.8	41.5	81.4	14.4	4.2	18.6	100.0
호남권	(119)	42.9	41.2	84.0	12.6	3.4	16.0	100.0
영남권	(323)	24.8	58.2	83.0	13.6	3.4	17.0	100.0
강원	(36)	41.7	41.7	83.3	13.9	2.8	16.7	100.0
제주	(13)	30.8	53.8	84.6	7.7	7.7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38.9	42.6	81.5	15.2	3.3	18.5	100.0
중도	(568)	33.6	49.1	82.7	14.8	2.5	17.3	100.0
보수적	(327)	36.7	46.2	82.9	14.4	2.8	17.1	100.0

표 38-2. 주변국 비협조 시 남북한 통일 가능성

문) 그러면, ○○님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없어도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충분히 가능하다	약간 가능하다	%	별로 가능 하지않다	전혀 가능 하지않다	%	
		%	%	%	%	%	%	%
■ 전체	(990)	9.3	39.4	48.7	41.8	9.5	51.3	100.0
■ 성별								
남자	(505)	9.9	37.8	47.7	41.0	11.3	52.3	100.0
여자	(485)	8.7	41.0	49.7	42.7	7.6	50.3	100.0
■ 연령별								
20대	(248)	5.6	41.9	47.6	45.2	7.3	52.4	100.0
30대	(273)	11.4	42.5	53.8	35.9	10.3	46.2	100.0
40대	(241)	13.3	36.9	50.2	39.8	10.0	49.8	100.0
50대이상	(228)	6.6	35.5	42.1	47.4	10.5	57.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22)	5.7	28.7	34.4	59.0	6.6	65.6	100.0
고졸	(411)	8.5	39.2	47.7	40.9	11.4	52.3	100.0
대졸이상	(454)	11.0	42.5	53.5	37.9	8.6	46.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0	35.0	40.0	45.0	15.0	60.0	100.0
자영업	(249)	8.8	39.4	48.2	40.6	11.2	51.8	100.0
블루칼라	(189)	11.6	39.2	50.8	41.8	7.4	49.2	100.0
화이트칼라	(180)	11.1	42.2	53.3	36.1	10.6	46.7	100.0
전업주부	(194)	8.2	38.1	46.4	45.9	7.7	53.6	100.0
학생/무직/기타	(154)	7.1	38.3	45.5	44.8	9.7	54.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30)	8.3	35.7	43.9	45.2	10.9	56.1	100.0
200~299만원	(313)	9.9	37.1	47.0	45.0	8.0	53.0	100.0
300~399만원	(234)	7.7	44.4	52.1	39.7	8.1	47.9	100.0
400만원 이상	(206)	11.7	40.3	51.9	35.9	12.1	48.1	100.0
■ 지역별								
수도권	(485)	10.1	39.6	49.7	41.4	8.9	50.3	100.0
중부권	(96)	6.3	40.6	46.9	43.8	9.4	53.1	100.0
호남권	(100)	11.0	48.0	59.0	32.0	9.0	41.0	100.0
영남권	(268)	8.6	39.2	47.8	41.8	10.4	52.2	100.0
강원	(30)	6.7	16.7	23.3	66.7	10.0	76.7	100.0
제주	(11)	9.1	9.1	18.2	63.6	18.2	81.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247)	13.8	42.5	56.3	33.2	10.5	43.7	100.0
중도	(470)	8.3	36.8	45.1	46.8	8.1	54.9	100.0
보수적	(271)	7.0	41.3	48.3	40.6	11.1	51.7	100.0



표 39.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문)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관계 개선	한미공조	똑같이 중요하다	모름/ 무응답	계
		%	%	%	%	%
■ 전체	(1200)	38.2	17.6	43.9	.3	100.0
■ 성별						
남자	(603)	38.5	17.2	43.9	.3	100.0
여자	(597)	37.9	17.9	43.9	.3	100.0
■ 연령별						
20대	(302)	35.1	20.9	43.7	.3	100.0
30대	(314)	43.3	14.3	42.4	.0	100.0
40대	(305)	43.3	17.7	39.0	.0	100.0
50대이상	(279)	30.1	17.6	51.3	1.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27.0	18.4	53.9	.7	100.0
고졸	(505)	36.6	17.0	46.1	.2	100.0
대졸이상	(537)	42.8	17.9	38.9	.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37.9	20.7	41.4	.0	100.0
자영업	(291)	34.7	18.6	46.7	.0	100.0
블루칼라	(235)	38.7	13.2	46.8	1.3	100.0
화이트칼라	(217)	42.9	15.7	41.0	.5	100.0
전업주부	(237)	38.8	21.5	39.7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37.4	18.7	43.9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33.0	16.1	50.5	.4	100.0
200~299만원	(370)	40.5	17.6	41.6	.3	100.0
300~399만원	(297)	37.7	18.2	43.4	.7	100.0
400만원 이상	(246)	41.9	18.7	39.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37.6	17.1	44.7	.7	100.0
중부권	(118)	39.8	22.0	38.1	.0	100.0
호남권	(119)	45.4	16.8	37.8	.0	100.0
영남권	(323)	34.7	17.3	48.0	.0	100.0
강원	(36)	61.1	16.7	22.2	.0	100.0
제주	(13)	7.7	15.4	76.9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46.9	18.2	35.0	.0	100.0
중도	(568)	39.3	16.4	44.0	.4	100.0
보수적	(327)	28.4	19.0	52.0	.6	100.0

표 40. 반미정서 우려 수준 평가

문) ○○님은 현재 우리 사회의 반미정서가 얼마나 우려할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우려할 수준 이다	다소 우려할 수준 이다		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	%	%	%	%	%	%	%
■ 전체	(1200)	4.8	46.8	51.7	45.0	3.1	48.1	.3	100.0
■ 성별									
남자	(603)	4.0	49.8	53.7	42.8	3.3	46.1	.2	100.0
여자	(597)	5.7	43.9	49.6	47.2	2.8	50.1	.3	100.0
■ 연령별									
20대	(302)	4.3	47.7	52.0	45.0	2.6	47.7	.3	100.0
30대	(314)	4.8	40.1	44.9	50.0	4.5	54.5	.6	100.0
40대	(305)	4.6	51.5	56.1	40.7	3.3	43.9	.0	100.0
50대이상	(279)	5.7	48.4	54.1	44.1	1.8	45.9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3.9	44.7	48.7	50.7	.7	51.3	.0	100.0
고졸	(505)	4.0	51.3	55.2	41.4	3.0	44.4	.4	100.0
대졸이상	(537)	6.0	43.2	49.2	46.7	3.9	50.7	.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10.3	44.8	55.2	44.8	.0	44.8	.0	100.0
자영업	(291)	4.5	44.7	49.1	48.1	2.1	50.2	.7	100.0
블루칼라	(235)	3.4	50.6	54.0	41.7	4.3	46.0	.0	100.0
화이트칼라	(217)	5.1	47.9	53.0	42.4	4.6	47.0	.0	100.0
전업주부	(237)	5.9	42.6	48.5	49.4	2.1	51.5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4.8	49.7	54.5	41.7	3.2	44.9	.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6.8	48.4	55.2	43.7	1.1	44.8	.0	100.0
200~299만원	(370)	2.7	47.0	49.7	47.3	2.7	50.0	.3	100.0
300~399만원	(297)	5.4	45.1	50.5	45.8	3.4	49.2	.3	100.0
400만원 이상	(246)	5.3	46.3	51.6	42.3	5.7	48.0	.4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5.4	47.9	53.3	42.1	4.2	46.4	.3	100.0
중부권	(118)	5.1	47.5	52.5	45.8	.8	46.6	.8	100.0
호남권	(119)	4.2	51.3	55.5	42.0	2.5	44.5	.0	100.0
영남권	(323)	4.3	42.4	46.7	50.8	2.5	53.3	.0	100.0
강원	(36)	2.8	58.3	61.1	38.9	.0	38.9	.0	100.0
제주	(13)	.0	30.8	30.8	69.2	.0	69.2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7.3	48.8	56.1	40.6	3.0	43.6	.3	100.0
중도	(568)	3.2	43.8	47.0	50.0	2.6	52.6	.4	100.0
보수적	(327)	5.5	50.2	55.7	40.4	4.0	44.3	.0	100.0



표 41. 북한의 대남 정책이 대선에 미칠 영향

문) ○○님은 북한의 태도나 남한 관련 정책이 올해 12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것이다	약간 크게 영향을 미칠것이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이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이다			
		%	%	%	%	%	%	%	%
■ 전체	(1200)	10.4	42.6	53.0	40.2	6.7	46.8	.2	100.0
■ 성별									
남자	(603)	11.4	44.4	55.9	37.0	7.0	43.9	.2	100.0
여자	(597)	9.4	40.7	50.1	43.4	6.4	49.7	.2	100.0
■ 연령별									
20대	(302)	7.9	44.4	52.3	39.4	8.3	47.7	.0	100.0
30대	(314)	8.3	44.3	52.5	39.5	7.6	47.1	.3	100.0
40대	(305)	11.8	40.3	52.1	42.3	5.2	47.5	.3	100.0
50대이상	(279)	14.0	41.2	55.2	39.4	5.4	44.8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52)	11.8	40.1	52.0	42.8	5.3	48.0	.0	100.0
고졸	(505)	9.9	41.6	51.5	41.6	6.9	48.5	.0	100.0
대졸이상	(537)	10.6	44.3	54.9	38.0	6.7	44.7	.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9)	10.3	41.4	51.7	41.4	6.9	48.3	.0	100.0
자영업	(291)	12.4	43.6	56.0	37.5	6.2	43.6	.3	100.0
블루칼라	(235)	9.4	41.3	50.6	41.3	8.1	49.4	.0	100.0
화이트칼라	(217)	7.8	45.2	53.0	39.2	7.4	46.5	.5	100.0
전업주부	(237)	12.2	37.1	49.4	44.3	6.3	50.6	.0	100.0
학생/무직/기타	(187)	9.6	47.1	56.7	38.5	4.8	43.3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79)	9.3	41.9	51.3	41.9	6.8	48.7	.0	100.0
200~299만원	(370)	10.3	40.3	50.5	45.1	4.1	49.2	.3	100.0
300~399만원	(297)	9.1	45.8	54.9	35.7	9.4	45.1	.0	100.0
400만원 이상	(246)	13.4	42.3	55.7	36.6	7.3	43.9	.4	100.0
■ 지역별									
수도권	(591)	12.7	43.5	56.2	38.4	5.1	43.5	.3	100.0
중부권	(118)	11.9	38.1	50.0	43.2	6.8	50.0	.0	100.0
호남권	(119)	8.4	47.1	55.5	41.2	3.4	44.5	.0	100.0
영남권	(323)	6.5	41.5	48.0	40.9	11.1	52.0	.0	100.0
강원	(36)	11.1	41.7	52.8	44.4	2.8	47.2	.0	100.0
제주	(13)	7.7	30.8	38.5	53.8	7.7	61.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03)	10.9	45.9	56.8	38.3	5.0	43.2	.0	100.0
중도	(568)	9.0	42.1	51.1	42.1	6.7	48.8	.2	100.0
보수적	(327)	12.5	40.7	53.2	38.2	8.3	46.5	.3	100.0

3. 설문지



208 SAJKI-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054 TEL(02)3702-2100 / FAX(02)3702-2121/E-mail info @gallup.co.kr / internetwww.gallup.co.kr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한국갤럽 GALLUP KOREA

2007 통일외식조사

A1-5

Gallup 200716075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통일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님의 응답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주관 기관:



소장: 박 명 구 교수
 전화: 880-4052

2007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박무효
 담당연구원 홍승호
 실사연구원 권소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686

■ 지역 : 46-7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서울 8. 경기 15. 경남	2. 부산 9. 강원 16. 제주	3. 대구 10. 충북	4. 인천 11. 충남	5. 광주 12. 전북	6. 대전 13. 전남	7. 울산 14. 경북
■ 지역크기 : 8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 성 별 : 9	1. 남자 2. 여자						

SQ1)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만19세 ~ 만65세만
면접진행

먼저 남북통일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 / 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2) (보기카드 1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대료가 좋다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3) (보기카드 2 제시)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불가능하다



문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1	2	3	4
㉢ 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 협력	1	2	3	4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문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요?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매우 시급 하다	다소 시급 하다	별로 시급 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1	2	3	4
㉡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1	2	3	4

문6)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같은 민족이니까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3.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 기타(적을 것: _____)

다음은 통일 전후의 변화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7)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8)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빈부격차'는요?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빈부격차	1	2	3	4	5
㉡ 부동산투기	1	2	3	4	5
㉢ 실업문제	1	2	3	4	5
㉣ 범죄문제	1	2	3	4	5
㉤ 지역갈등	1	2	3	4	5
㉥ 이념갈등	1	2	3	4	5

문10)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원 : 예시문을 읽어줄 것)

1.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11)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이념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원: 예시문을 읽어줄 것)

1. 민주주의
2. 사회주의
3.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
4.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다음은 북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12) (보기카드 4 제시)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다

문13) (보기카드 5 제시)

○○님은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
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비민주적	중간								매우 민주적
1	2	3	4	5	6	7	8	9	10
+-----+-----+-----+-----+-----+									

문14) (보기카드 5 제시)

그럼, 현재 남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
각하십니까?

매우 비민주적	중간								매우 민주적
1	2	3	4	5	6	7	8	9	10
+-----+-----+-----+-----+-----+									

문15)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1. 매우 신뢰한다
2. 다소 신뢰한다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문16) ○○님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17)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문18)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19)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
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먼저 '선군정치'는요?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 선군정치	1	2	3	4
㉡ 주체사상	1	2	3	4
㉢ 천리마운동	1	2	3	4
㉣ 고난의 행군	1	2	3	4
㉤ 꽃재미	1	2	3	4
㉥ 아리랑 축전	1	2	3	4

문20) ○○님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먼저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
을 방문'은요?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있다	없다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1	2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1	2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1	2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1	2

문21)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
니까?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선거방식	1	2	3	4
㉡ 생활수준	1	2	3	4
㉢ 법률제도	1	2	3	4
㉣ 언어사용	1	2	3	4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1	2	3	4

문22)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문23)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다음은 대북지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24) ○○님은 현재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25) ○○님은 현재의 대북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폭 늘려야 한다
2. 조금 늘려야 한다
3.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4. 조금 줄여야 한다
5. 대폭 줄여야 한다

문26)로 가십시오

문25-1)(보기카드 6 제시)
(대북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그렇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2.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3.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4. 대북지원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5. 기타(적을 것: _____)

문26) ○○님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27) ○○님은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2.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3.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탈북자(새터민)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28)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3.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문29) (보기카드 7 제시)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동네 이웃'은요?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음 것)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동네 이웃	1	2	3	4	5
㉡ 직장 동료	1	2	3	4	5
㉢ 사업 동업자	1	2	3	4	5
㉣ 결혼상대자	1	2	3	4	5

문30)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원: 예시문을 읽어줄 것)

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31)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매우 동의 함	다소 동의 함	별로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4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1	2	3	4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	2	3	4

다음은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에 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32) (보기카드 8 제시)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33) (보기카드 8 제시)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34)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1. 북한 팀
2. 미국 팀
3.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5. 기타(적어줄 것 : _____)

문35) (보기카드 9 제시)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36) (보기카드 10 제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37)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38) ○○님은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 **문38-1)로 기입시오**
2. 약간 필요하다 ─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문39)로 기입시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38-1)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그러면, ○○님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없어도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충분히 가능하다
2. 약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다

문39)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북관계 개선
2. 한미공조
3. 똑같이 중요하다

○○님께서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40)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먼저 '4·19'는요?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
㉠ 4·19	1	2	3	4	5
㉡ 5·16	1	2	3	4	5
㉢ 10월유신	1	2	3	4	5
㉣ 광주민주화운동	1	2	3	4	5
㉤ 6월 항쟁	1	2	3	4	5
㉥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1	2	3	4	5

문41) ○○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
2. 대체로 긍정적
3. 대체로 부정적
4. 매우 부정적

5. 잘 모름

문42) ○○님은 "1970년대에 이룩한 경제발전은 민주화를 희생한 반쪽짜리 경제발전"이라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문43)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빈부격차'는요?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빈부격차	1	2	3	4
㉧ 부동산투기	1	2	3	4
㉨ 실업문제	1	2	3	4
㉩ 범죄문제	1	2	3	4
㉪ 지역갈등	1	2	3	4
㉫ 이념갈등	1	2	3	4

문44) ○○님은 현재 우리 사회의 반미정서가 얼마나 우려할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우려할 수준이다
2. 다소 우려할 수준이다
3. 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4.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님이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45)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1. 매우 관심이 있다
2. 다소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문46)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문47)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48)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자랑스럽다
2. 다소 자랑스럽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문49) ○○님은 다음의 행위가 얼마나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정부에 항의하는 공개 집회'는요?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체로 허용되어야 한다	가끔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 정부에 항의하는 공개 집회	1	2	3	4
㉡ 항의 시위와 데모	1	2	3	4
㉢ 정부에 항의하는 전국 노동자 파업	1	2	3	4

문5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먼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요?
(면접원: ㉠~㉣까지 각각 물을 것)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1	2	3	4	5
㉡ 부모를 잘 부양한 자식은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	1	2	3	4	5
㉢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1	2	3	4	5
㉣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1	2	3	4	5
㉤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1	2	3	4	5
㉥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1	2	3	4	5

문51) ○○님은 북한의 태도나 남한 관련 정책이 올해 12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약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다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현재 상황에 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D 1) ○○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2. 배우자 있음(결혼·동거 포함)
3. 이혼
4. 별거
5. 사별

D 2) ○○님은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1. 불교
2. 개신교(교회)
3. 가톨릭(성당)
4. 유교
5. 기타(적을 것: _____)

98.종교 없음
99.모름/무응답

D 3)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면접원: 중퇴·재학·휴학은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재학/대학졸업 이상
5. 대학(원)재학 이상

D 4)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자)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술/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숙련공 등)
5. 일반직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직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디자인/프로그래머 등)
9. 가정주부
10. 학생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11. 군인/경찰
12. 무직
13. 기타 (적어 주십시오 : _____)



D 5) (보기카드 11 제시)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199만원
3. 200만원-299만원
4. 300만원-399만원
5. 400만원-499만원
6. 500만원-699만원
7. 700만원 이상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님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3. 중간과 비슷하다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D 7) (보기카드 12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의 상
2. 상의 하
3. 중의 상
4. 중의 하
5. 하의 상
6. 하의 하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훨씬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3. 차이가 거의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5. 훨씬 나빠졌다
6. 잘 모르겠다

D 9) ○○님께서 만15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은 어디 이십니까?

- | | |
|--------|----------|
| 1. 서울 | 10. 충청북도 |
| 2. 부산 | 11. 충청남도 |
| 3. 대구 | 12. 전라북도 |
| 4. 인천 | 13. 전라남도 |
| 5. 광주 | 14. 경상북도 |
| 6. 대전 | 15. 경상남도 |
| 7. 울산 | 16. 제주도 |
| 8. 경기도 | 17. 북한 |
| 9. 강원도 | 18. 외국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 후 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연락처	() - () - ()	지역번호	번호
조사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리 _____ (반드시 동/리 단위까지 자세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조사일시	_____월 _____일		
면접원 이름	ID		
Supervisor		검 증 원	

2007 통일의식조사

Institutue for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